건축사

519

KIRA 2012 07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칼 럼 포괄수가제 의협사건, 최소한의 대가기준도 없는 건축사…
에세이 지금 댁의 건축은 어떠십니까?
죽은 도시 살리기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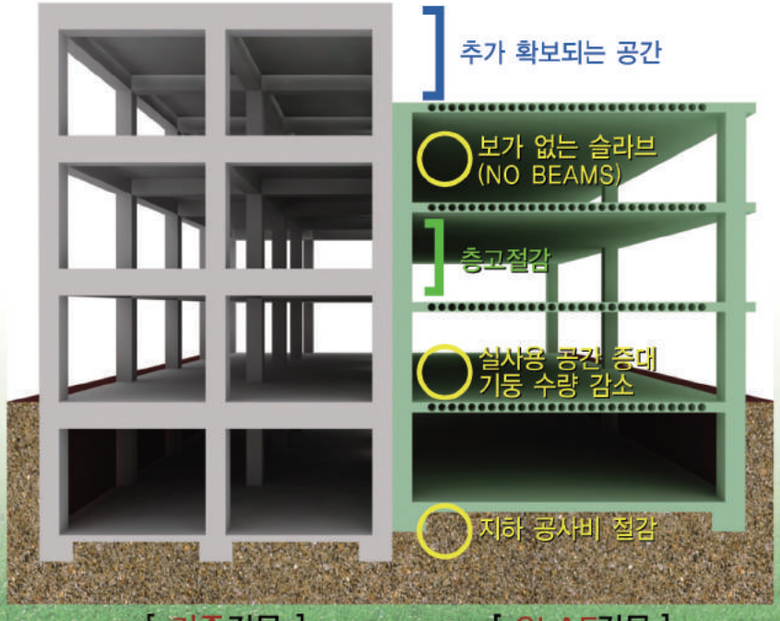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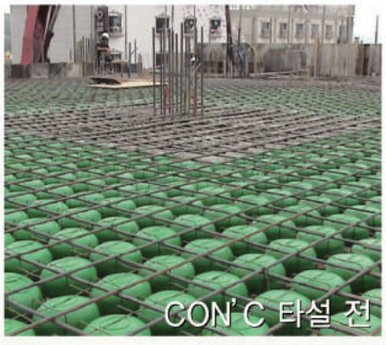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TEL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www.wilmat.kr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매트

윌매트

Wilmat
신개념 출입구 매트

윌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써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시스템. 윌매트는 국내 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출입구매트. 윌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윌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켜드립니다.

Luxury Entrance Matting System

시공실적

국립생태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국회의원회관, 월드건설 사옥,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3빌딩, 현대기아마북연구소, 한진중공업 필리핀메인오피스, 한진중공업 마닐라 사옥, 김포롯데몰, 제주보광휘닉스 아일랜드,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판교LIG넥스원R&D센터, 송도 포스코건설사옥, 삼성전자기흥연구동, 신도림대성디큐브시티,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랜드사옥,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의료원, 전북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천안단국대치대병원, 아시아나 기내식센터, 전국 초·중·고교 시설환경개선공사, 두산위브더제니스, 제주대학교, 휘닉스스프링스CC, 휘슬링락CC, 프리마호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삼성디지털프라자, LG하이프라자, LG패션, 금강제화, 제일모직, 나이키 전국매장, 유니클로, 아디다스, KT지사등

국회의원회관

삼성그린투모루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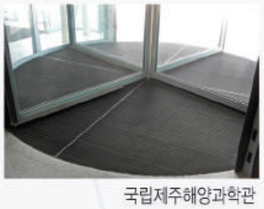
아시아나캐터링하우스

신촌세브란스재활병원

삼성테크윈판교R&D센터

파주롯데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 신촌점


국립제주해양과학관

현대기아마북연구소

송도포스코 R&D

ECOSYS (주)에코시스/윌매트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544-2 Tel: 02-786-7115 / Fax: 02-784-2011

brother
at your side

건축,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을 위한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A3용지 인쇄 PRINT A3용지 스캔 SCAN A3용지 복사 COPY A3용지 팩스 FAX

PC MAGAZINE EDITORS' CHOICE
MFC-J6710DW
01/Jun/2011

기자들의 선택상 수상제품
(선정 2011. 6. 1)

LC73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3C	LC73M	LC73Y	LC73BK
600매	600매	600매	600매

LC77XL계열

Cyan	Magenta	Yellow	Black
LC77XL-C	LC77XL-M	LC77XL-Y	LC77XL-BK
1200매	1200매	1200매	2400매

brother
at your side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22 백영빌딩 4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A/S 문의 1577-3340

구매문의 최일환 대리 il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New

「KOREAN ARCHITECTURE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21세기
첨단 시스템 도어
JUNGWOO safedoor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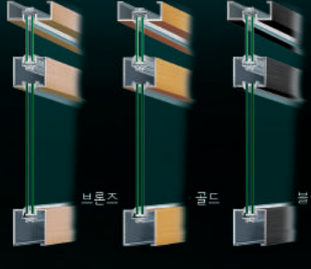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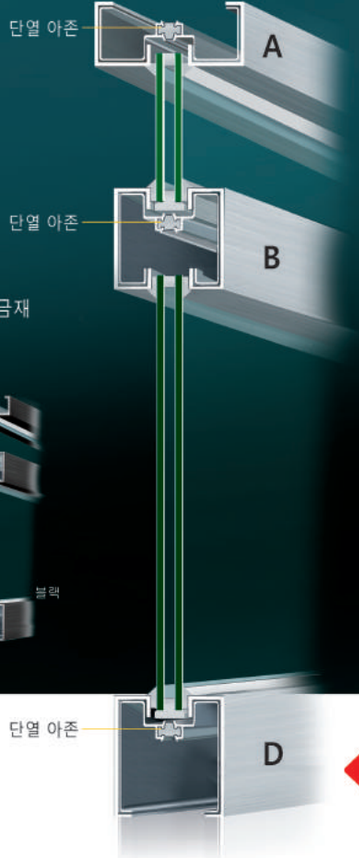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재질/한국산업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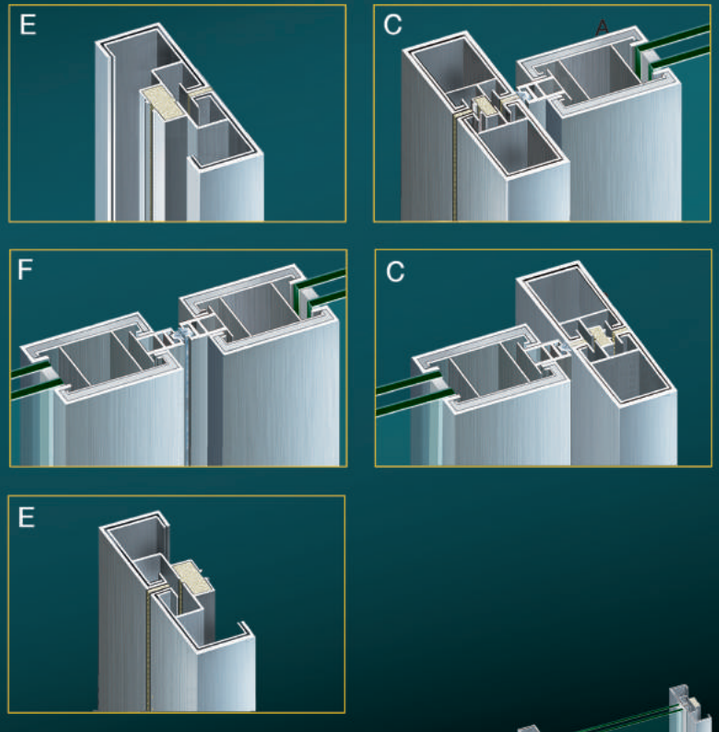
- 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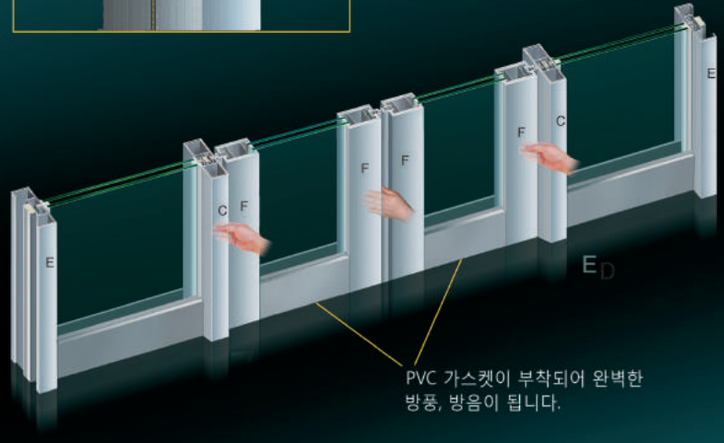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손」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KOREAN ARCHITECTS

건축사

www.KIRA.or.kr
2012 July 07

COVER STORY

표지사진 :
수나헌(粹娜軒)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자료제공

발 행 인	강성익
편집인 겸 편집국장	조충기
취 재 · 편 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 화	대표 02_3415_6800
팩 시 밀 리	02_3415_6850
인 터 넷	www.kira.or.kr
디 자 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 쇄	현진크리에이티브 02_2276_6341~3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ang, Sung Ik
Editor	Zo, Chung-gi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13 칼 럼 COLUMN
포괄수가제 의협사건
최소한의 대가기준도 없는 건축사…
Bundle of Services System - Medical Association Case
Architects,… who does not have least fee standard
_조충기

015 에세이 ESSAY
지금 댁의 건축은 어떠십니까?
What can an architect contribute to society?
_조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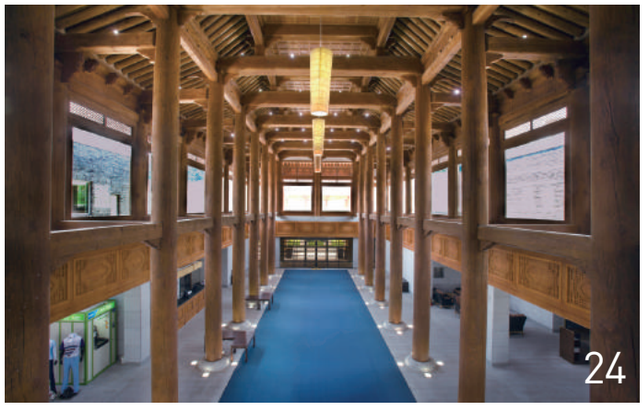
016 에세이 ESSAY
죽은 도시 살리기
Saving The Dead City
_신경선

019 만 평 CARTOON
_곽희수

020 회원작품 WORKS
타니CC 클럽하우스
TANI C.C CLUBHOUSE
_김영택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버클리 유치원
BERKELEY KINDERGARTEN
_조민석 | 단아 건축사사무소

한국폴리텍 VI대학 구미캠퍼스 공학관
ENGINEERING COLLEGE, KOREA POLYTECHNIC VI
GUMI CAMPUS
_김명홍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Contents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2년 07월호 통권 519호

가운 7033 '성심재'
GAWOON 7033 'SUNGSIMJAE'
_신춘규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PANGYO TECHNO-VALLEY GLOBAL R&D CENTER
_김회훈, 이상인, 송주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수나헌(粹娜軒)
SU NA HEON
_박준영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064 설계경기 COMPETITION
경안동 주민센터
GYEANGAN-DONG COMMUNITY CENTER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GWANGGYO NEW TOWN CULTURAL FACILITIES

푸른길도서관
GREEN WAYS LIBRARY

079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위법 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을까?
Can illegal building which people reside be demo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_박시준

080 기고 FEATURE
친환경재료적용 · 목조건축
Wood is Good!
_김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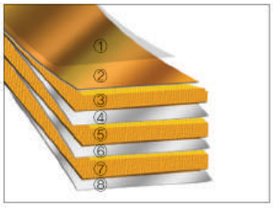
084 보고서 REPORT
2012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참가 보고서
AIA 2012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_조인숙

096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해외건축동향 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2011년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 수상

Slim 두께는

열효율은 High



①알루미늄 필름
②폴리에스터 중공사 장섬유
③가교 발포 폴리에틸렌
④알루미늄 필름
⑤가교발포 폴리에틸렌
⑥알루미늄 필름
⑦가교발포 폴리에틸렌
⑧알루미늄 필름

제품 특징

우수한 성능 입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기술 및 기능성 연구에 의한 제품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

우수한 복합 기능 표면이 Pure Aluminium foil 층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고 복사열을 차단(97%)하는 복합 기능 열반사 단열재.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한 내습성, 방수성, 내열성, 내한성으로 보온 단열효과가 높음.

친환경 소재 산화 및 풍화현상이 없으며 고인장강도로 지속적인 성능을 유지.

간편한 시공 건축물 시공시 굴곡진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부분도 빈틈없이 타카 시공 및 스티커식 시공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재물이 없음.

TECHLON™ 복합기능 고효율 단열재

(주)테크론 본사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379번지 Tel 031) 671-7071~3 Fax 031) 671-7074 www.itechlon.com

포괄수가제 의협사건

최소한의 대가기준도 없는 건축사…

Bundle of Services System - Medical Association Case

Architects,... who does not have least fee standard

조충기 |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他山之石

14 정책 Policy 의협신문

노환규 회장 "거짓말하는 정부, 방관하지 않겠다"

6조원 건보료 멀 낸 정부 재정 위기땐 의사 탓
포괄수가·의료질 무관? 국민 생명 담보 거짓말

환자단체 "수술 거부하는 병원 퇴출운동"

출처 : 의협신문 6월 18日자 14면(위) / 동아일보 6월 19日자 A13면(아래)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의협신문 Policy 정책 3

성난 의사들, 진료실 박차고 나오다

의협 궐기대회 10000여 명 집결…강력 투쟁 예고
'정책강행 중단' 촉구…"의료계와 협의해야"

출처 : 의협신문 6월 18日자 3면

건축사 창간호
1966년 7월

건축사 100호
1977년 6월

건축사 200호
1985년 11월

건축사 300호
1994년 4월

건축사 400호
200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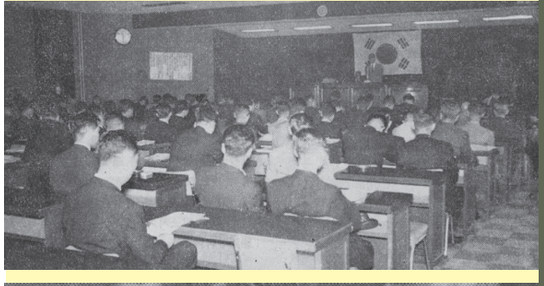
건축사 500호
2010년 12월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건축史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5년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1965년 5월 15일 제1호 건축사가 탄생했다.
1965년 10월 1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되다.
1966년 7월 제1호 「建築士」지가 발간되었다.
2010년 12월 「建築士」지는 500호를 발간하였다.
2012년 7월 현재 519호가 발간되었다.

건축사지는 국내유일의 전통 건축잡지입니다.
건축사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건축史에 건축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참여는 더 나은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상)창립총회 광경 / (하)회장선출 투표 광경(당시 장기인 회장 선출)



기고내용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건축물 이미지 2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본도면(배치, 단면, 평면/PDF 제출)〉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제출패널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혹은 투시도,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고 등	건축계 현안에 대한 소감, 건축여행(이상 A4 5매 이내) / 세미나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 ~ 2매〉
작품노트 등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 중 가장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4매 이내,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출)

지금 댁의 건축은 어떠십니까?

What can an architect contribute to society?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반세기 전에는 성장을 목표로 기술에의 도전이나 발전에의 기여가 이슈였다. 요즈음 시사성이 높은 내용들이란 녹색성장 · 친환경 · 전통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논의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물의 비교 중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 번 되새겨 보고자 한자. 그 이유는 이런 견해가 공사 마무리를 했거나, 하고 있는 서울의 동대문 역사공원이나 서울시청사 프로젝트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도시 서울 사대문 안의 두 프로젝트 모두가 구현하는데 너무 어려운 그림만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어렵게 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너무 치우쳐 과학기술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뜻이지 설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과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 대한 비교다. 40년 전 뮌헨 올림픽 공원의 설계는 당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조형적으로는 알프스산을 모방하고, 형식은 경직되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대응하여 새롭고 민주적이며 낙관적인 디자인으로 건축 및 구조와 재료가 어우러진 당시 아주 참신한 작품이었다. 막상 시공비가 예산의 몇 배가 들어가게 되자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 건축계는 경기장을 덮었던 아크릴 유리(acrylic glass)와 강선(鋼線, steel cable)이 대형공간에 사용된 최초의 예로 건축기술 발전에 쾌거를 이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그 작품을 통해 건축설계뿐 아니라 재료와 기법 및 협력해야만 하는 기술 분야까지가 한 단계 올라가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일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건축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예산보다 늘어난 시공비가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비라고 이해되었고, 공사비 논의는 종식되었다.
그로부터 30년 후 뮌헨 올림픽 주경기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짓자고 할 때 뮌헨공대(TUM) 및 뮌헨대(LMU)를 중심으로 건축역사학자들이 주도하고 시민이 들고 일어나 연판장을 돌려서 30년밖에 안된 올림픽 경기장이 현대건축으로써 독일의 문화재가 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주경기장이었던 중국 국가체육장 새둥지(鳥巢, 냐오챠오 Bird's Nest)는 아직은 단순히 건축사의 의지를 구현한 작품으로 밖에는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도자기를 연구하여 디자인에 적용한 예라고 하는데, 한편 중국에서 '새둥지'란 비싼 요리의 이름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생산된 11만 톤이나 되는 강철이 소요된 큰 규모의 건축물은 유사한 규모의 아주 잘된 건물에 비해서 재료비 및 공사비가 8배 이상 들었다고 한다. 이 '비싼요리'에 대해 중국정부는 대국답게 세계에 알리는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전문가적 견해로 중국 사례는 뮌헨 사례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건축에 새로이 기여한 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 새둥지가 뭔가를 보여준 외에 세계 건축계에 기술이나 설계발전에 끼친 새로운 파장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조명과 함께 일시적으로 눈을 즐겁게 했던 것은 틀림없다.
녹색성장 · 친환경 · 전통 보존 및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동대문 역사공원 및 디자인 플라자나 "현대판 쯔나미"라는 별칭을 얻은 신 서울시청사는 오픈을 앞두고 세계건축계에 어떤 기여를 하나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

조인숙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2012), ICOMOS한국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 문화재 위원(기념물분과)이며, 대한건축사협회 2012년 한옥설계 전문인력양성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ESSAY

죽은 도시 살리기
Saving The Dead City

신경선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도시재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개발 격차, 획일적인 고층주거단지 개발, 도시경관 저해,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산발적인 문제점이 양산되며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오랜시간 지역 주민과 주택 ·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기대와 우려가 섞이고 정책에 대한 오해와 사업 찬, 반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켜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 뉴타운 ·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고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를 연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도시 · 건축 정책을 공유 ·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의 사업자 중심, 재산증식수단이었던 도시개발이 아닌 '삶터를 가꾸고 만들기'의 도시재생방식을 실효성있게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보전+신축'의 새로운 재개발 방식, 생태도시 지향 등 특화된 재개발 모델들이 제시, 침체되어 있는 도시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을이라는 작은 단위를 활성화시킨다.

도시(주거)재생사업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와 작은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201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고 순천시를 생태도시로 특화하기 위해 국제습지센터, 순천만 생태공원 등 도시를 재정비하고 있다. 죽은 도시를 살리는 방법으로 공공미술을 제안한 수원 행궁동 마을(2011년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제주 두맹이 골목(2008년 Artscape Jeju 공공미술공모 당선작)은 재개발이라는 대수술 없이도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들 마을은 기존 마을의 전형을 보존하는 방식을 택하고 건축적 제안보다는 환경미술로서 집객을 유도하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주민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성공한 해외사례로는 일본 롯본기 힐스와 영국의 캐슬베일을 들 수 있다. 이 두 지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주민 껴안기 정책과 두루 갖춘 사업성, 차별화된 개발방향으로 각종 문화시설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롯본기 힐스는 토지소유자와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12년이 걸렸고, 캐슬베일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삶의 질을 위해 각 분야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초점을 두었다.

신경선 건축사는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주택기획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 건축개발 전문가과정(교학처)에 있다. 현재,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감정인, 서울시건축사회 이사이며, 2007년도에 에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도시가 지닌 그 도시다움의 흔적을
어떻게 특화하고 재생할 것인지,
시민들의 사랑 속에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창구로부터 제안되는 것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미래의 도시주거 대안으로는 건축과 조경의 융합형태인 조경화 건축물을 들 수 있다. 고층빌딩에서의 녹지 확보는 CO_2절감, 도시공기정화, 도심 내 자급자족, 도시경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주거)재생사업의 최근 동향에서 2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사업 성격을 강화하여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다.
둘째는 무리한 개발 속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어갔던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녹화, 소생태계 조성 등 생태적 요소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거지 재생은 인간적 스케일의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규모의 주거유형 혼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기성 시가지와의 연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히 개발과 보존의 대립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켜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로서 그 도시가 지닌 그 도시다움의 흔적을 어떻게 특화하고 재생할 것인지, 시민들의 사랑 속에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대한건축사협회의 창구로부터 제안되는 것이 가능하다.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인 만큼 시도 건축사회와의 연계사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각 시 · 도의 도시(주거)재생사업 견학을 통해 주거지 정비사업의 현재 진행단계를 파악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 세미나 개최,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미래 주거지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공유, 관련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연대, 정책제안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건축사의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원 행궁동마을

제주 두맹이 골목

(사진 출처 : 정부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8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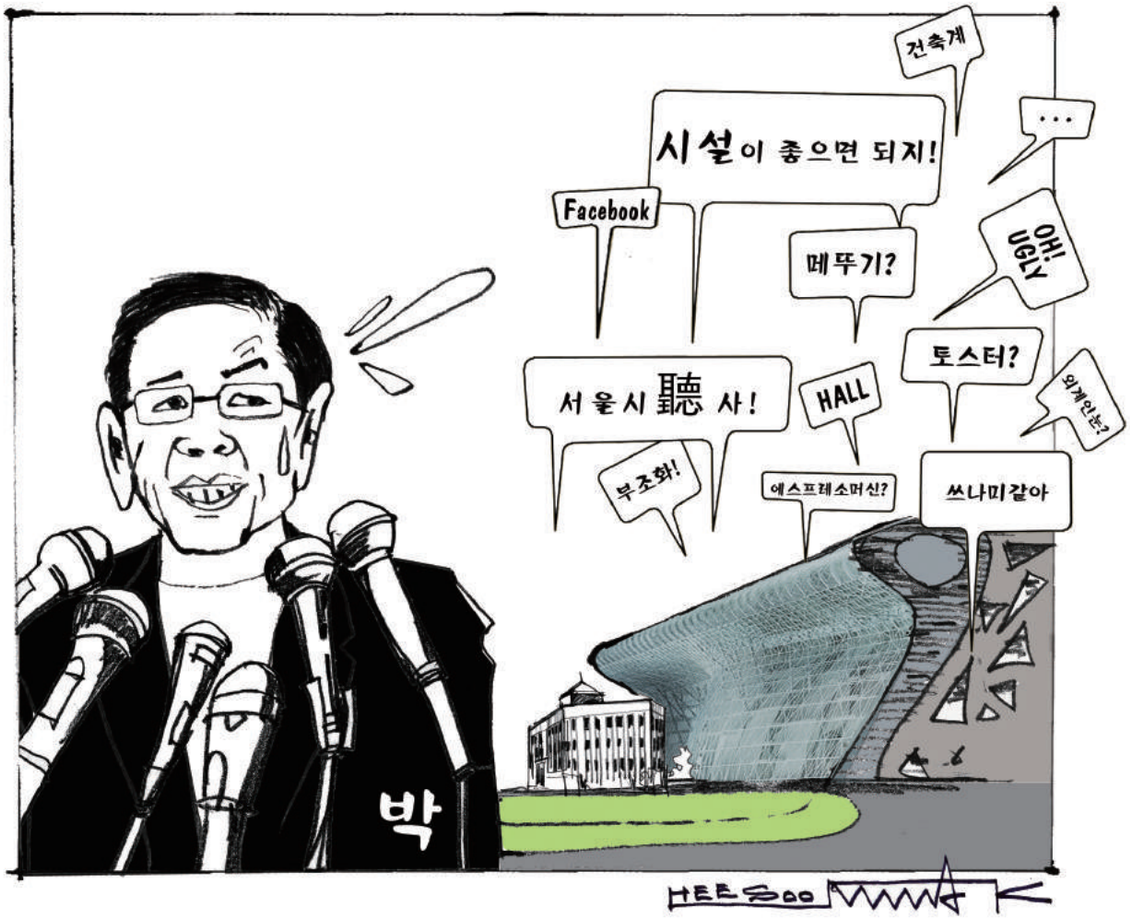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table>
<tr><td>1. 시험일자 및 장소</td><td colspan="4">가. 시험일자 : 2012. 9. 16(일)
나. 시험장소 : 2012. 8. 22(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 ·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td></tr>
<tr><td rowspan="5">2.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td><td>시험과목</td><td>대지계획</td><td>건축설계 1</td><td>건축설계 2</td></tr>
<tr><td>배점</td><td>100점 만점</td><td>100점 만점</td><td>100점 만점</td></tr>
<tr><td>시험시간</td><td>09:00 ~ 12:00 (3시간)</td><td>13:00 ~ 16:00 (3시간)</td><td>16:30 ~ 19:30 (3시간)</td></tr>
<tr><td>출제범위</td><td>○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td><td>○ 평면설계</td><td>○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td></tr>
<tr><td>답안지 작성방법</td><td colspan="3">○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td></tr>
<tr><td>3. 응시자격</td><td colspan="4">가. 건축사자격시험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 건축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따릅니다.</td></tr>
<tr><td>4. 응시원서 접수</td><td colspan="4">〈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가. 기 간 : 2012. 7. 10(화) ~ 7. 17(화) (시작일 09:00 ~ 24:00, 평일 00:00 ~ 24:00, 마감일 00:00 ~ 18:00까지)
나.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기 타 : 응시수수료(8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또는 각 시 · 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td><td colspan="4">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12. 11. 9(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 · 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2. 11. 14 ~ 11. 16 (09:00 ~ 18:00)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td></tr>
<tr><td>6. 응시자 지참물</td><td colspan="4">가.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나.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 규격초과 제도판은 시험실 반입 및 사용 불가함)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이 불가함)
※ 중 · 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보조책상지급)함.</td></tr>
<tr><td>7. 주의사항</td><td colspan="4">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마.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반드시 리셋을 한 후 사용가능하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오기 ·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 ·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 ·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10)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공공건축? 공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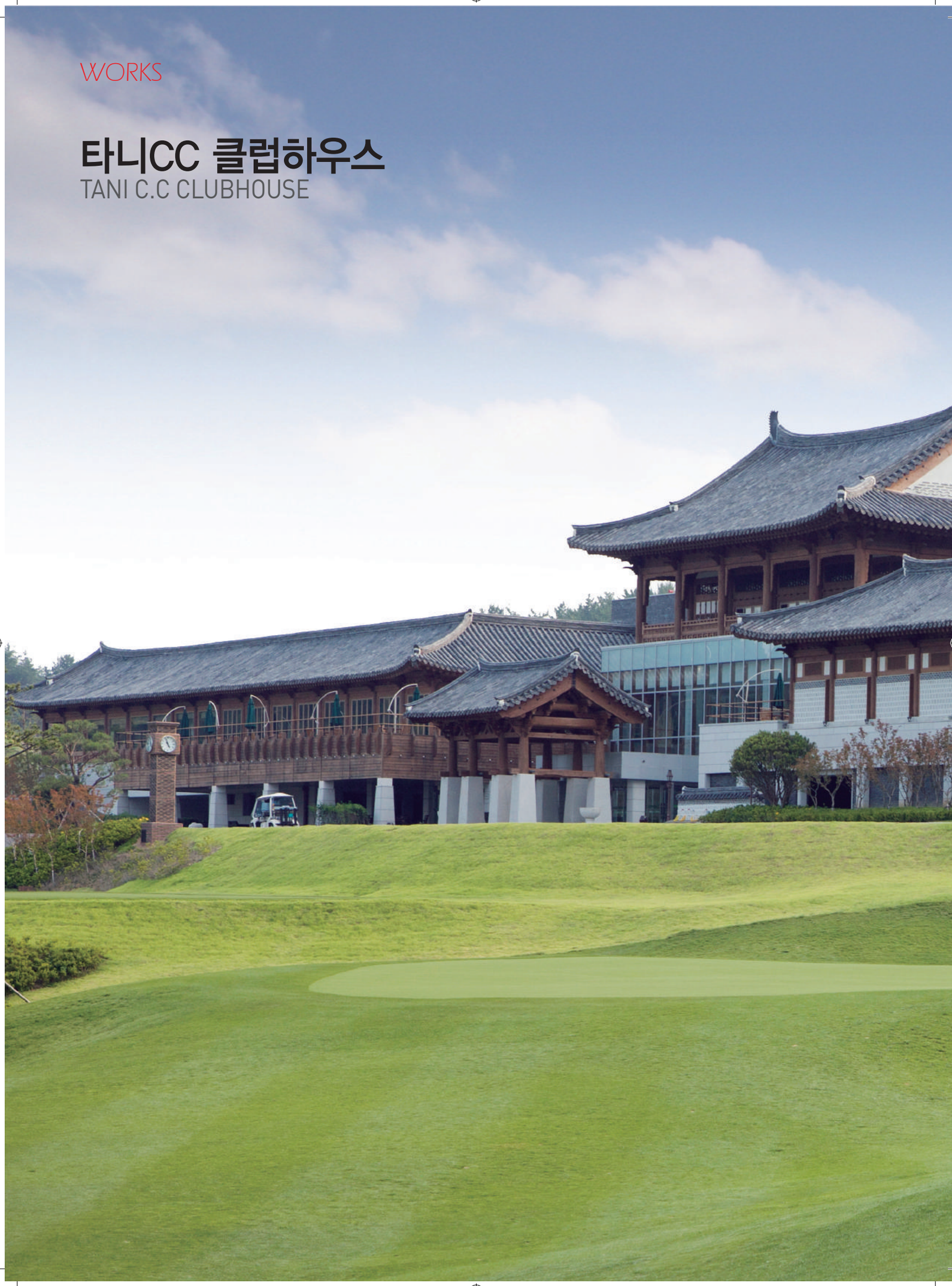


곽희수 | idemm@chol.com

약력
- 홍익대학교 졸업
- 이뎀도시건축 대표
- 홍익대학교 튜터
- 경원대학교 겸임교수

WORKS

타니CC 클럽하우스
TANI C.C CLUBHOUSE



타니CC 클럽하우스

건축주 | 타니골프앤리조트(주)

설계자 | 김영택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 한옥자문 : 정연상 | 국립안동대학교
- 설계팀 : 김승환, 이규봉, 구경민, 권기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두항 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중앙기술단 / (주)한석소방이앤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태화종합기술
  - 토목분야 : (주)에이치포이앤씨

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시공사 | 삼부토건(주)

대지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대지면적(Site Area) | 1,659,65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4,898.29㎡

연면적(Gross Floor Area) | 8,269.3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46%

용적률(Floor Area Ratio) | 0.52%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목구조

주요마감재 | 한식기와, 전벽돌, 화방벽

설계기간 | 2007.07 ~ 2008. 10

공사기간 | 2008. 11 ~ 2010. 12

사진(Photographer) | Kim, Yeong-hun

Client | TANI Golf & Resort

Architect | Kim, Young-taik

Project Team | Kim, Seung-hwan / Lee, Gyu-bong / Koo, Kyung-min
Kwon, Ki-hoon

Han-ok Advice | Jung, Yun-sang

General Constractor | Sambu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Gahwa-ri, Gonyang-myeon, Sacheon-si, Gyeongsangnam-do, Korea

Structure | RC + Traditional Timber Structure

Structural Engineer | Doo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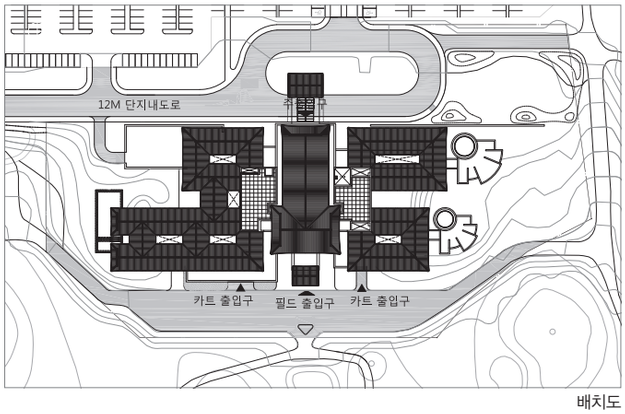
HVAC Engineer | Taehwa

Electrical Engineer | Centre Engineering Co.Ltd.

Civil Engineering | H4ENC

Design period | 2007.7 ~ 2008.10

Construction period | 2008.11 ~ 2010. 12



배치도

'妊伶C.C' 아름다울 타, 당신 니 – '아름다운 당신을 위한 골프장'을 직접 작명한 건축주는 유난히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이다.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는 2,500평 규모의 '한옥클럽하우스'를 순수하게 목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가구방식으로 하되 현대건축의 공사비 수준으로 설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늘 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터라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고가인 육송대신 더글라스를 선택하고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통하여 재료비를 절감하였으며, 전통적인 치목방식 대신 기계화 치목을 선택하고, 조립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였다.

한옥의 공간감을 극대화하려면, 기능별로 분동하여 회랑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적합하지만, 분동하면 건물의 외피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하고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전체를 단일건물로 설계하였다.

이 경우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은 지상 1,500평 정도의 한옥건물에 대한 스케일감과 비례체계였다. 계획단계에서 궁궐과 종묘 등 대규모 한옥을 답사하고 현장감을 확인한 후 안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수차 거듭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타니CC 한옥 클럽하우스는 전통한옥이 아닌 이 시대의 한옥이기 때문에 창호, 냉난방, 커튼월 및 개량된 난간 등 현대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하였다. 또한, 한식목구조로서 내화구조인정을 받은 국내 최초의 건축물이다.

한옥은 더 이상 전통건축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 반세기동안 현대건축이 발전해왔듯이 한옥도 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외부로커 중정

'Tani C.C.-TA-NI' ('Ta' means 'beautiful', 'Ni' means 'yourself' respectively in Chinese characters): the name of country club was indeed a direct outcome of my Client's strong pride in traditional Korean culture. Upon his initial request for the design of a 'Club House' in Korean style ('Han-ok') with a total floor space of 2,500 pyeong while maintaining the essential style of the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I was quite pleased on the one hand because of my long-time interest in 'Han-ok' but on the other hand I was quite concerned as well.

With a view to reducing the total building cost, I chose 'Douglas fir' rather than our inland pine wood of high cost and I further saved the cost through its direct purchase of 'Douglas' at a place of production. In addition, our choice of a mechanized way rather than a traditional way of wood-trimming also helped us reduce the material cost, while the assembling of woods with use of a giant size of crane further reduced its total labor cost.

And with a view to maximize the space of Han-ok, a linking with corridor method while separating the space according to its own functionality is quite appropriate because functional separation of space usually causes the increase of its total surface area. Accordingly, I preferred to integrate the whole space into a single structure in order to reduce the cost and to fully abide by its original functionality as well.
However, one thing that I could not be quite confident in this case was the proportional 'sense of scale' from a 'Han-ok' structure of 1,500 pyeong on the ground. I, therefore, made various times of site-visit to all the places of large-scale 'Han-ok' structures such as royal palaces and 'Jong-Myo'(the ancestral temple of the royal family) from the initial stage of my concept designing and thus completed its final plan by repeating the procedures of site-visit and revising over many times.

The Han-ok Club House of Tani CC is not a traditional structure but a contemporary 'Han-ok' structure. This enabled me to resolutely introduce such factors as modern system of windows & doors, air-conditioning and heating, curtain-wall and improved balustrade, etc. into designing. In particular, the Club House is the first 'Han-ok' structure ever with its official certification of fireproof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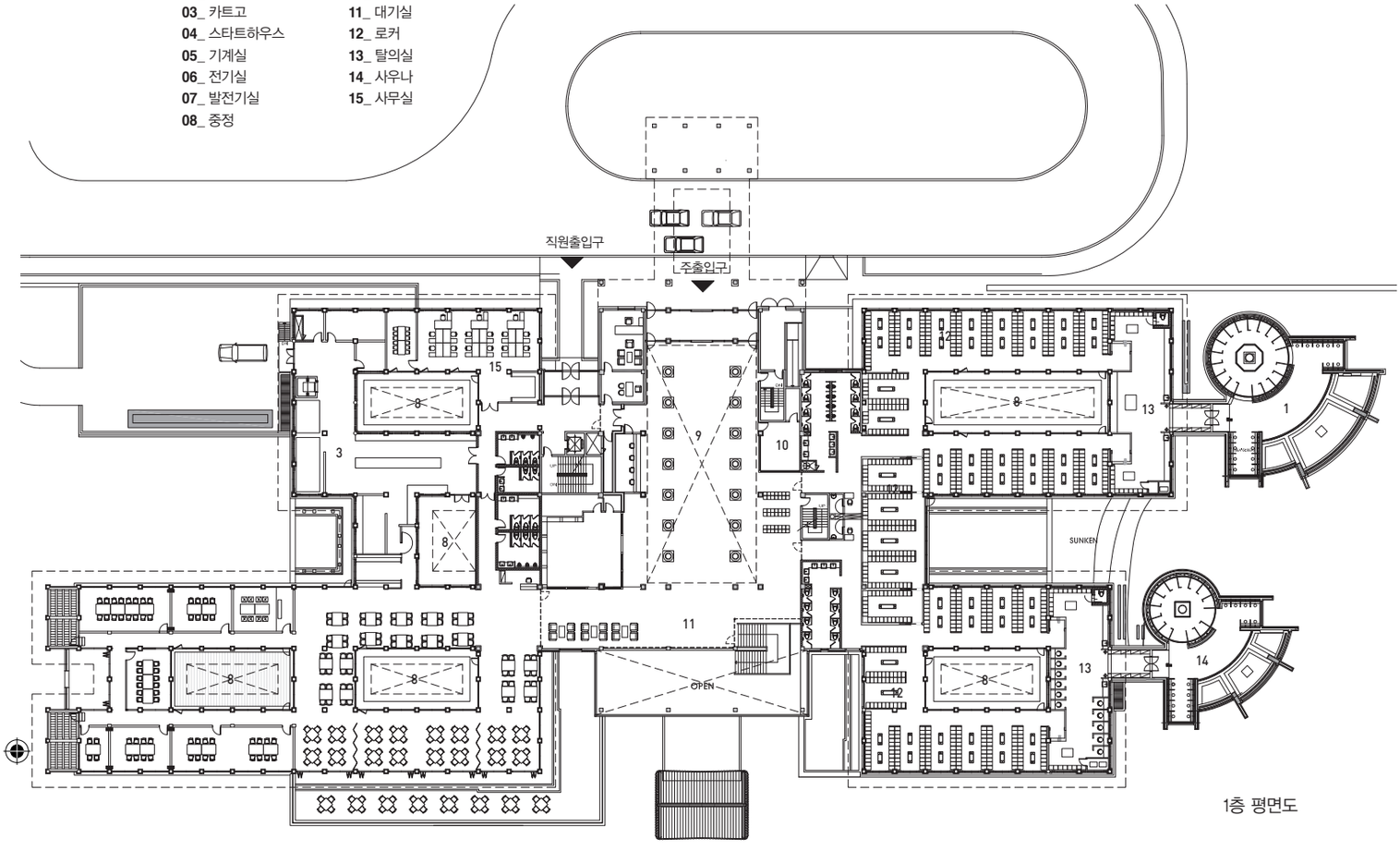
It is my firm belief that Han-ok should not be confined to the category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Han-ok (a Korean style house) should continue to be developed and be integrating with future glancing architecture just as the modern architecture has been developed over the last half-century.

메인 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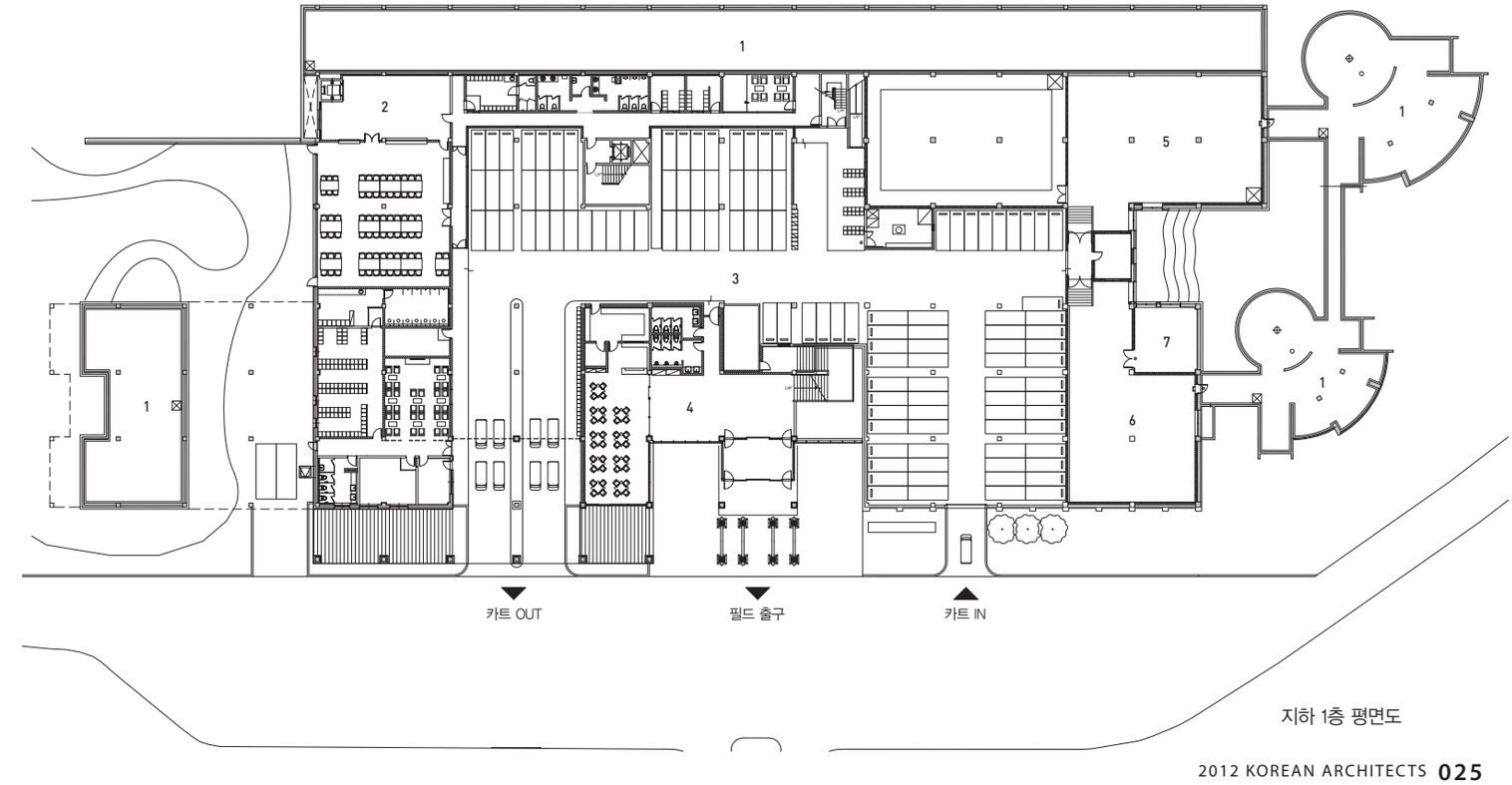
식당 단체실

스타트하우스

01_ PIT
02_ 주방
03_ 카트고
04_ 스타트하우스
05_ 기계실
06_ 전기실
07_ 발전기실
08_ 중정
09_ 메인홀
10_ 비즈니스 센터
11_ 대기실
12_ 로커
13_ 탈의실
14_ 사우나
15_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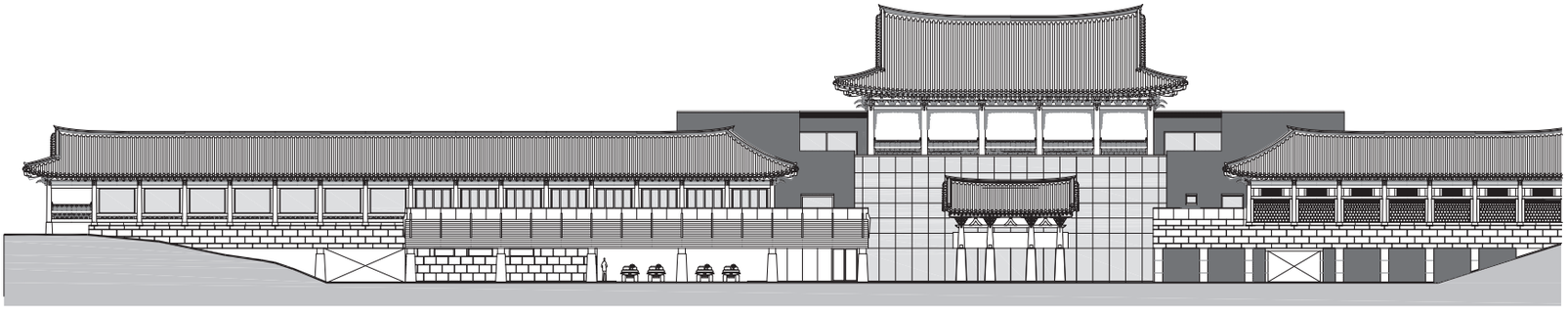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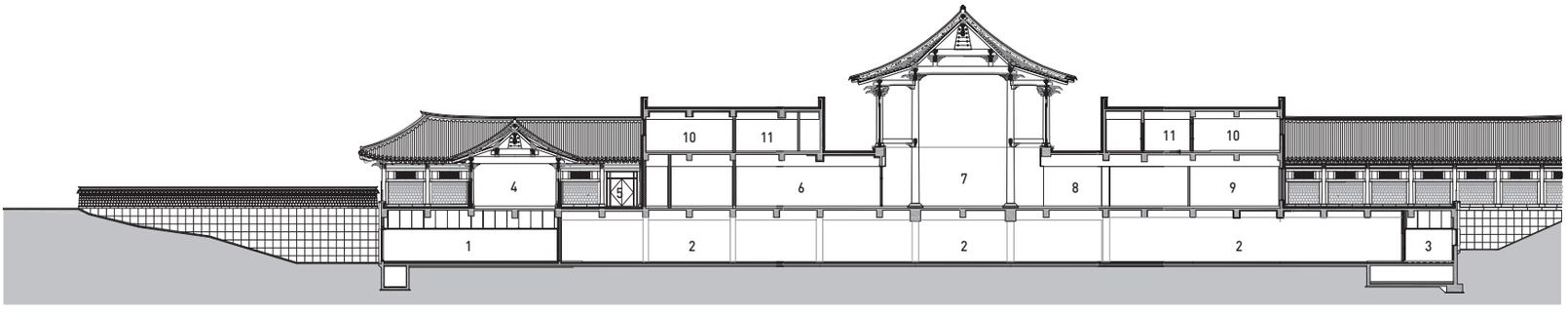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식당외부

2층 연회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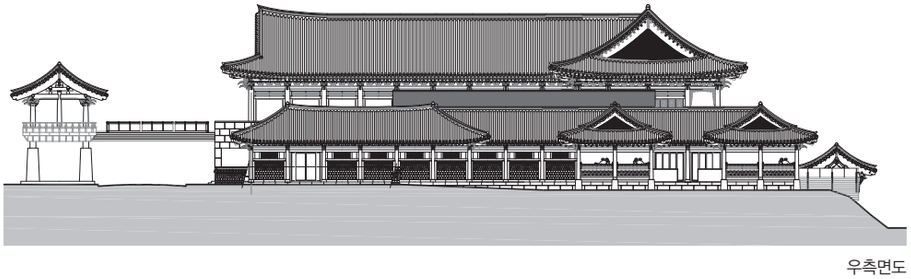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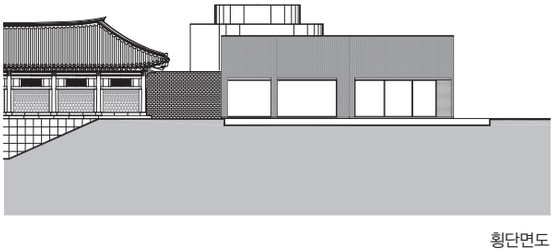
01_ 직원식당
02_ 카트고
03_ 중앙감시실
04_ 주방
05_ 중정
06_ 프로숍
07_ 메인홀
08_ 로비
09_ 가변로커
10_ 사무실
11_ 복도
12_ Drop off Zone
13_ 주출입구
14_ 스타트 하우스
15_ 집무실

식당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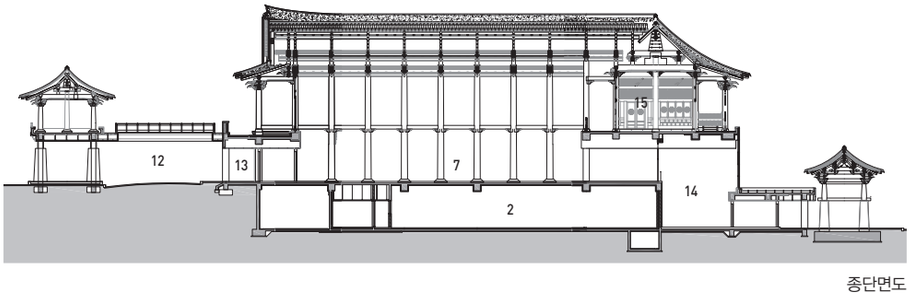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버클리 유치원
BERKELEY KINDERGARTEN

건축주 | 문경진

설계자 | 조민석_KIRA | 단아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권은보, 최진협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다우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동도MEC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동도MEC
  - 토목분야 : 원우기술개발

감리자 | (주)ES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주)ES종합건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769-1외 2필지

대지면적(Site Area) | 2,594.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516.94㎡

연면적(Gross Floor Area) | 1,843.90㎡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9.93%

용적률(Floor Area Ratio) | 53.99%

규모(Building Scope) | B1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실외 _ THK50압출성형시멘트판, 노출콘크리트, THK4알루미늄복합패널, 알루미늄타공판, THK22,24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 | 2010. 04. 29 ~ 2010. 08. 01

공사기간 | 2010. 08. 02 ~ 2011. 02. 17

Client | Moon, Kyeong-jin

Architect | Cho, Min-suk

Project Team | Kwon, Eun-bo / Choi, Jin-hyup

General Constractor | E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Location | 769-1, Suwan-dong, Gwangsan-gu, Gwangju-si, Korea.

Finishing Materials | Monocoushe, THK18 Glass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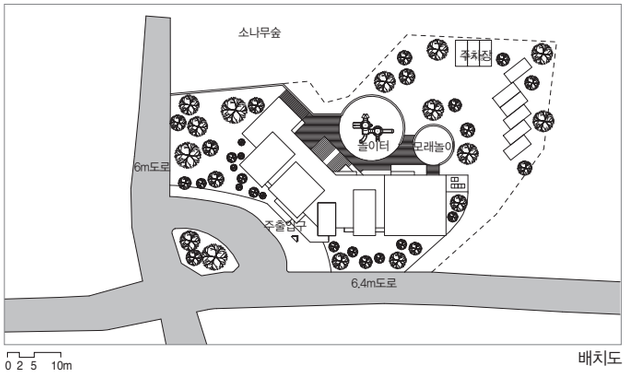
HVAC Engineer | Dongdo MEC

Electrical Engineer | Dongdo MEC

Civil Engineering | Wonwoo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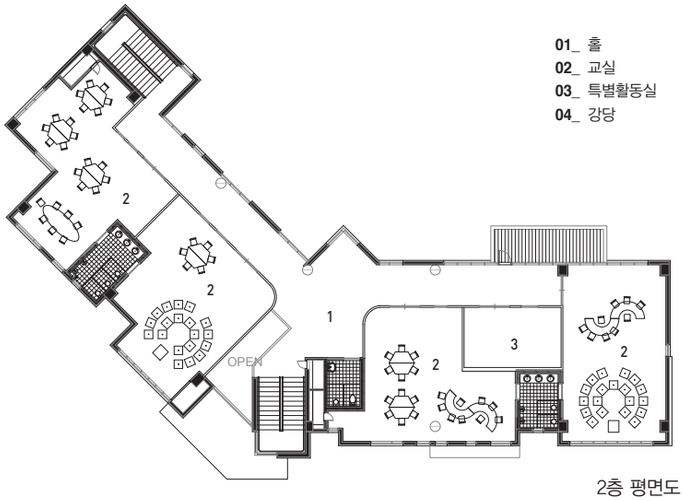
Design period | 2010. 04. 29 ~ 2010. 08. 01

Construction period | 2010. 08. 02 ~ 2011. 0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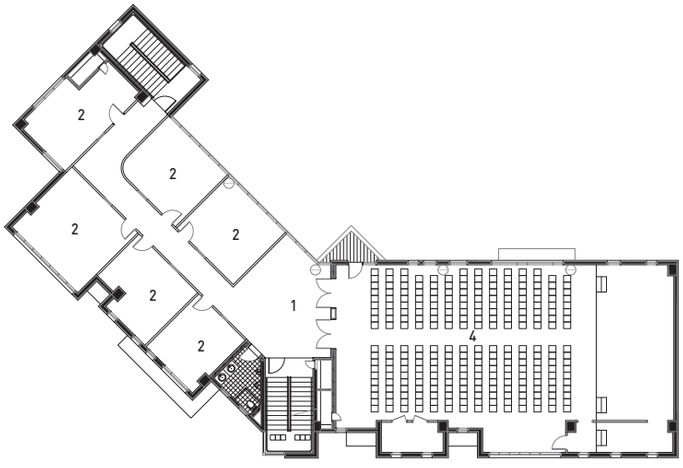
배치도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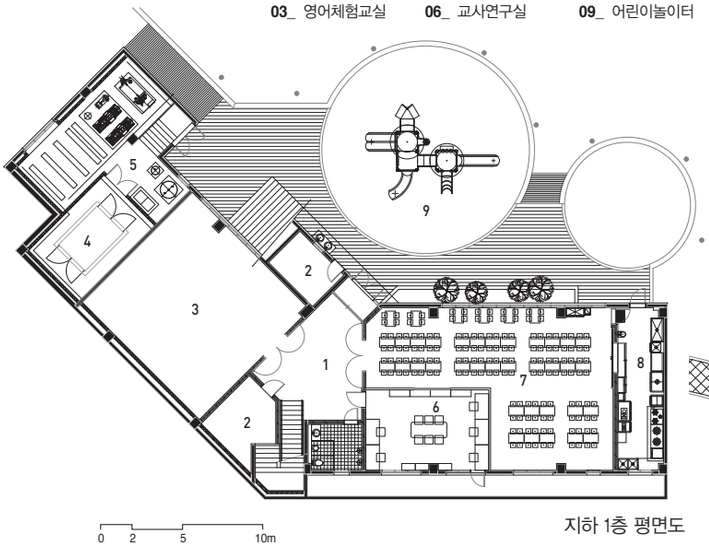
01_ 홀
02_ 교실
03_ 특별활동실
04_ 강당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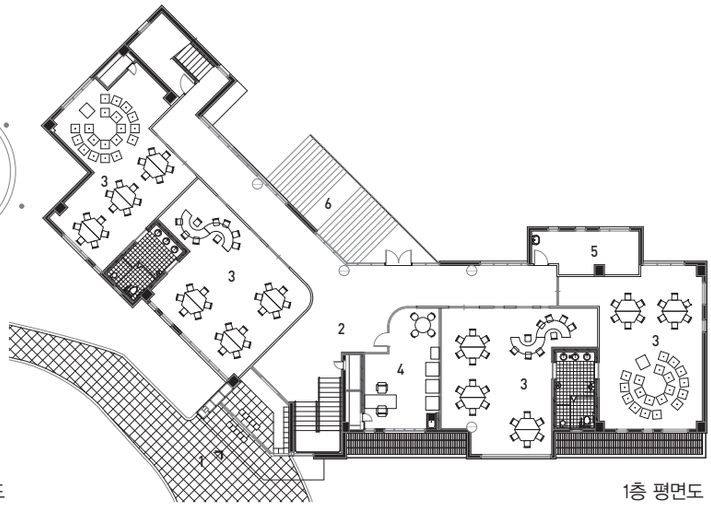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홀
02_ 창고
03_ 영어체험교실
04_ 전기실
05_ 기계실
06_ 교사연구실
07_ 식당 · 요리교실
08_ 주방
09_ 어린이놀이터



지하 1층 평면도

01_ 주출입구
02_ 홀
03_ 교실
04_ 원무실
05_ 보건실
06_ 옥외집회장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남측 전경

북동측 전경

조감

“블럭으로 쌓은 아이들의 상상공간”

이야기가 있는 풍경

버클리 유치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상상공간이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엄마를 떠나 놀이공간으로 놀러가는 꿈을 꾼다.
커다란 장난감과 같은 건물이 아침햇살에 반짝이며 아이들에게 손짓한다.
“어서와, 오늘도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놀자” 아이들은 마법에 걸린 듯 현관으로 빨려들어 간다. 현관은 이야기의 제목이며 계단은 발단에 해당된다.
계단은 점진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공간너머로 호기심을 던진다.
현관에서 복도로 전환되며 외부공간으로 확장되어 이야기를 전달한다.
끝없는 이야기는 계절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연속되고 변화하여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치를 지니게 된다. 버클리 유치원은 매일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들의 놀이터이며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생명체이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장난감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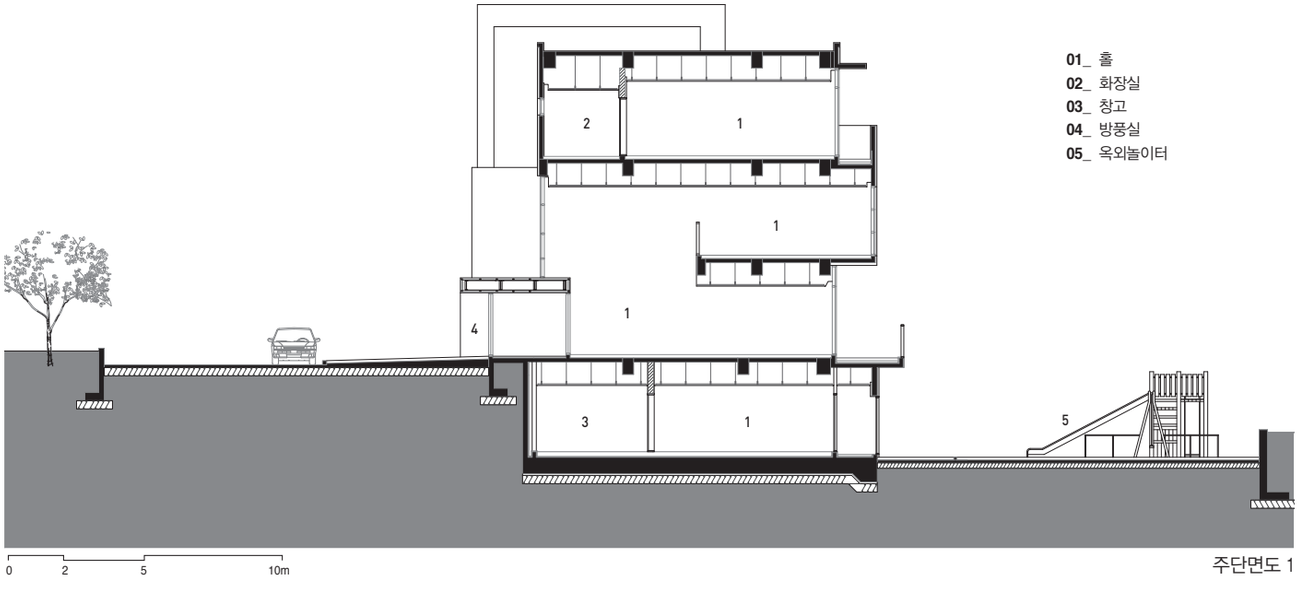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와 상상력을 갖고 유치원을 놀이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장난감과 같은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환경을 만들며 그 환경은 인간을 만들어 간다.

특히 유년기의 기억과 매일 접하게 되는 주변 환경은 사람들의 내부 풍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렸을 때 자주 접한 이미지는 인간의 감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생활환경이다.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생활한 아이들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공간에서 생활한 아이들의 미래는 서로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햇살과 웃음이 가득한 마당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또 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사람들은 도시로 모이고, 도시의 인간은 건물에 감금당한 채 콘크리트 숲 사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빌딩사이로 일몰을 보게 되었다. 그만큼 삶의 모체인 자연을 꿈꾸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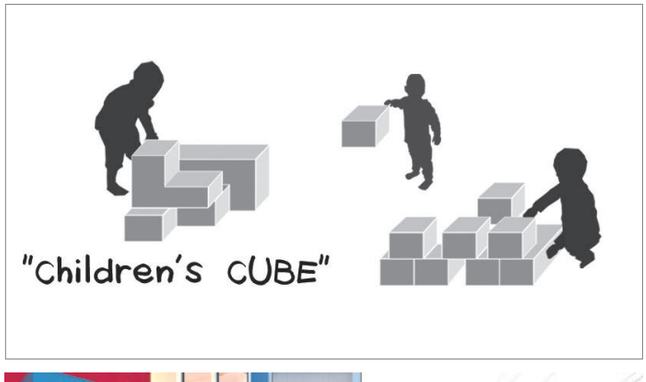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며, 햇살 가득한 아이들만의 자연을 만들고 주변경관과 자연의 풍경을 대지로 끌어들여 햇살마당을 만들어 주자!
친구들과 함께 자연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체험중심의 공간을 계획한다. 외부공간은 놀이 및 교육공간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마당을 건축적 산책로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적 사건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외부공간은 직접 어린이들이 식물을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텃밭과 다양한 나무와 초화류를 보고 만지면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자연학습장을 계획하였으며 각종 이벤트와 교육이 가능한 옥외집회장을 계획하였다.



주단면도 1

남측 전경 1

남측 전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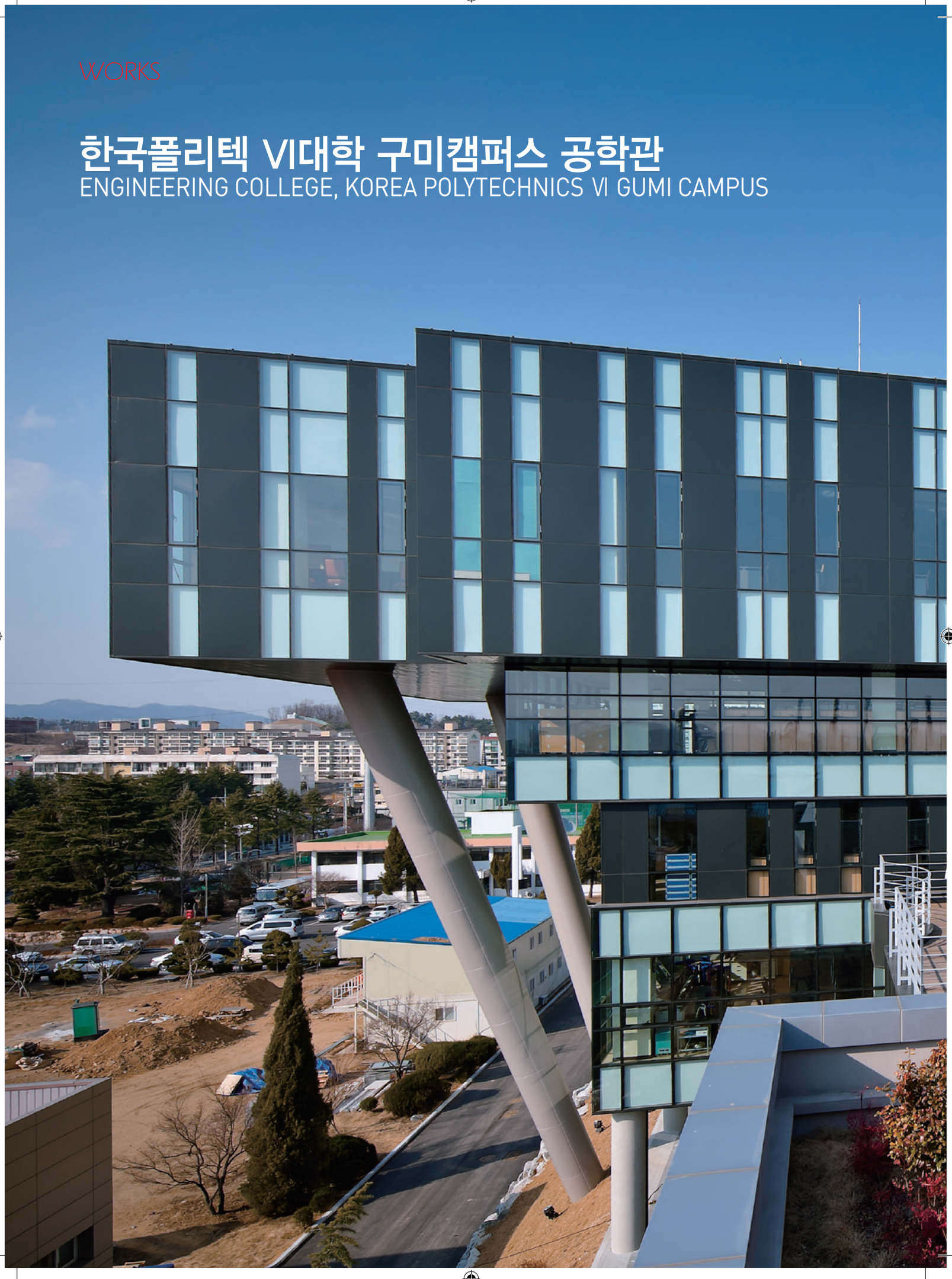


주출입구

1층홀

WORKS

한국폴리텍 VI대학 구미캠퍼스 공학관
ENGINEERING COLLEGE, KOREA POLYTECHNICS VI GUMI CAMPUS



한국폴리텍 VI대학 구미캠퍼스 공학관

건축주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설계자 | 김명홍_KIRA |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신용성, 손성호, 신호섭, 최성환, 이고은, 이호석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T-SEC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 더 한양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성아엠이씨
  - 토목분야 : (주)지오테크이앤씨
  - 조경분야 : 이음조경

감리자 | 도원엔지니어링

시공사 | (주)자연건설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49,397㎡

건축면적(Building Area) | 1,667.48㎡

연면적(Gross Floor Area) | 4,082.02㎡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5.08%

용적률(Floor Area Ratio) | 42.85%

규모(Building Scope) | 5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알미늄패널, 로이복층유리,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내부마감_화강석, 비닐타일, 흡음텍스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07 ~ 2009. 10

공사기간 | 2009. 11 ~ 2011. 02

사진(Photographer) | Kim, Woon-yang (Baum Architects, Inc.)

Client | KOREA POLYTECNICS

Architect | Kim, Myung-hong

Project Team | Shin, Young-sung / Son, Sung-ho / Shin, Ho-soub
Choi, Sung-hwan / Lee, Ko-eun / Lee, Ho-seok

General Constractor | Jayeon Construction co.,Ltd

Location | 114, Gongdan-dong, Gumi-si, Gyeongsangbuk-do

Structure | R.C

Finishing Materials | Aluminum panel, Low-E Glass, Bacepanel / Granite,
Vinyl flooring, Absorption t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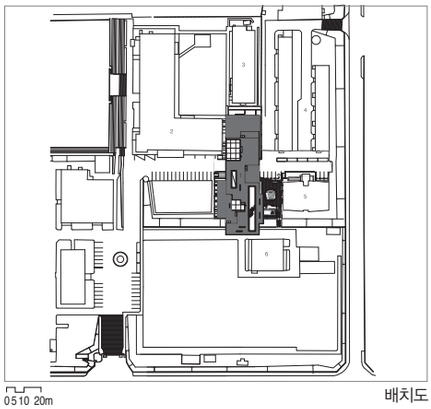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T-SEC

HVAC Engineer | Sungah Mechnical Engineering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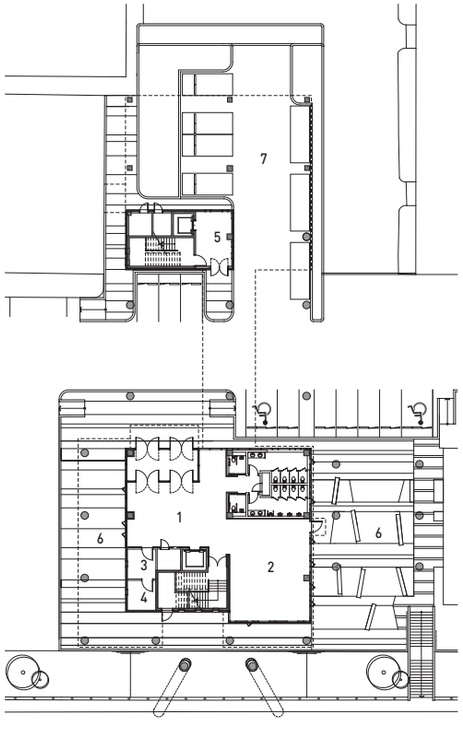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Hanyang Electrical Engineering co., Ltd.

Design period | 2009. 07 ~ 2009. 10

Construction period | 2009. 11 ~ 201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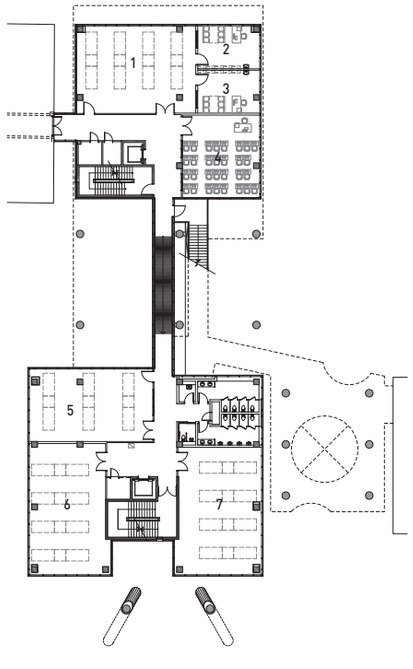
배치도



0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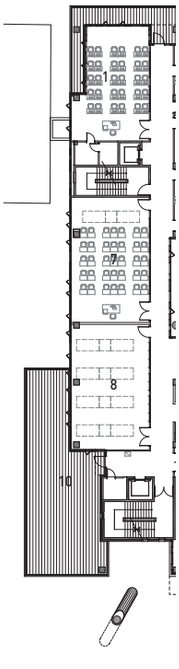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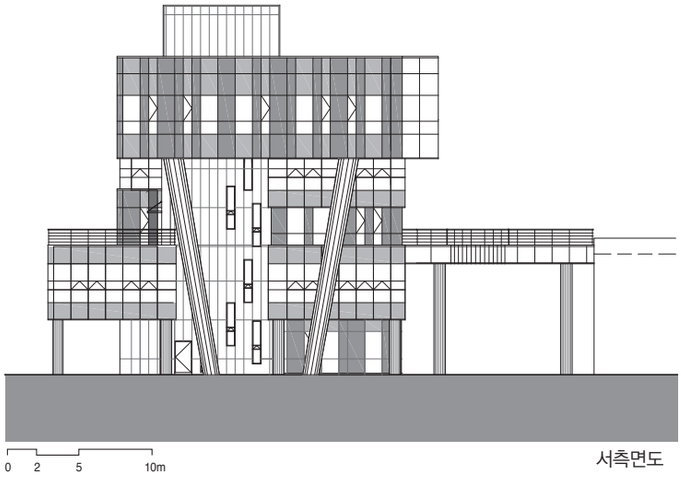
01_ 로비
02_ Show Room
03_ 방재실
04_ MDF실
05_ 엘리베이터홀
06_ 휴게공간
07_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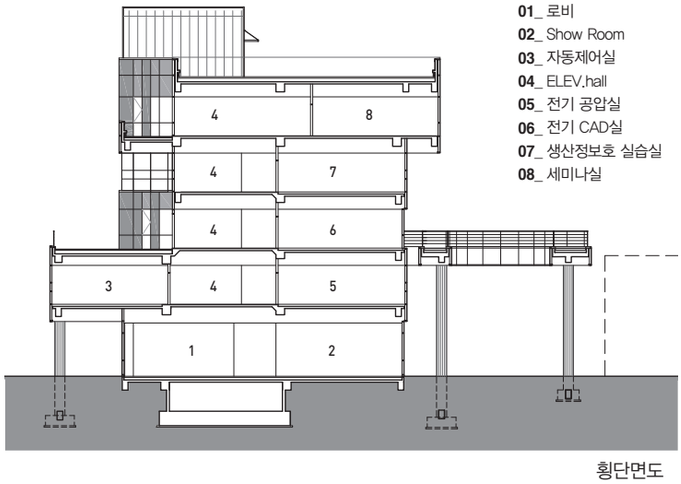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전기기초실
02_ 교수실-1
03_ 교수실-2
04_ 강의실
05_ 전력전자실
06_ 자동제어실
07_ 전기공압실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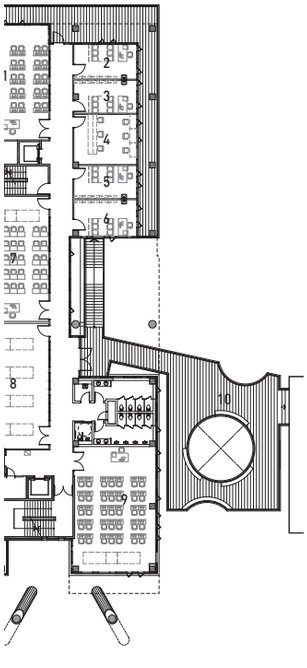
01_ 로비
02_ Show Room
03_ 자동제어실
04_ ELEV.hall
05_ 전기 공압실
06_ 전기 CAD실
07_ 생산정보호 실습실
08_ 세미나실

횡단면도

한국 폴리텍 Ⅵ대학 구미캠퍼스 공학관은 오래된 대학본관과 남서쪽에 신축된 신기술연구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계획 대지는 좁고 긴 형태로 캠퍼스를 구성하는 건물들과 도로, 녹지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그 곳을 캠퍼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학문과 기술을 교류하는 커뮤니티 장소로 계획하였다.
대지의 형태에 따라 공학관은 동서방향으로 길고 남북방향으로 좁은 형태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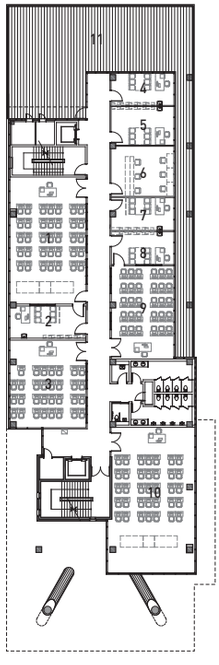
동서방향으로 긴 형태를 이용하여 건물의 양쪽 끝에서 대학본관과 신기술 연구센터로 이어지는 연결동선을 만들어 세 건물이 군체(群體)로 연결되게 하였고, 모든 내부공간은 남북방향으로 정연하게 외기에 면한다. 그리고 각종 기능을 컴퓨터, 전자, 전기 등 각 분야에 따라 투명한 매스와 불투명한 매스에 분류하여 담았다. 이에 따라 분야 내에서는 각 기능이 서로 밀접해지고, 분야 간에는 그 성격과 영역이 분명해 질 수 있었다. 이렇게 투명한 매스와 불투명한 매스를 엇갈려 쌓음으로써 캠퍼스와 공학관 그리고 내부와 밀접한 외부공간을 제공하였다.
외부공간은 캠퍼스의 환경과 향을 고려하여 공학관의 주어진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했다. 즉, 형태와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문으로, 서측 녹지를 덮는 지붕으로, 녹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넓게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대학본부의 위계를 침해하지 않는 작은 통로로, 신기술 연구센터와 공유하는 데크로, 또는 학습 및 연구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등으로 기능을 하며 캠퍼스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학교가 학자와 학생이 만나 학문과 기술을 논하고 교류하며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담아야 하는 장소임을 잊지 않았다. 한국 폴리텍 Ⅵ 대학 구미캠퍼스 공학관은 지금 그 곳에서 얼굴이 아닌, 심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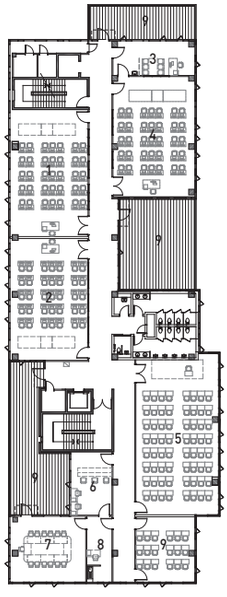
01_ 강의실
02_ 교수실-1
03_ 교수실-2
04_ 학과사무실
05_ 교수실-3
06_ 교수실-4
07_ 특성화실
08_ 계측제어실
09_ 전기CAD실
10_ 데크

3층 평면도



01_ 프로그램 실습실
02_ 교수실-1
03_ 강의실
04_ 교수실-2
05_ 교수실-3
06_ 학과사무실
07_ 교수실-4
08_ 교수실-5
09_ 특성화실
10_ 생산정보화 실습실
11_ 데크

4층 평면도



01_ 마이크로프로세스 실습실
02_ 네트워크제어 실습실
03_ 교수실-1
04_ 엠베디드 실습실
05_ 세미나실
06_ 학과회의실
07_ 준비실
08_ 강의실
09_ 데크

5층 평면도

WORKS

가운 7033 ‘성심재’
GAWOON 7033 'SUNGSIMJAE'

공원에서 바라본 동측 전경

가운 7033 '성심재'

건축주 | 개인

설계자 | 신춘규_KIRA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설계팀 : 김유홍, 이창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이공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다우 Tec
  - 기계분야 : 대유 Mec
  - 인테리어 : 인터하우징(대표 박성우)

감리자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다남건설(대표이사 김걸)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703-3

대지면적(Site Area) | 235.5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04.25㎡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8.7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4.26%

용적률(Floor Area Ratio) | 86.02%

규모(Building Scope) | B1 - 3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지붕_T0.5 Zinc 거멀접기 / 외벽 : 외단열시스템(THK60)
창호 : 3중단열유리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0. 8 ~ 2011. 3

공사기간 | 2011. 8 ~ 2012. 2

Client | Private

Architect | Shin, Chun-Gyu

Project Team | Kim, You-Hong / Lee, Chang-Soo

General Constractor | Danam Construction Inc

Location | Gawoon-dong, Namyangju-si, Gyeonggi-do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Yikong Stur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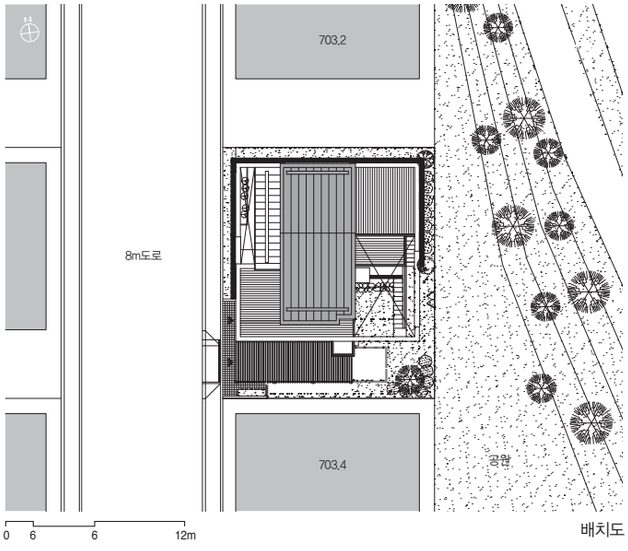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Dawoo TEC

Mechanical Engineer |Daeyou MEC

Interior | Interhousing Inc

Design period | 2010. 8 ~ 2011. 3

Construction period | 2011. 8 ~ 2012. 2



배치도

줄곧 아파트에만 살아온 건축주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여 부지를 찾아다닌 지 일 년여만에 남양주시 가운동 택지개발지구에 마음에 드는 대지를 발견했다며 연락이 왔다. 건축주와 함께 처음 대지를 방문하자마자 그동안 건축주가 찾던 대지로서는 거의 완벽했다고 느껴졌고 곧바로 땅을 매입하고 계획을 시작했다. 고속도로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하고 동측으로 탁 트여있는 전망과 그 앞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는 공원은 건축주가 그동안 갈망해온 주택으로서의 조건들을 제공해주었다.
다만 처음 단독주택지로 개발된 단지였으나 부동산 시장에 맞추어 엇비슷한 임대용 다가구주택들로 변질되어 온 현재의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은 아쉬웠다.

After more than one year to look for the site, the client who used to live in apartment finally found a site for her new house in a newly developed housing community near Gawoondong, Namyangju City. The site is located nearby expressway which is providing a good accessibility and has a open view toward eastside with creek park and community park next to it. Only a negative concern rouse to my mind because the community suppose to be a single residence compound from the beginning but now is changing into rental-purpose multi family housing compound.

Thus, main design theme is to start with a box which can be a tool to protect privacy and at the same time to open wherever needed to allow open views toward parks and natural light. A box provides me opportunities to set new relationship between a box and each rooms and allow open and close. The skip floor system has been adopted to provide keen relationship between rooms. The shift idea based on room sizes of different levels also allow to design diverse exterior terrace spaces. The main finish materials of imported exterior insulated wall system has been selected for the client who looks for different materials from her own office building of exposed concrete with wood-siding finishes.

주진입도로에서 본 서측전경

배치

배치는 앞뒤로 포진한 임대용 다가구로부터 어떻게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개천이 있는 공원으로의 전망을 극대화할 것인가에서 시작되었다. 법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2대의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고 나면 70평이 겨우 넘는 대지는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였다. 우선 하나의 박스를 놓음으로써 계획을 시작했다. 이 박스는 필요한 부분을 닫거나 열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도로나 남북 측의 다가구로부터는 닫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동측의 공원 측으로는 열어주어 전망과 채광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평면 · 단면

작은 공간에 평면을 가장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법은 스킵 플로어(skip floor)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지하공간을 깊이 파지 않도록 해주고 각 실에서 실로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또한 각 실을 단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아래층 실의 지붕을 위층의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때로는 박스를 열어 전망과 채광이 허용되도록 함과 동시에 박스와 박스 안의 실 사이에 외부로는 닫히되 상부로는 개방된 공간을 두어 창을 외부로 직접 두지 못하는 방에 환기와 채광이 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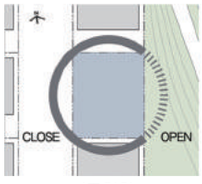
입면

외부 마감은 애초에 노출콘크리트 박스에 벽돌이나 적삼목으로 된 프로그램들이 담겨지는 것을 생각했으나, 2008년에 지은 사무실이 노출 콘크리트와 적삼목의 마감이어서 거주를 위한 집은 다른 느낌의 마감이 되었으면 하는 건축주를 위해 수입산 외단열 시스템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백색의 집이 되었다.

건축주는 새로운 고민에 빠져있다. 매일 집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인접한 공원 측에서 개방된 박스를 통해 쉴 새 없이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테라스까지 진입하려는 용기를 보인다고 한다. 행복한 고민인지 아니면 독특한 집을 가진 주인이 감수해야하는 불행인지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원하는 집을 가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며 찜찜해하는 모습에서 건축사인 나 역시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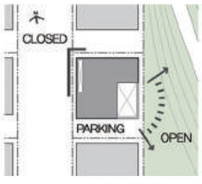
건물동측 전경

• 배치계획



기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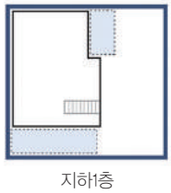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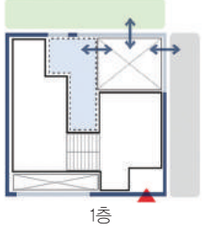
OPEN & CLOSED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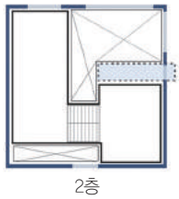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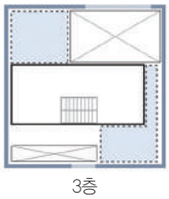
지하1층



1층



2층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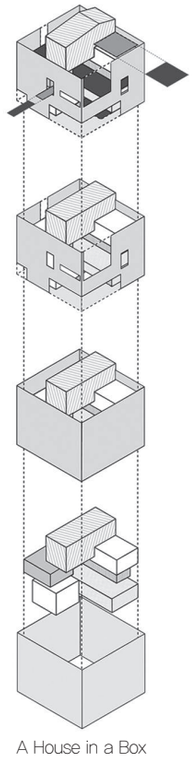
• 입면계획

노출콘크리트

징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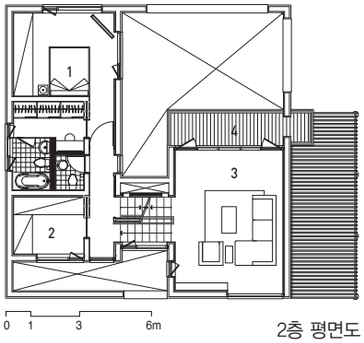
적삼목(목재사이딩)

•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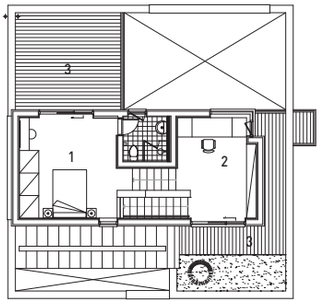
A House in a Box

선큰상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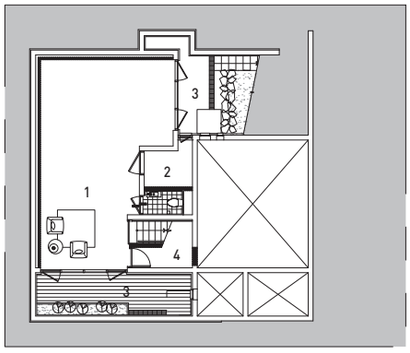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부부침실
02_ 방
03_ 거실
04_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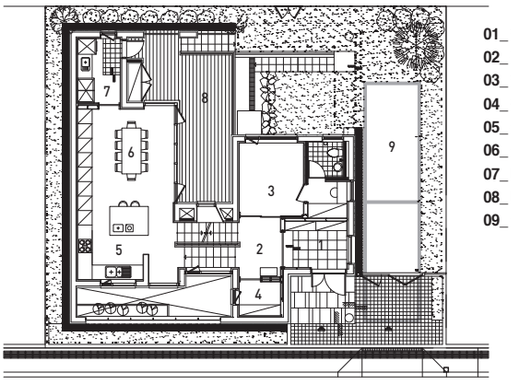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방
02_ 공부방
03_ 테라스



지하 1층 평면도

01_ 스튜디오
02_ 보일러실
03_ 선큰테라스
04_ 창고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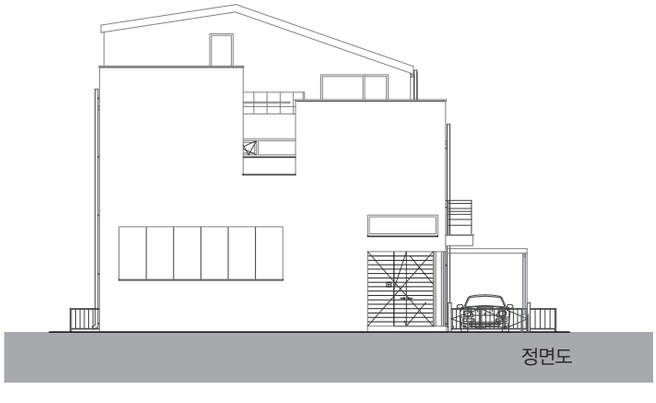
01_ 현관
02_ 홀
03_ 한실
04_ 창고
05_ 주방
06_ 식당
07_ 다용도실
08_ 테라스
09_ 주차장

3층 침실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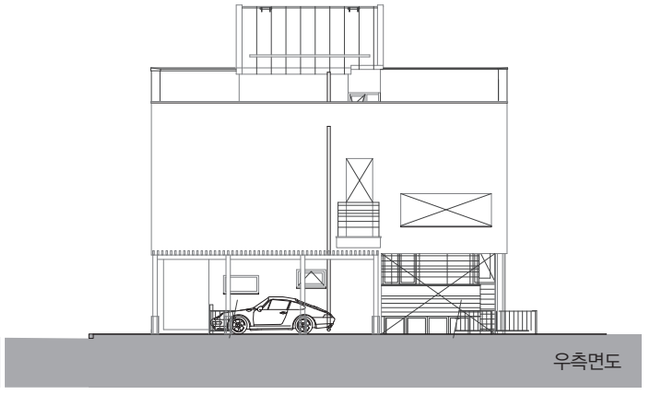
3층 침실에서 본 전경

1층 식당 내부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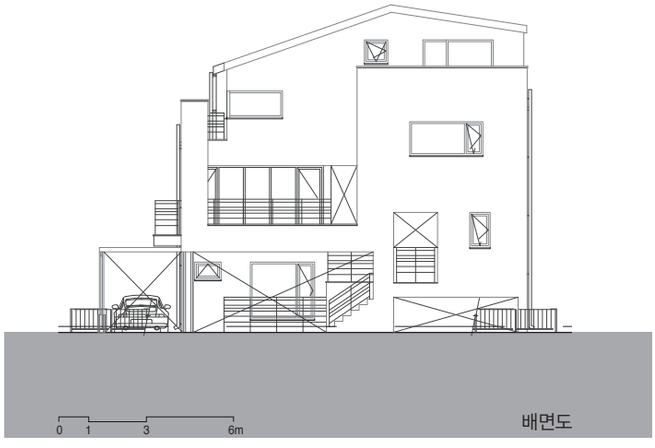
1층 식당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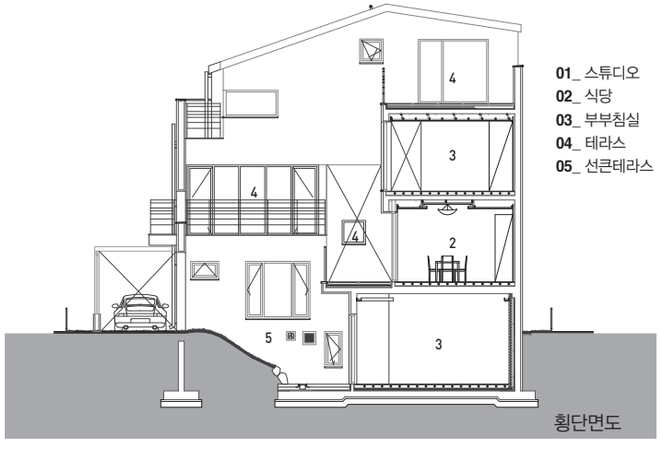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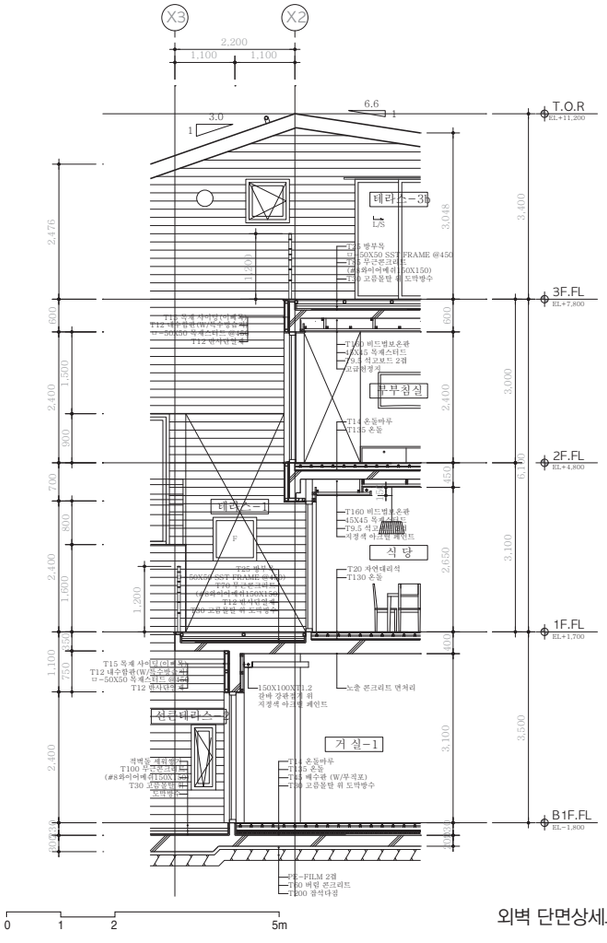
횡단면도

01_ 스튜디오
02_ 식당
03_ 부부침실
04_ 테라스
05_ 선큰테라스

2층 거실에서 바라본 모습

1층 마당에서 연계된 지하선큰 1

지하 1층 선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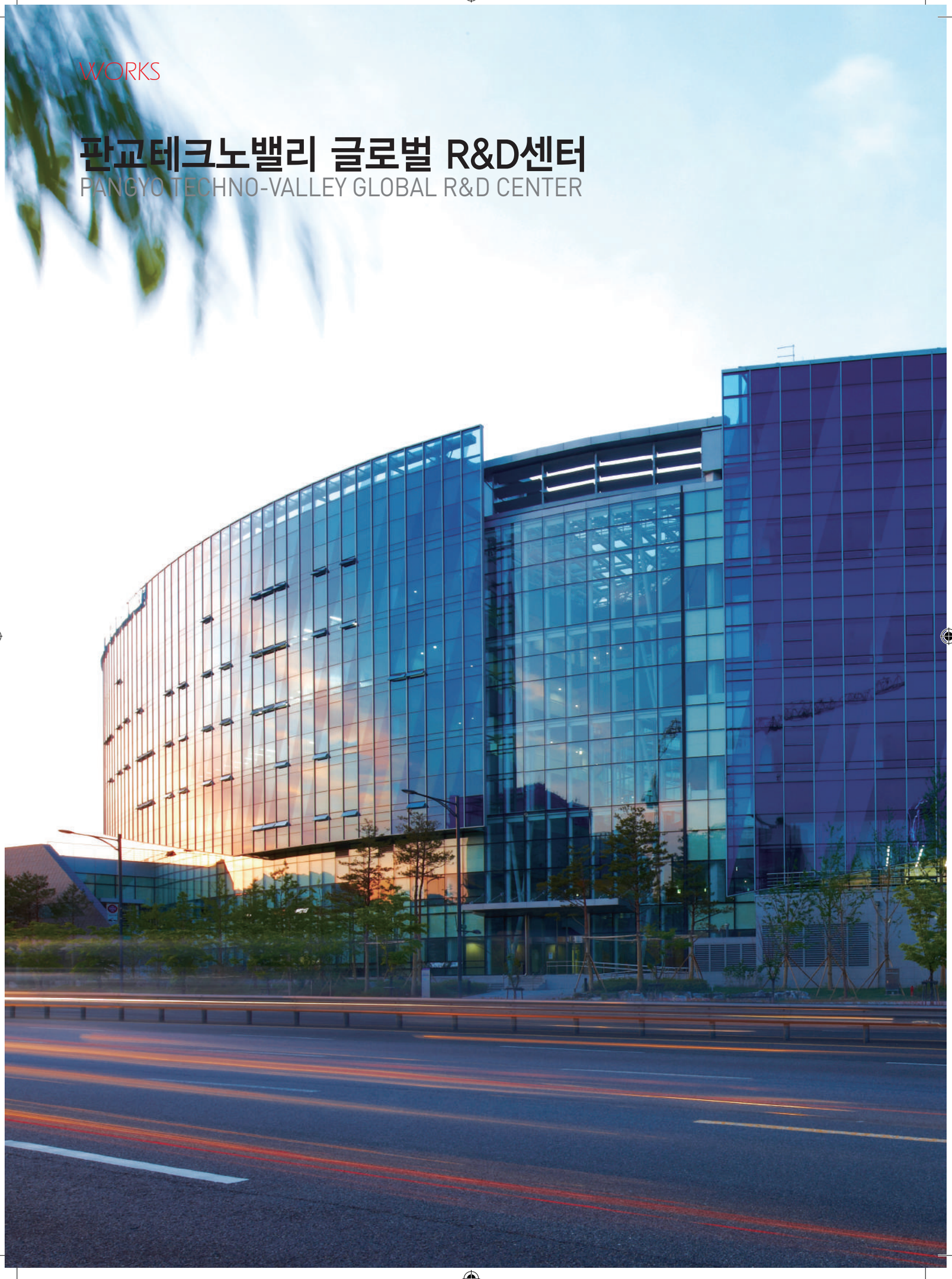
외벽 단면상세도

2층 복도에서 본 테라스

WORKS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PANGYO TECHNO-VALLEY GLOBAL R&D CENTER



Global Inspiration
글로벌R&D센터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

건축주 | 경기도시공사

설계자 | 김희훈, 이상인, 송주원_KIRA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설계팀 : 송주원, 정승용, 곽해종, 한민자, 전명훈, 강민석, 윤혜리
  이중현 (건원건축), 김기정, 김영권, 강성규 (다인건축)
  권대성, 강창욱 (행림건축), 김명배, 최대성 (선일건축), drds(미국)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창민우구조컨설턴트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일신이앤드씨 / (주)건일엠이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우원엠앤이
  - 토목분야 : (주)새길엔지니어링

감리자 | 경기도시공사

시공사 | 삼성물산(주)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6-1, 696-2번지

대지면적(Site Area) | 12,577.70㎡

건축면적(Building Area) | 7,232.8㎡

연면적(Gross Floor Area) | 46,487.7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57.5049%

용적률(Floor Area Ratio) | 233.5779%

규모(Building Scope) | B2 - 7F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THK24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복합패널
내부마감_드라이월, 수성페인트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09. 09 ~ 2010. 05

공사기간 | 2010. 04 ~ 2012. 04

사진(Photographer) | Lee, Jong-hyeon (AILE STUDIO)

Client |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Architect | Kim, Hoe-hoon / Lee, Sang-in

General Constractor | Sansung C&T Corporation

Location | 696-1, 2, Sampyeong-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Design period | 2009. 09 ~ 201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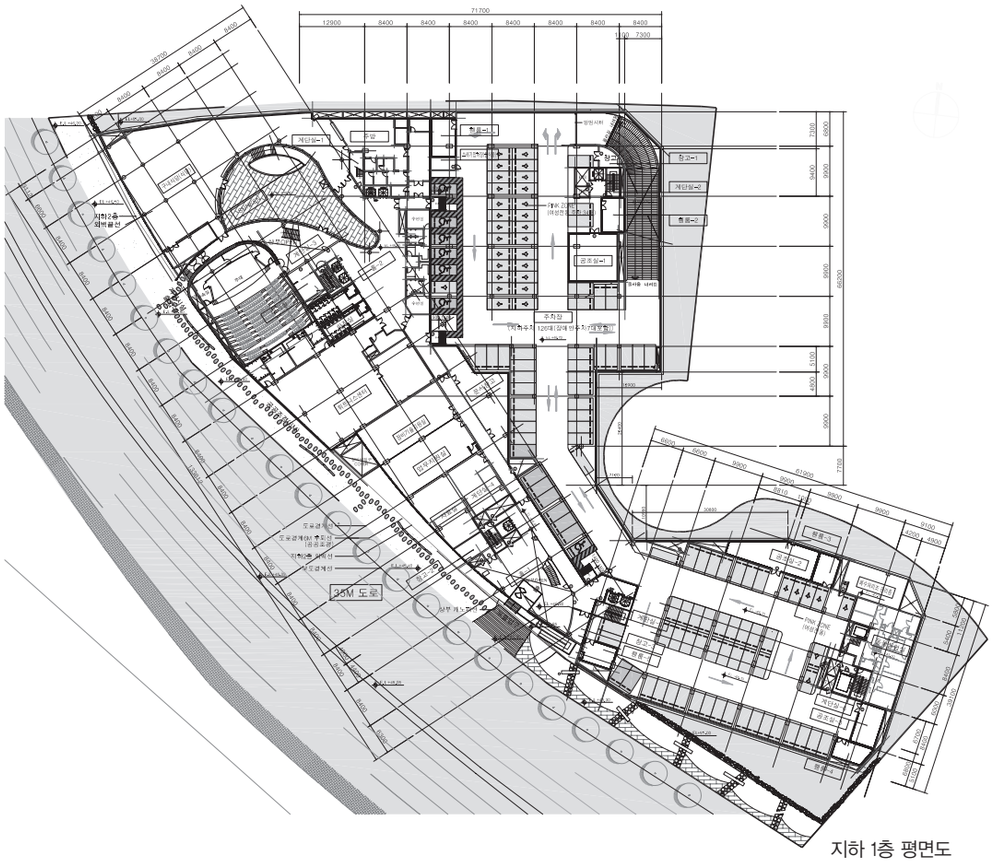
Construction period | 2010. 04 ~ 2012. 04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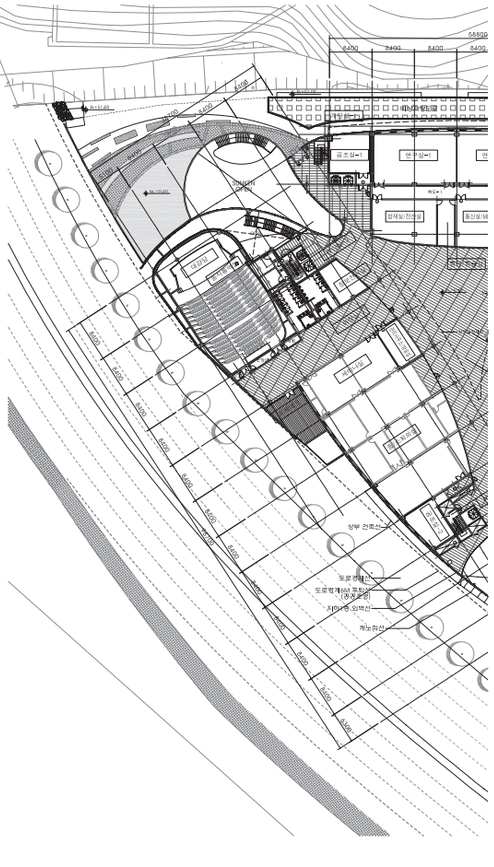
글로벌 R&D센터가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는 기술과 상품 생산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판교신도시가 자급자족 도시로 기능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조성되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설들은 입지조건과 국내외 기업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 글로벌 R&D센터는 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첨단산업 연구개발의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로, 올해 3월 최종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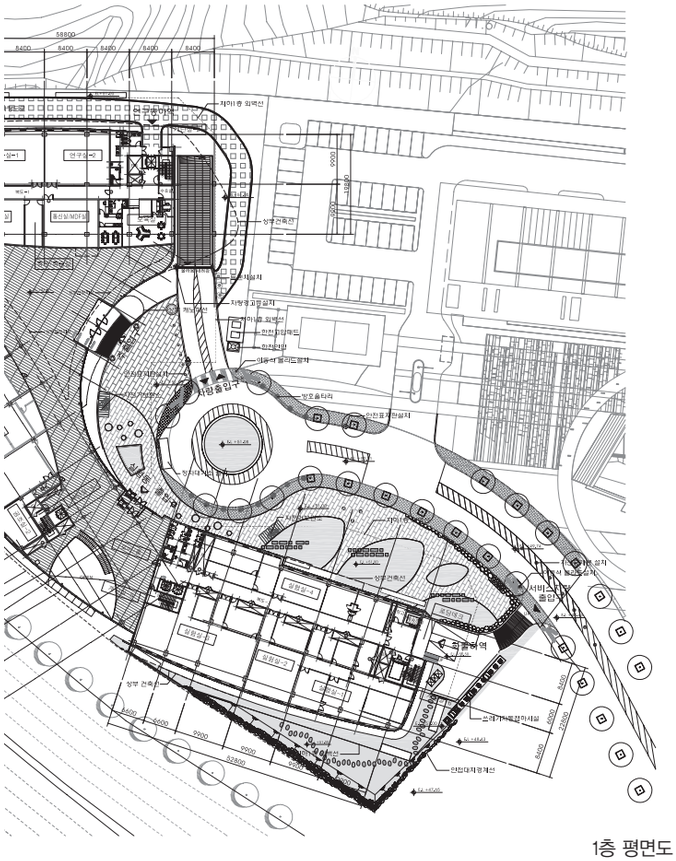
우리는 사람, 자연, 지식이 융합하는 글로벌 R&D센터이자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무한한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연구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산업 선도의 상징적 측면, 기업간 소통과 융합을 이끄는 업무시설의 기능적 측면,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된 고려가 요구되었다.

우리는 Infinity Forum 이라는 역동적인 유선형 매스를 통해 세 개의 건물을 통합함으로써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형상화하였다.
첨단 IT, BT, GT기술이 융합하는 미래 산업의 거점 공간이 되도록 중앙의 광장과 내외부 시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아트리움을 계획해 교류와 소통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 연구와 일상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창조적 연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휴게 데크를 비롯한 다양한 휴식 공간을 모든 층에 계획해 연구자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공간, 설비 등이 최적화된 연구실험 시설을 통해 업무 효율 증대시켰으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R&D센터 조성을 위해 진입광장의 자연 요소가 내부로 확장되는 자연 친화적 아트리움을 계획하고, 실제적이고 다양한 친환경 요소를 적용하고, 옥상정원, 포켓 데트, 선큰 등의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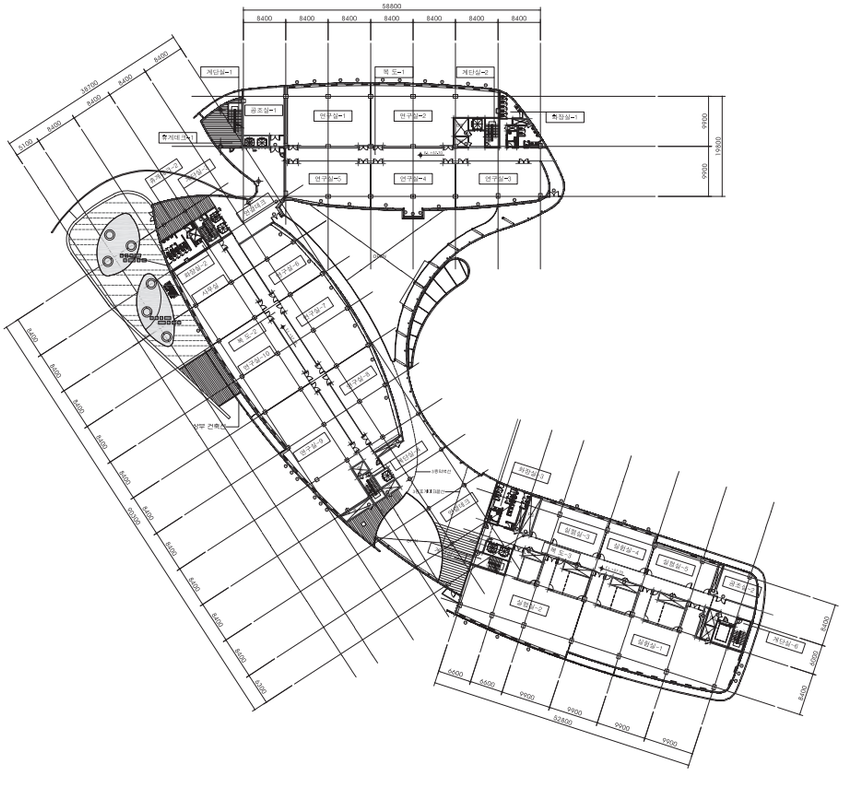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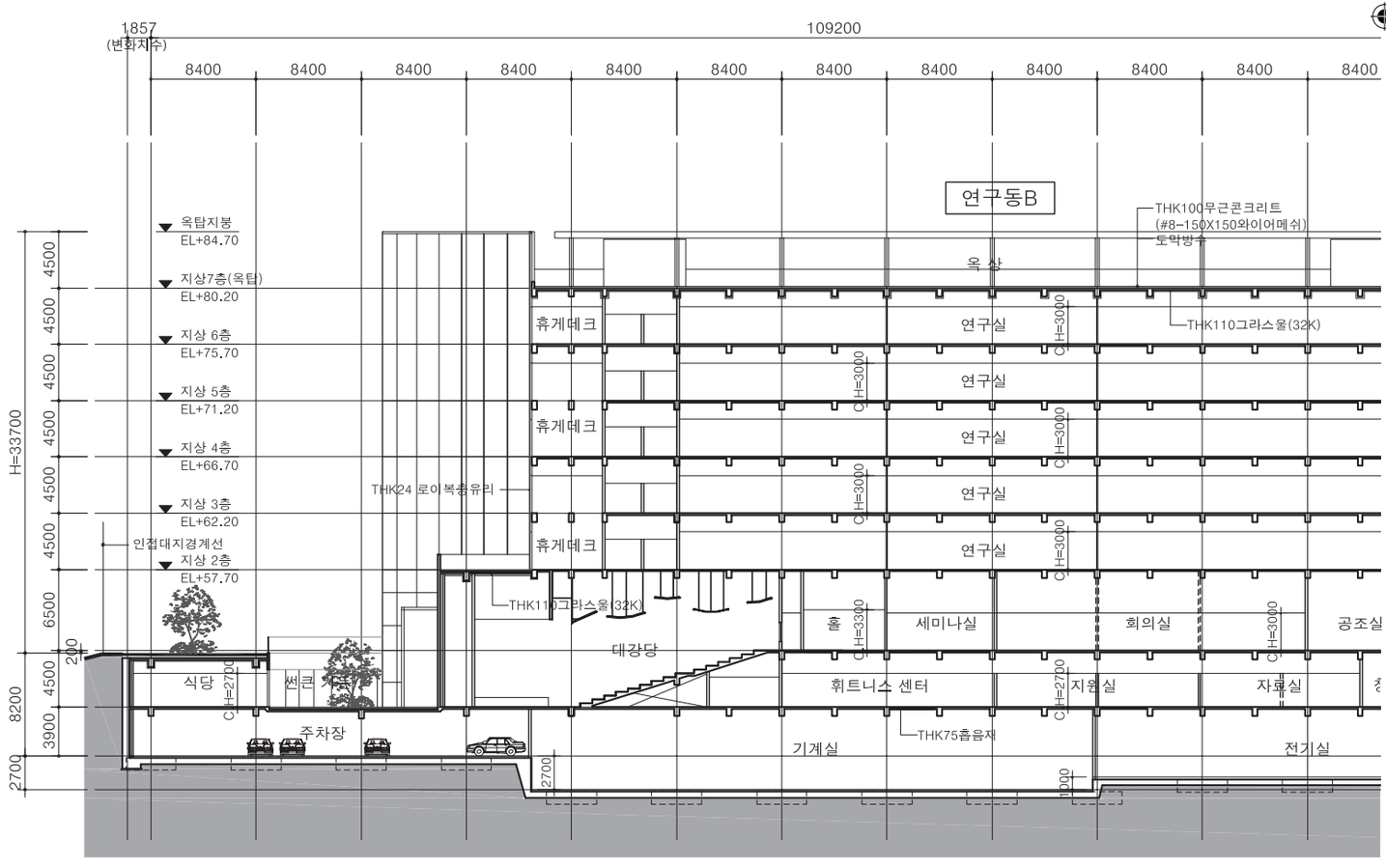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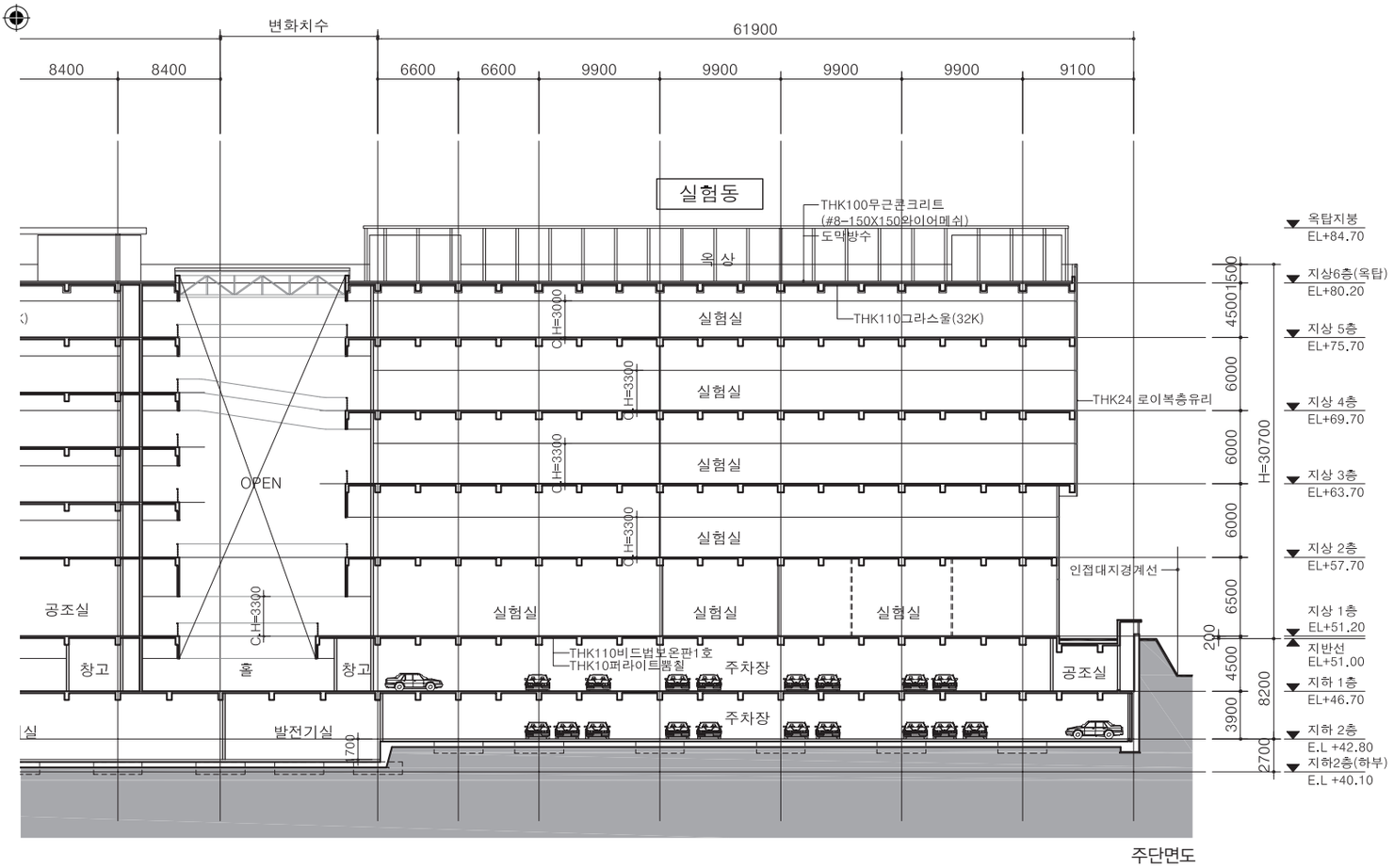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857
(변화치수)
109200
8400
연구동B
옥탑지붕
EL+84.70
지상7층(옥탑)
EL+80.20
지상 6층
EL+75.70
지상 5층
EL+71.20
지상 4층
EL+66.70
지상 3층
EL+62.20
인접대지경계선
지상 2층
EL+57.70
H=33700
4500
6500
200
8200
3900
2700
THK100무근콘크리트
(#8-150X150와이어메쉬)
옥상
THK110그라스울(32K)
휴게데크
연구실
CH=3000
THK24 로이복층유리
홀
CH=3300
세미나실
회의실
공조실
대강당
식당
CH=2700
썬큰
휘트니스 센터
지원실
자료실
주차장
THK75흡음재
기계실
전기실
1000



변화치수
61900
8400
8400
6600
6600
9900
9900
9900
9900
9100
실험동
THK100무근콘크리트
(#8-150X150와이어메쉬)
도막방수
옥 상
실험실
THK110그라스울(32K)
C.H=3000
C.H=3300
THK24 로이복층유리
OPEN
공조실
창고
홀
창고
발전기실
THK110비드법보온판1호
THK10퍼라이트뿜칠
주차장
주차장
공조실
인접대지경계선
1500
4500
6000
6000
6000
6500
200
4500
3900
H=30700
8200
2700
옥탑지붕
EL+84.70
지상6층(옥탑)
EL+80.20
지상 5층
EL+75.70
지상 4층
EL+69.70
지상 3층
EL+63.70
지상 2층
EL+57.70
지상 1층
EL+51.20
지반선
EL+51.00
지하 1층
EL+46.70
지하 2층
E.L +42.80
지하2층(하부)
E.L +40.10

주단면도

수나헌(粹娜軒)
SU NA HEON

건축주 | 개인

설계자 | 박준영_KIRA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 설계팀 : 방현기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파워구조
  - 전기 · 통신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대왕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주)대왕엔지니어링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주가인

시공사 | 세윤건설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주요용도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483.93㎡

건축면적(Building Area) | 145.06㎡

연면적(Gross Floor Area) | 369.74㎡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29.97%

용적률(Floor Area Ratio) | 54.43%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노출콘크리트 및 알루미늄 징크패널
내부마감_석고보드위 비닐페인트, 고급벽지

설계기간(기획/계획/실시) | 2011. 03 ~ 2012. 05

공사기간 | 2011. 05 ~ 2012. 05

Client | Private

Architect | Park, Jun-young

Project team | Bang, Hyun-gi

General Constractor | Seyun constrution

Location | Cheongun-dong, Jongno-gu, Seoul, Korea

Finishing Materials | Finish Exposed concrete & zinc pannel
U.P & High class wall paper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Power structure

HVAC Engineer | Daewang engineering Co.Ltd.

Electrical Engineer | Daewang engineering.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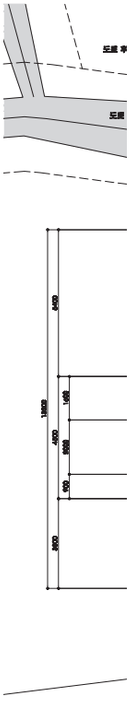
Design period | 2011. 03 ~ 2012.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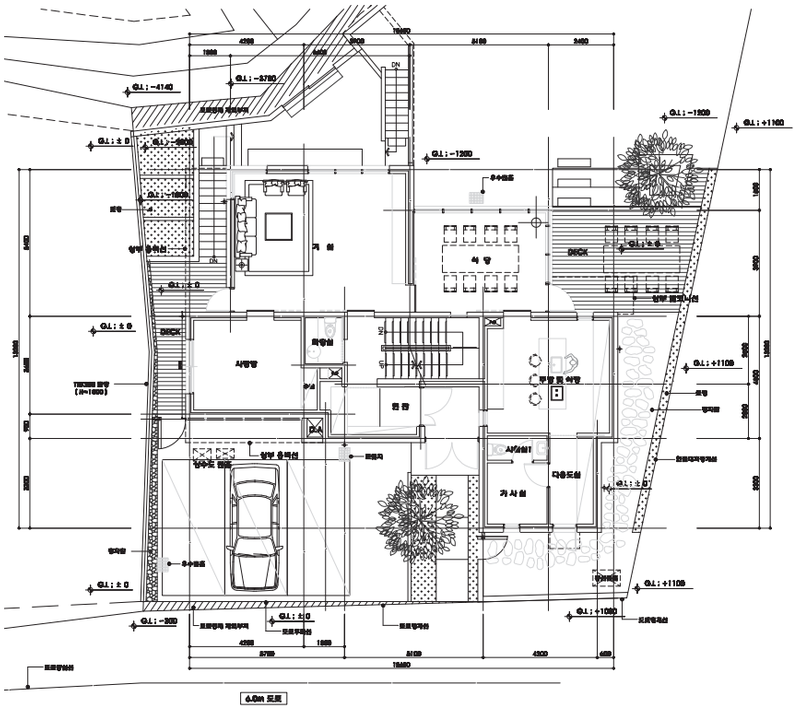
Construction period | 2011. 05 ~ 2012. 05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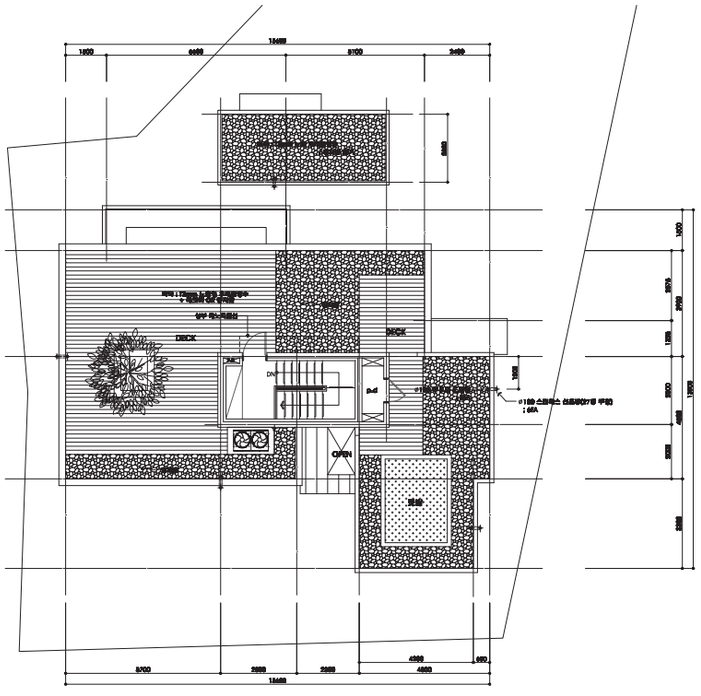
해우소는 우리네 사찰에서 뒷간을 이르는 말로 '근심이 사라지는 곳'이니 선조들의 해학과 철학에 감탄의 미소를 짓게 한다.
종교적 관점이 아니어도 그 실존적 의미에 고개가 고덕여지며 근심, 걱정의 생멸이 삶의 생리임을 이해한다 해도 그것의 생성과 소멸됨을 생리현상과 동일시한 깊은 통찰은 현상적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키고 있다.

수나헌은 스스로 생멸하는 근심, 걱정을 주제로 시작한 평범한 주거건축으로 개인작업실을 겸하고 있으며 안으로 향한 내부공간과 밖으로 향한 외부공간이 공존한다.
정작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의 해우소는 어딜까 하는 의문은 건축학에서 다룰 의제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일상을 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는 화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스스로 건축을 보려 하는 이 시대 건축사들이 비껴갈 화두는 더더욱 아닌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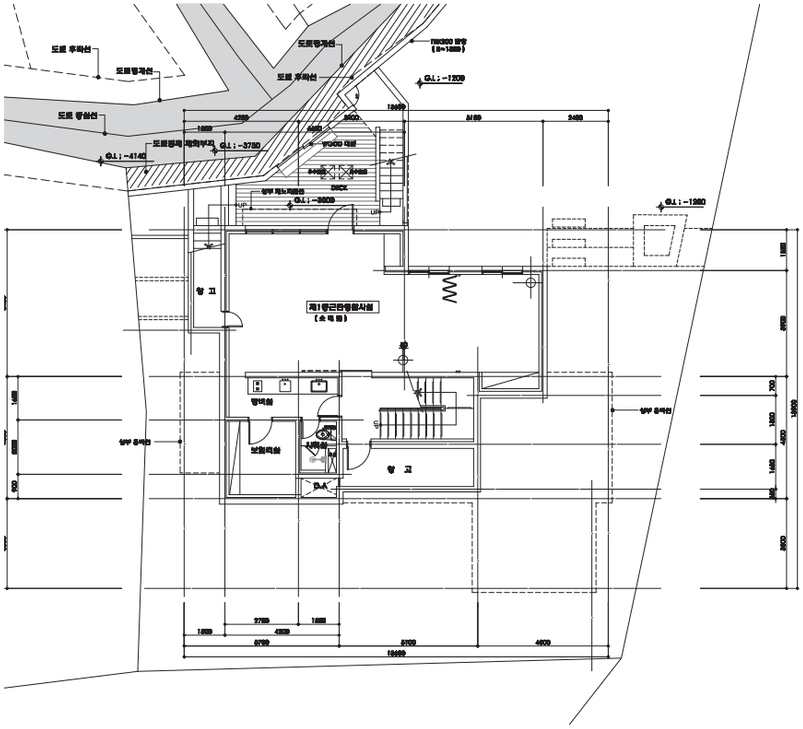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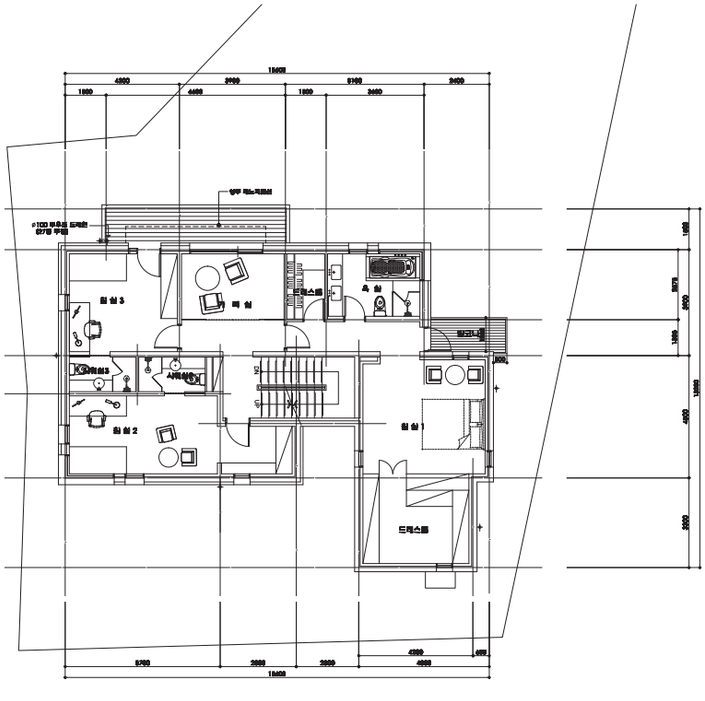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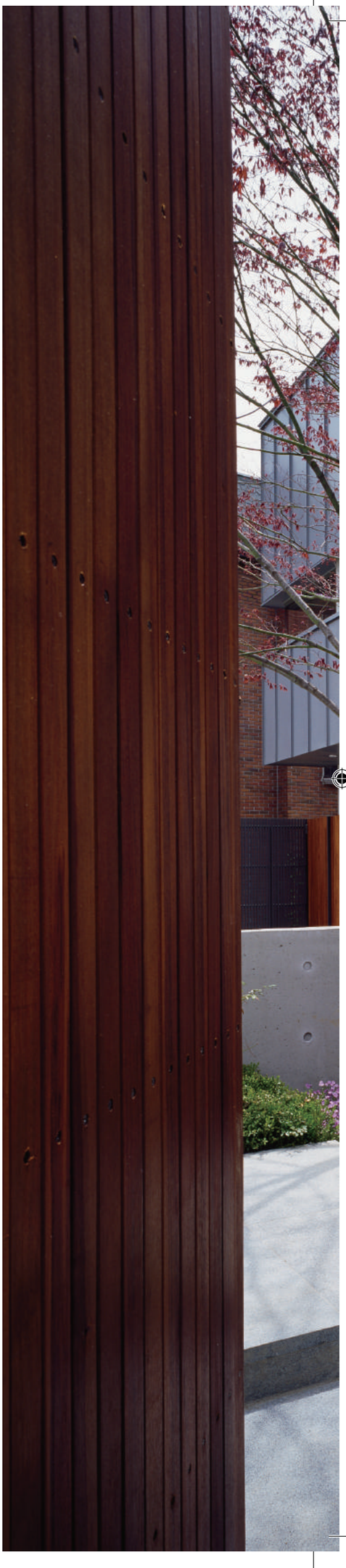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경안동 주민센터 _당선작

GYEANGAN-DONG COMMUNITY CENTER

발주자 : 광주시

설계자 : 임종대, KIRA | (주)성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 이충기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윤수, 김두현, 주병선, 김은아, 김미한, 김봉수, 김종민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태경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하예성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나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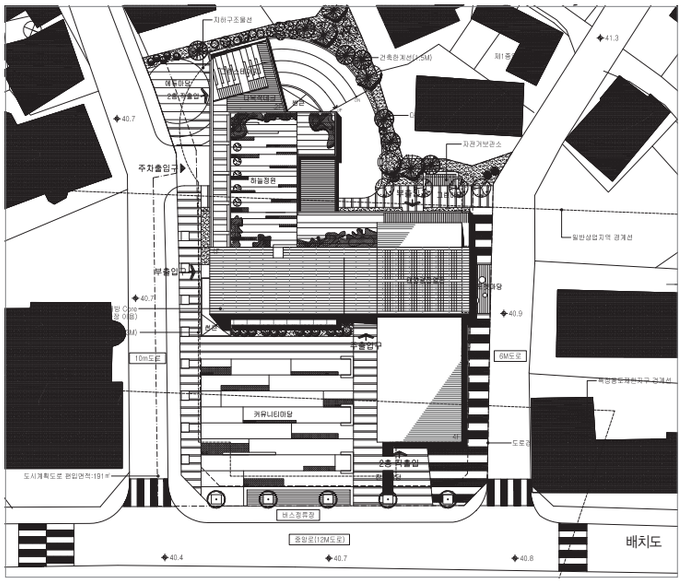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3-2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3,079.00㎡
건축면적	1,203.81㎡
연 면 적	9,204.70㎡
건 폐 율	39.10%
용 적 률	100.06%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3층,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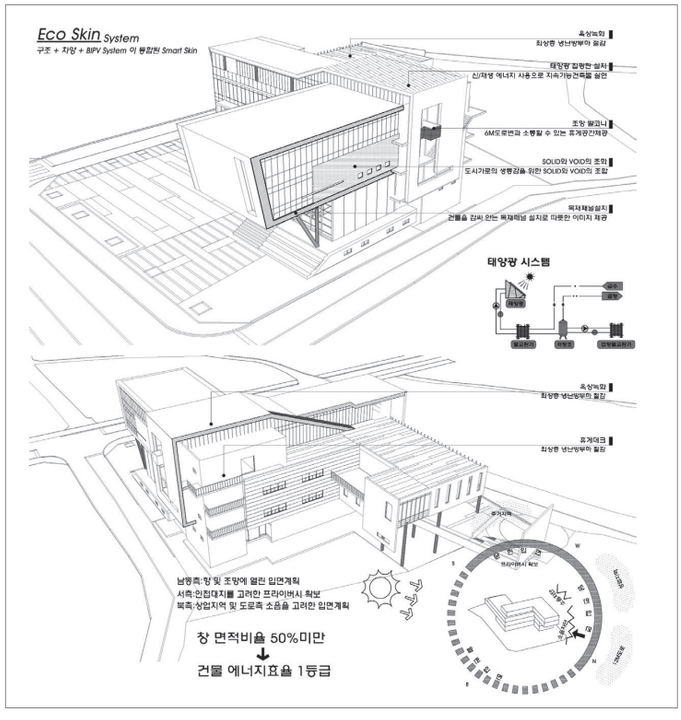
계획개념_경안천과 현충탑을 잇는 축선상에서 대지의 축을 형성하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연계하는 복합 커뮤니티 장소가 되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매스 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보행가로에 활력을 부여하는 건축물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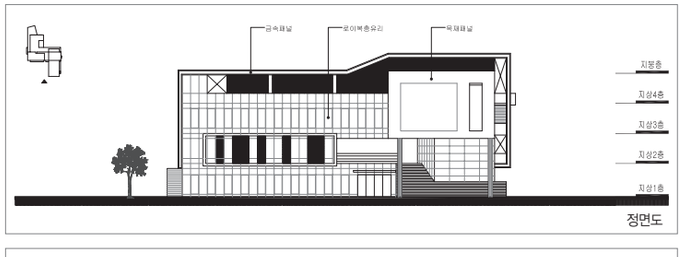
평면개념
-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진출입 계획
- 프로그램의 기능과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용시간을 고려한 프로그램 조닝을 통한 동선 분리
-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공간 계획
- 층별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휴식과 외부와의 상호 소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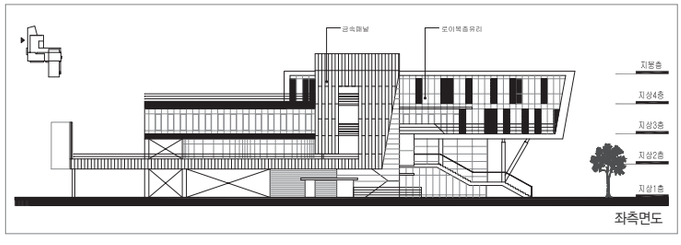
입면개념
- 남동측을 향해 열린 시야 및 조망 계획
- 서측 주거지역을 고려한 프라이버시 확보
- 도시적 스케일의 수직적 상징성 및 도시가로변 입구성 강조하는 입면계획
- STEP계단을 통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커뮤니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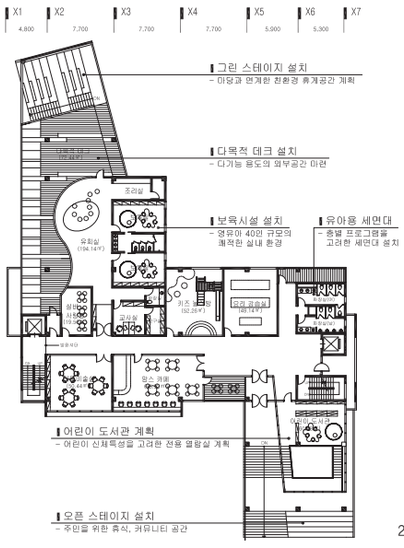
단면개념
- 주변 컨텍스트의 흐름을 반영한 층수계획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단면계획
- 수직 증축계획을 고려한 단면 층수계획으로 장래 확장성 대비
- 선큰계획을 통해 지하층의 자연환기 및 채광 확보
- 이용시간별, 사용자별 대민행정 서비스 및 주민자치 서비스공간의 명확한 영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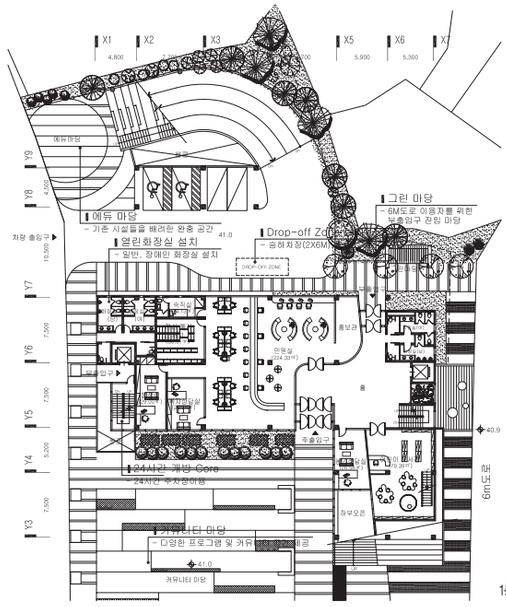

주차출입구
커뮤니티마당
6M도로
10m도로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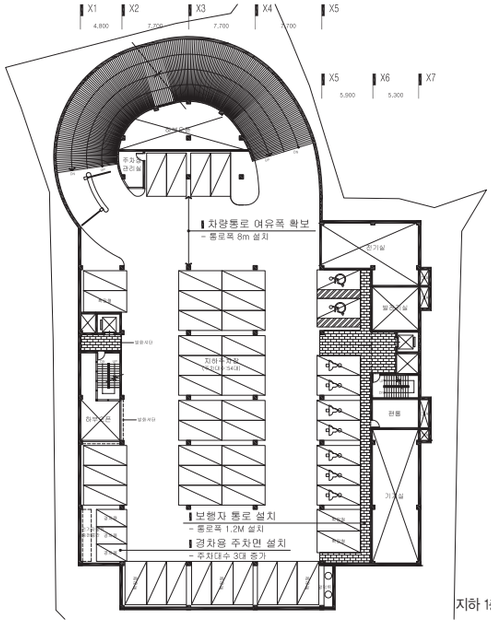

Eco Skin System
구조 + 차양 + BIPV System 이 융합된 Smart Skin
태양광 집광판 설치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지속가능건축물 실현
조망 발코니
6M도로변과 소통할 수 있는 휴게공간제공
SOLID와 VOID의 조화
도시가로의 성향감을 위한 SOLID와 VOID의 조합
목재채널설치
건물을 감싸 안는 목재채널 설치로 따뜻한 이미지 제공
태양광 시스템
남향측:창 및 조망에 열린 입면계획
서측:인접대지를 고려한 프라이버시 확보
북측:상업지역 및 도로측 소음을 고려한 입면계획
창 면적비율 50%미만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정면도


좌측면도


그린 스테이지 설치
- 마당과 연계한 친환경 휴게공간 계획
다목적 데크 설치
- 다기능 용도의 외부공간 마련
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 40인 규모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아용 세면대
- 충별 프로그램을 고려한 세면대 설치
어린이 도서관 계획
- 어린이 신체특성을 고려한 전용 열람실 계획
오픈 스테이지 설치
- 주민을 위한 휴식, 커뮤니티 공간
2층 평면도


그린 마당
- 6M도로 이용자를 위한 보행인구 진입 마당
에듀 마당
- 기존 시설들을 배려한 완충 공간
열린화장실 설치
- 휠체어, 장애인 화장실 설치
Drop-off Zone
- 승하차장(2X6M)
24시간 개방 Core
24시간 주차장이용
커뮤니티 마당
- 다양한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
1층 평면도


차량통로 여유폭 확보
- 통로폭 8m 설치
보행자 통로 설치
- 통로폭 1.2M 설치
경차용 주차면 설치
- 주차대수 3대 증가
지하 1층 평면도

경안동 주민센터 _우수작

GYEANGAN-DONG COMMUNITY CENTER

발주자 : 광주시

설계자 : 윤덕찬, KIRA | (주)윤 건축사사무소
김재정, KIRA | (주)건축사사무소 다보건축
설계 : 김현덕, 박정원, 안선영, 조현주, 김민주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크로스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협인전기
– 기계설비분야 : 나우설비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3-2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3,079.00㎡
건축면적	1,121.79㎡
연 면 적	9,420.76㎡
건 폐 율	36.43%
용 적 률	109.66%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3층,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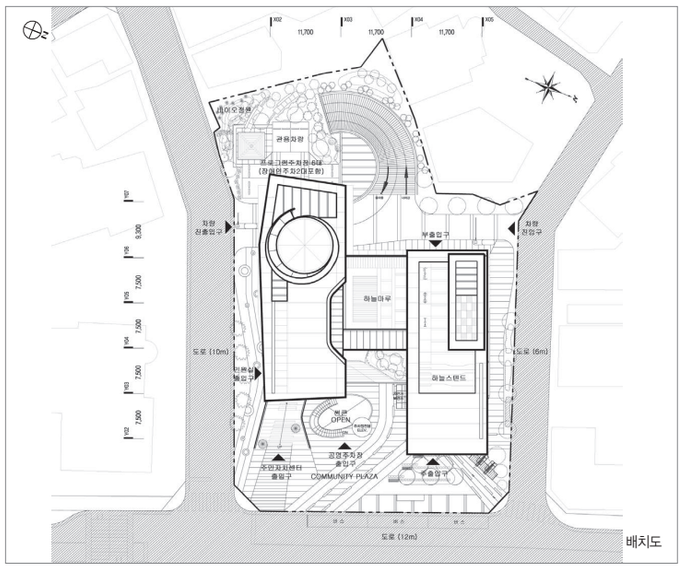
Community 'Heart'
경안동 주민센터 부지는 경기도 광주시 구시가지의 중심으로 차량과 사람이 항시 붐비는 지역이다.
넓은 길과 사람이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마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대응하는 상호 교류의 장과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도심 속 오아시스'를 제안하였다.

배치계획
전면광장 및 좌, 우측 도로의 Setback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복잡한 도시의 흐름을 유입 또는 분산시키므로서 새롭고 여유로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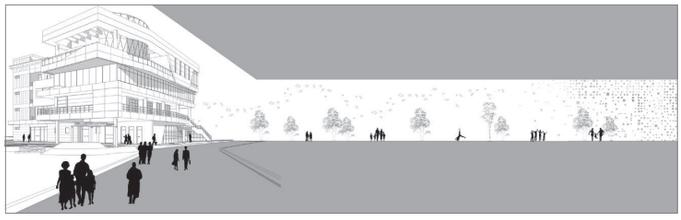
평면계획
필로티 하부에 친환경 디자인의 외부 계단을 계획하여 주민의 휴식과 유기적인 동선체계가 가능토록 하였고, 지하 공영주차장은 24시간 독립적 사용과 관리가 가능한 수직코어 및 썬큰 계획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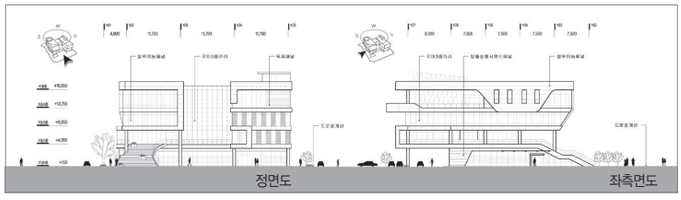
입면계획
전면부 패널은 기존 도시 구조의 Void & Solid를 형상화하였고, 측면부는 성곽과 왕실도자기 등 전통 이미지를 부여하여 주변도시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성을 우선시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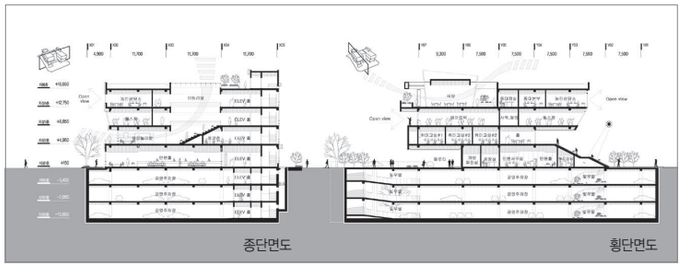
단면계획
중앙 아트리움의 계단을 중심으로 동선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용도별 명확한 수직 조닝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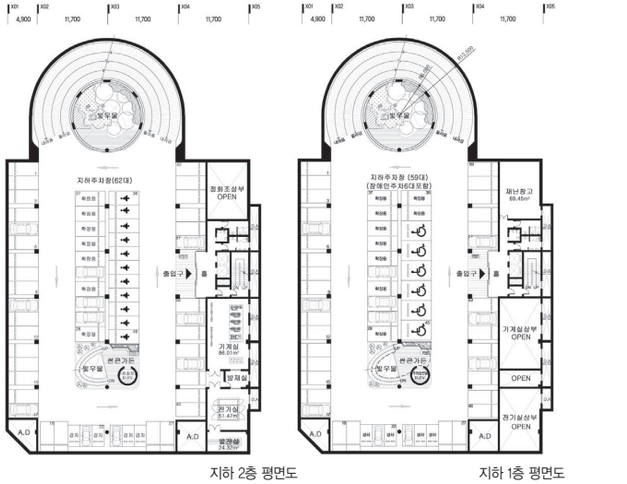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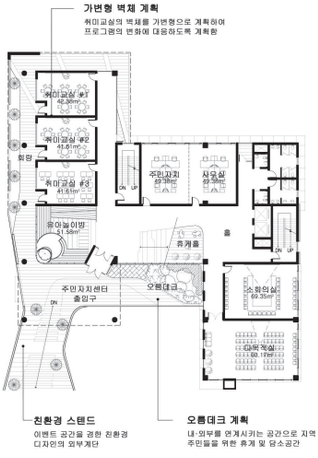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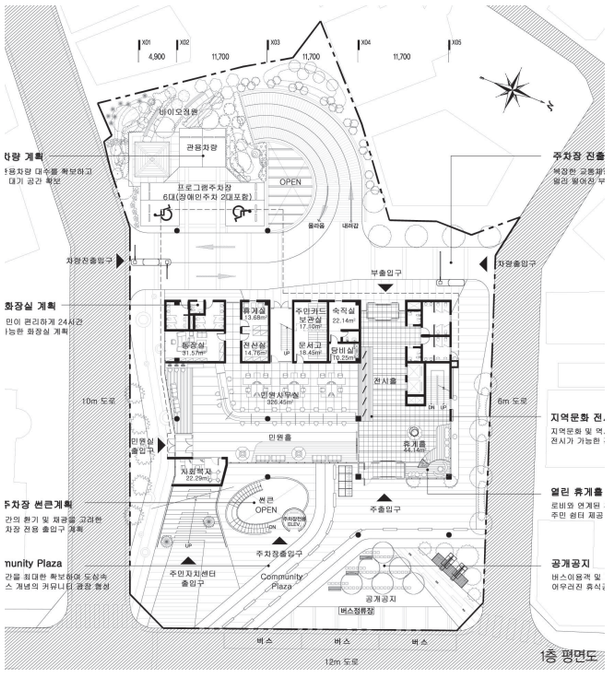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경안동 주민센터 _가작

GYEANGAN-DONG COMMUNITY CENTER

발주자 : 광주시

설계자 : 정해상, KIRA | ㈜디자인그룹금성 건축사사무소
설계 : 전영식, 이정훈, 박병훈, 조남석, 김형래, 조수양
함문주, 장혁수 | C.G : 김윤수, 오재진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서울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한일전기
- 기계설비분야 : 성아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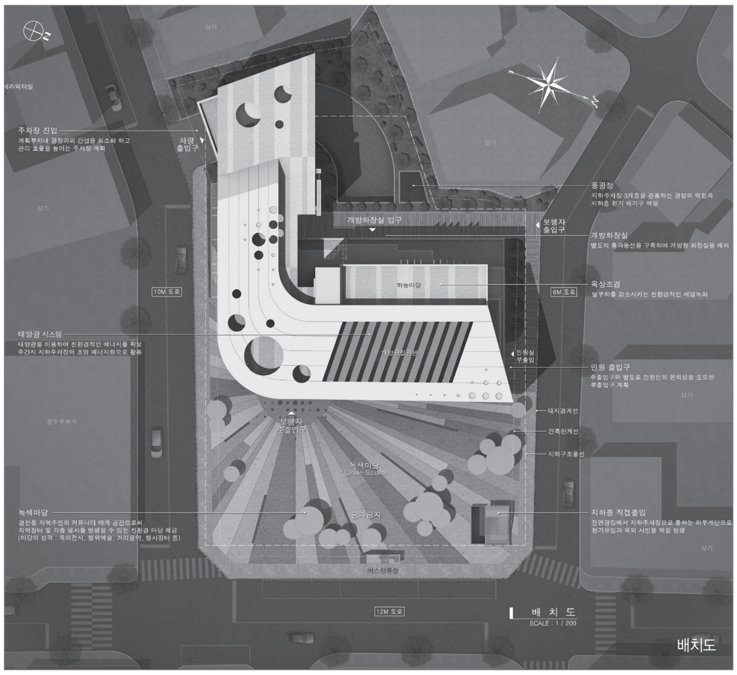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53-2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3,079.00㎡
건축면적	1,125.22㎡
연 면 적	9,279.37㎡
건 폐 율	36.55%
용 적 률	95.65%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3층, 4층

열린마당 열린마을 – 마당을 열고 마음을 연다.
주민센터는 도로에서 물러나 열린 녹색마당을 제공한다. 비워진 마당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풍경을 담아낸다. 이곳에서 100년 마을 경안동의 역사를 이어간다.
주민센터는 광주시의 행정, 상업,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구도심 중앙에 위치하며, 특히 전면도로인 중앙로변은 교통 혼잡도가 매우 심한 곳이다. 신축 프로그램은 지하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주민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백의 외부공간에 대한 최적의 해결안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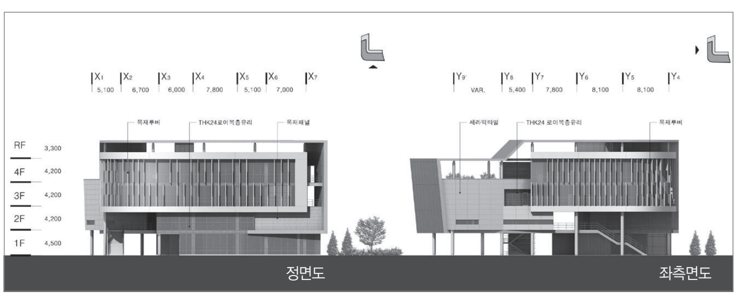
배치 계획_전면을 최대한 비워내기 위해 L형 매스로 배치하고, 열린 커뮤니티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녹색마당을 제안하였다. 중앙로의 도시축과 평행한 파사드는 주민센터의 고유기능을, 동대본부 및 다목적실을 수용하는 내부원은 지원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0m 측면도로의 흐름과 연계하여 1, 2층의 진입축을 깊게 강조하고, 주출입구와 필로티가 한눈에 보이게 함으로서 명쾌한 진입동선을 의도하였다. 진입포인트인 코너부분의 상층부는 원형으로 처리하여 두 매스를 통합하고 2층의 전시데크를 외부공간화하여 개방형 공간체계로 계획하였다.

평면 계획_접지층은 민원실만을 배치하여 접근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높였고, 외부 직통계단을 통해 저층부의 수직적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홀을 중심으로 사무공간과 주민참여공간으로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자에 따른 영역성을 확보하고, 내부 실들은 가변형 벽체를 통해 능동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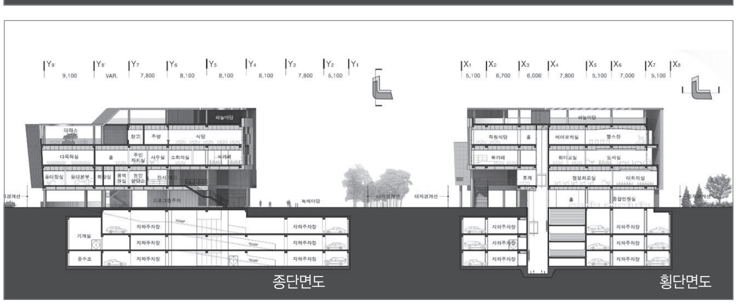
입면 계획_경안동의 역사적 흔적을 복원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지역적 특징을 모티브로 출발하여 변화감있는 수직루버를 통해 녹색마당과 녹색입면의 자연성을 적극 표현하였다. 구도심의 환경적 맥락과 위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선도하는 주민센터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채광조절이 가능한 부등간격의 루버 채택은 친환경과 아이덴티티가 만나는 합리적 접점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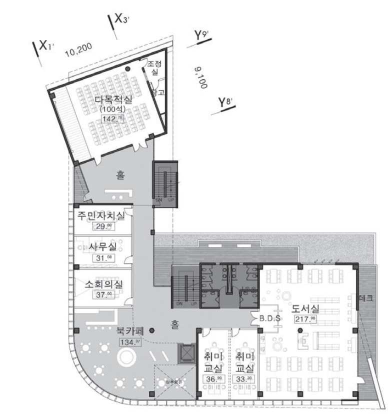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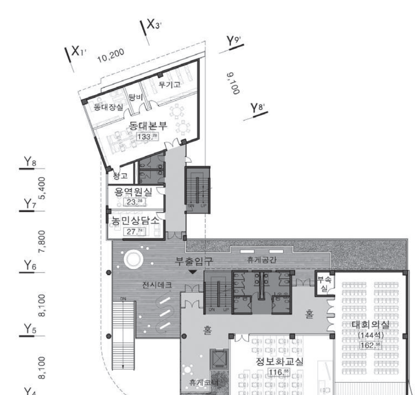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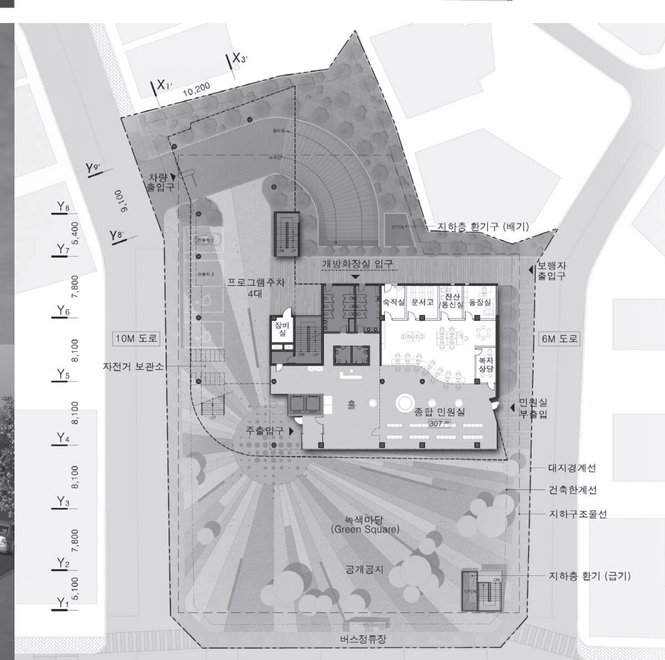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_당선작

GWANGGYO NEW TOWN CULTURAL FACILITIES

발주자 : 경기도시공사

설계자 : 이용호, KIRA | ㈜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성원, 윤재석, 윤택용, 양성원, 박찬원, 박준현
김정훈, 김용수, 한승진, 정승호, 최명환, 신동찬
조흥래, 고성배

전문기술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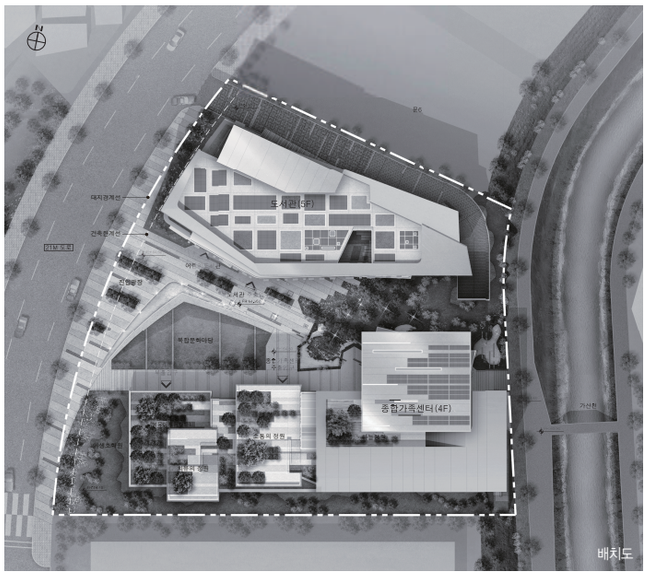
– 구조분야 : (주)형상엔지니어링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영광기술단
– 기계설비분야 : (주)디이테크설비컨설턴트
– 토목 : (주)시원 이엔씨

대지위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4부지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복지시설
주요용도	도서관 · 종합가족센터 · 어린이집
대지면적	5,437㎡ / 4,079㎡(어린이집)
건축면적	2,694.48㎡ / 807.97㎡(어린이집)
연 면 적	11,890.25㎡ / 2,870.30㎡(어린이집)
건 폐 율	49.56% / 19.81%(어린이집)
용 적 률	139.12% / 64.91%(어린이집)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도서관 : 지하 1층, 5층 / 종합가족센터 : 지하 1층, 4층 어린이집 : 지하 1층,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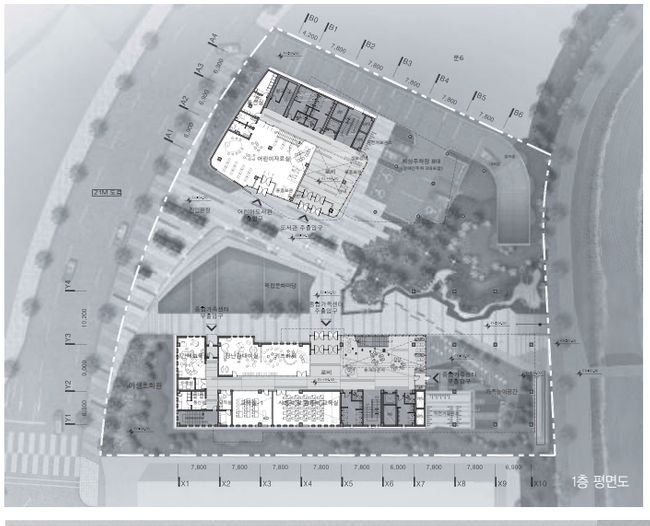
본 설계공모는 광교신도시의 문화적 기능인 문화복합센터가 이루는 문화적 네트워크와 대지가 가지는 고유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녹지공간과 면하는 대지 주변 컨텍스트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문화공간이라는 특성 자체가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공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도시와 자연의 접점에 위치한 위 대지에서 어떻게 자연과 사람, 공간이 공유되어지는가에 대한 공존성의 이해로 이 프로젝트를 풀어나가야 했다.

이에 우리는 세 가지의 나눔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나눔으로 배가 되는 문화공간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세 가지 나눔이란 첫째, 공간의 나눔으로 대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물 내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에서도 공간을 공유하며 공간의 쓰임, 감성을 나누는 것으로 건물의 앞과 뒤, 상부와 하부에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와 각 공간에서의 다양한 풍경들이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둘째는 체험의 나눔이다. 자연녹지 체험공간 등 다양한 컨텍스트들을 엮어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는 단지 기능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체험적 공간을 삽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는 자연의 나눔이다. 대지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요소들을 대지 안으로 끌어드려 나누게 되며 주변에 연계된 천변과 녹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키워드들을 건물과 함께 아우르는 친환경적인 건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눔 키워드에 의해 계획된 시설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주민과 공간 그리고 기능이 잘 어우러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연을 풍요롭게 공유하는 어린이집은 차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 근린공원 내에 생기가 넘쳐나는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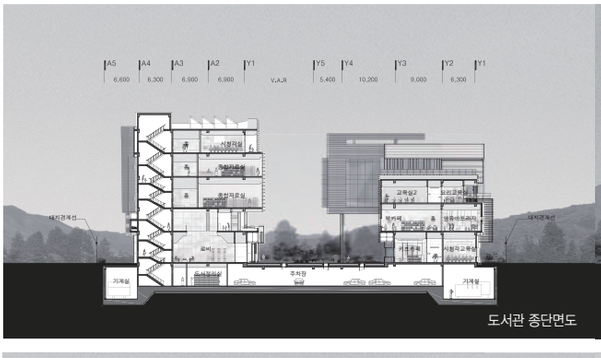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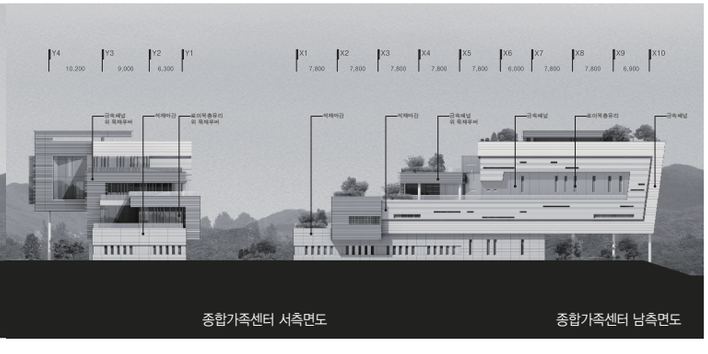


도서관 종단면도

도서관 북측면도

도서관 동측면도

종합가족센터 횡단면도


종합가족센터 서측면도

종합가족센터 남측면도

광교신도시 문화복지시설 _우수작

GWANGGYO NEW TOWN CULTURAL FACILITIES

발주자 : 경기도시공사

설계자 : 이승연, KIRA |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박노현, 김현주, 조덕상, 최준섭, 박권희, 박종훈, 유혜미
김지혁, 정승철, 서동원, 김성산, 이병태, 장내임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주)아이스트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전기설계 혐인
– 기계설비분야 : 삼신설계 주식회사
– 토목 : 경보기술단(주)

대지위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문4부지
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복지시설
주요용도	도서관 · 종합가족센터 · 어린이집
대지면적	5,437㎡ / 4,079㎡(어린이집)
건축면적	2,314.83㎡ / 815.36㎡(어린이집)
연 면 적	11,858.02㎡ / 2,947.08㎡(어린이집)
건 폐 율	42.57%
용 적 률	144.97%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5층 / 4층(어린이집)

Plan

도서관 및 종합가족센터 –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자 연령대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닝하여 동선 효율 및 이용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각 Theme별 독립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시설,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을 소규모 공간으로 분할하여 흥미를 유도하는 재미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시립 어린이집 – 밝고 따뜻한 영유아 공간을 위해 모든 실을 남향에 배치하였고, 영아의 안전과 보육을 고려한 최적화된 조닝 및 공간을 계획하였다.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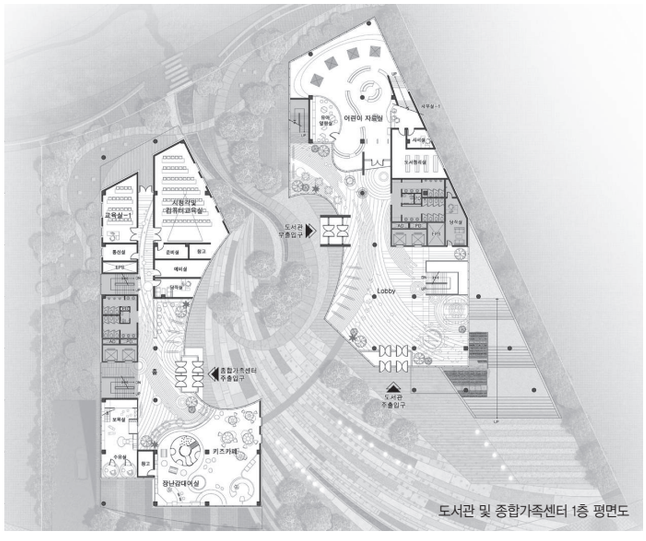
도서관 및 종합가족센터 – 책이 쌓여있는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서관과 가족센터를 하나로 엮어주는 Hug입면 디자인. 저층부에서는 수직적 패턴을 이용해 문화의 흐름을 끌어올리고, 상부에서는 수평적 패턴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시립 어린이집 – 자연속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리듬감 있게 표현하고, 흡입력 있는 가로 패턴과 인접한 자연환경에 순응한 친환경 입면을 계획하였다.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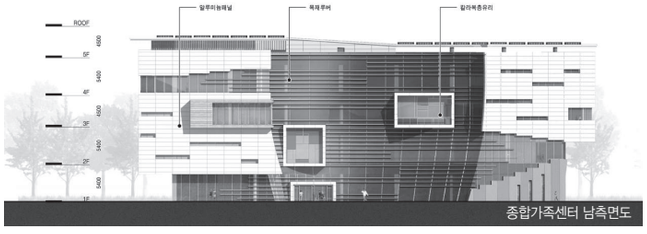
도서관 및 종합가족센터 – 이용자의 연령대와 사용시간대를 고려한 층별 프로그램 조닝. 특히, 비워진 중심공간을 공유하는 돌출된 매스에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가족센터–중정–도서관을 시각적으로 연계했다.
시립 어린이집 – 어린이의 보행환경을 위하여 전층 램프로 연결하고,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Skip Floor System으로 계획하여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도서관 및 종합가족센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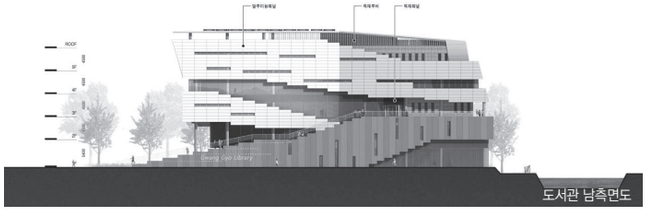
어린이집 배치도



도서관 및 종합가족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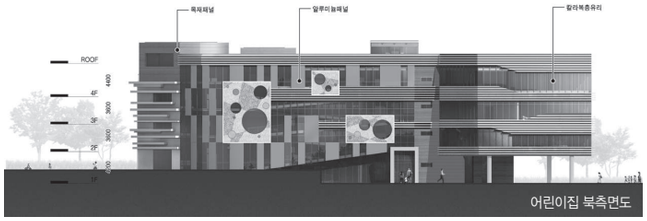


종합가족센터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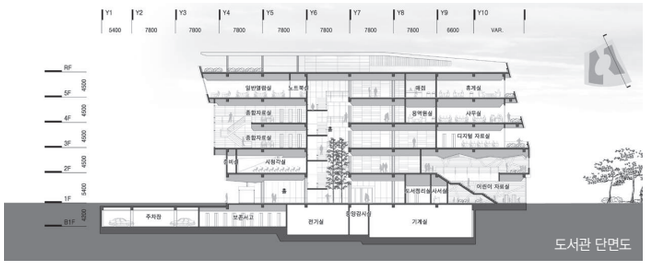


도서관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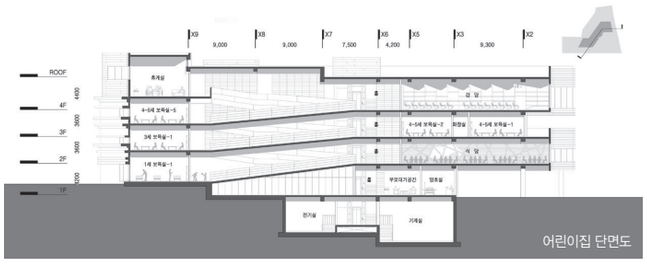
어린이집 1층 평면도



어린이집 북측면도



도서관 단면도



어린이집 단면도

푸른길도서관 _당선작

GREEN WAYS LIBRARY

발주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

설계자 : 이주경, KIRA | ㈜발해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마재열, 곽효성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한국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좋은엔지니어링
– 기계설비분야 : 새터ENG
– 토목 : 터 기술공사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438-14, 외 5필지
지역/지구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2,085.00㎡
건축면적	673.29㎡
연 면 적	1,545.39㎡
건 폐 율	32.29%
용 적 률	60.1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3층

기본계획
'문화교육특구 · 사람중심 · 건강 남구'의 이미지 형상화 및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지역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남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의 자래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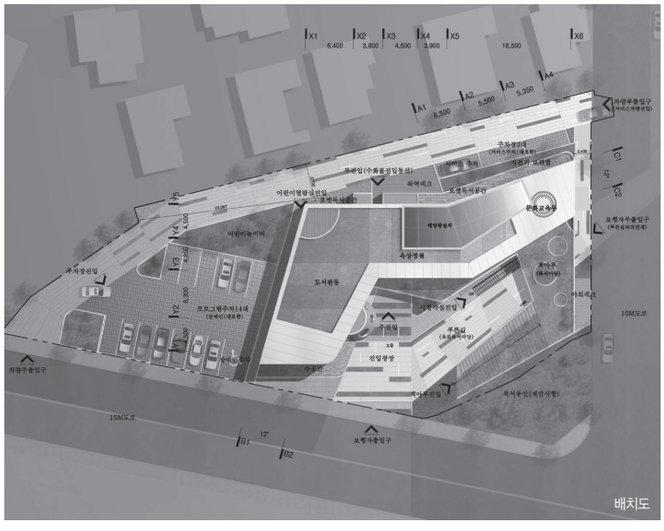
Concept
재방문을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복합문화 도서관
'다시 방문할 이유가 있는', '다시 찾고 싶은', '다시 놀고 싶은' 교육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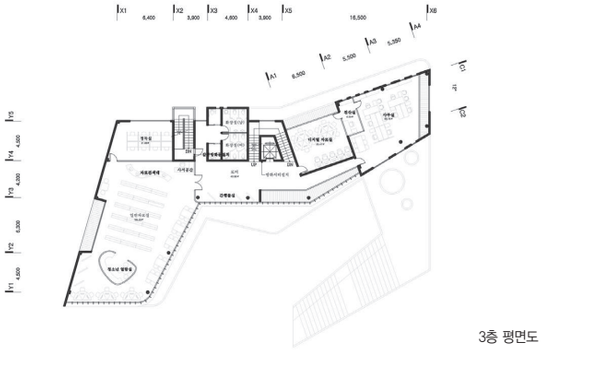
Link with Human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쾌적한 공간디자인

Link with Future
도서관의 성장을 감안한 효율적인 기능제시 및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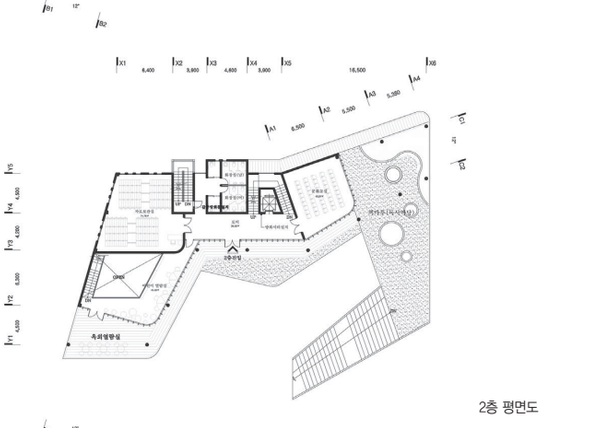
Link with Nature
자연과 함께 보고, 읽고, 만지고, 호흡하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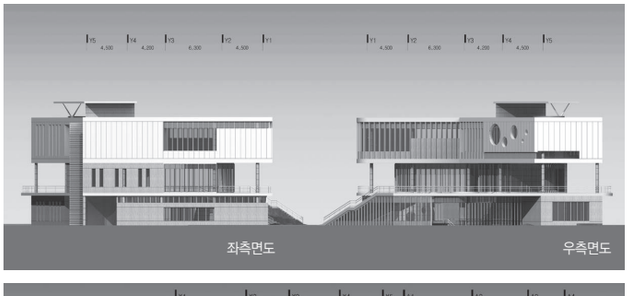
Link with Nature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편의성 및 '지역과 소통'하는 주민 밀착형 복합도서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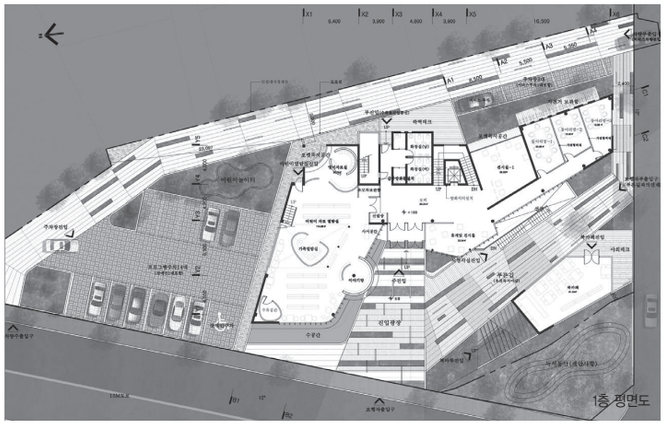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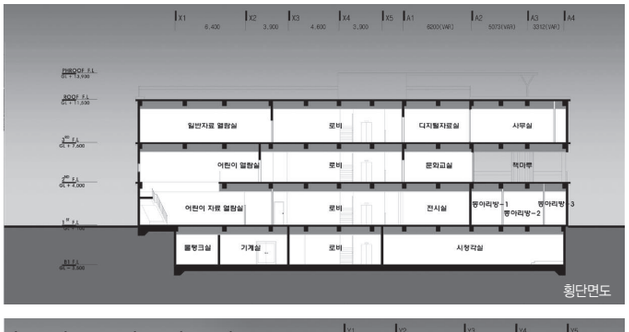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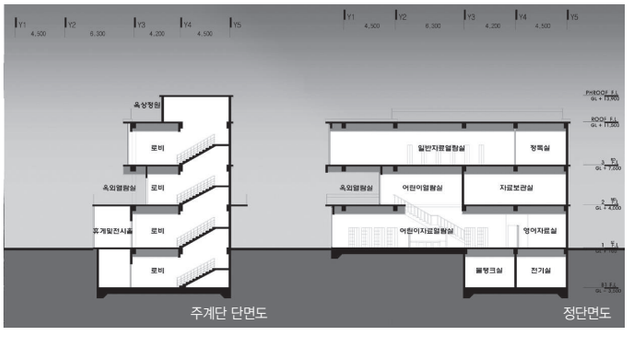
정면도


2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주계단 단면도
정단면도

푸른길도서관 _우수작

GREEN WAYS LIBRARY

발주자 : 광주광역시 남구청

설계자 : 은철영, KIRA | ㈜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설계팀 : 조원석, 이강재, 위소연, 정열, 권호연, 이솔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세움구조
– 전기 · 통신 설비분야 : (주)선진 이엔에프
– 기계설비분야 : (주)새터이엔지
– 토목 : 터 기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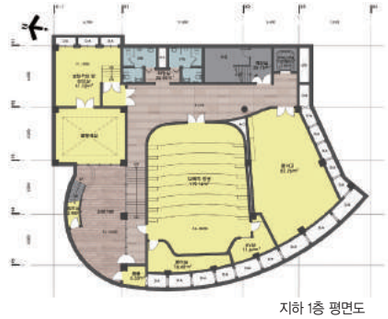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 광역시 남구 주월동 438-36, 외 5필지
지역/지구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주요용도	도서관
대지면적	1,565.86㎡
건축면적	817.02㎡
연 면 적	1,560.38㎡
건 폐 율	52.18%
용 적 률	72.38%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1층,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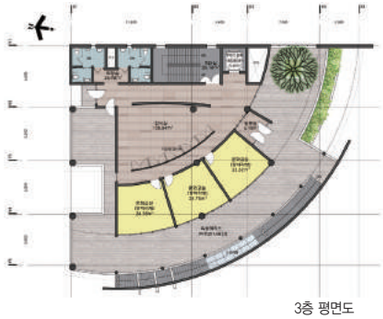
푸른길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 되어있다.
주로 아이들이 이용할 1층 공간은 어린이 및 가족열람실, 영어 도서열람실 등으로 신발을 벗은 후 마음껏 누어서도 앉아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 열람실과 연계된 앞마당은 바닥을 들어 올려서 아랫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윗부분은 하늘 마당이라는 데크 지붕을 만들어 그곳이 야외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토리텔링 등의 이벤트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 공간은 주로 청소년 및 성인, 디지털자료 열람실로 구성되었으며, 열람실 가운데 중정을 두고 느티나무를 심어 그늘 아래서 여유롭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층에는 주로 전시실과 동아리방을, 지하 1층에는 다목적강당을 두었고 1층에는 북카페를 두어 도서관 업무시간 이후나 휴관 시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커뮤니티센터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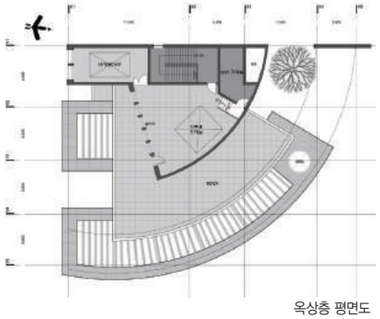
입면의 모습도 1층 부분에는 느티나무 숲을 연상하도록 구조용 원형 파이프로 디자인한 느티나무형태의 기둥을 사용하였고, 특히 푸른길에서 접근하는 입면부분 3층에는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느티나뭇잎(아이들)이 세상으로 널리널리 펴져나가는 모습의 타원 형창을 두어 도서관의 이미지가 전달 되도록 하였다.

단면형상에서도 경사진 옥외 계단과 경사진 하늘 마당으로 인하여 한 권의 책을 펼치는 모습, 또는 비상하는 새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전달되도록 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권 한 권의 책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세상을 향하여 높이, 멀리, 날으라는 의미를 담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즉, 지혜의 샘을 찾은 작은 나뭇잎이 추후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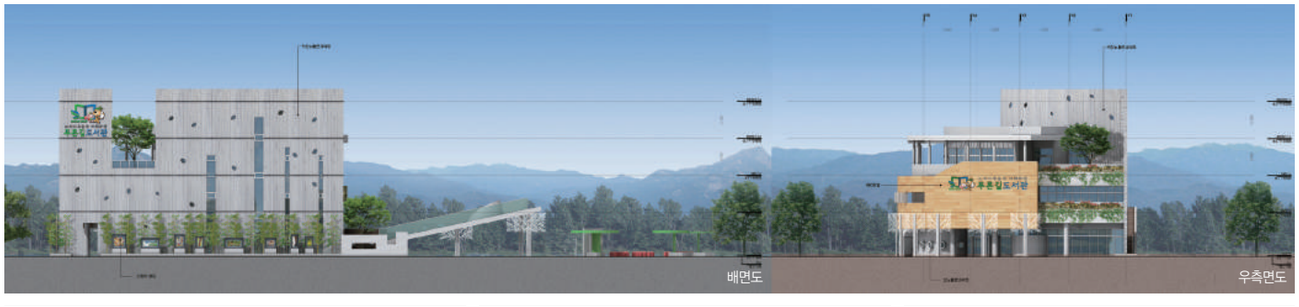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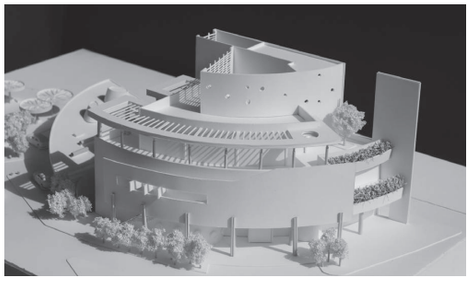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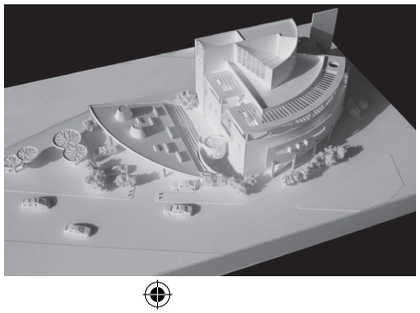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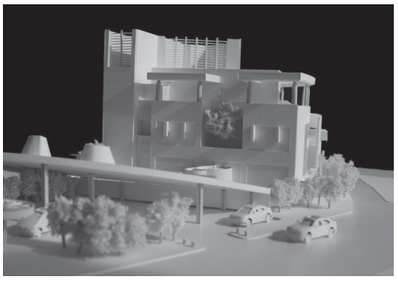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campaign

건축사저작권 스스로 지켜야 … *.dwg 납품?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을까?

Can illegal building which people reside be demo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축법상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란 이와 같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으며, 개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에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는 형식 등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되어져서 철거될 때까지 법의 규율을 받는 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과 함께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행정청에서 이러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몇 가지 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철거되어야 할 건축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명도 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건축물에 있는 물건의 반출은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다. 이는 국유재산에 무단으로 위법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장물 보상을 받은 건축물 거주자가 건축물에서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많이 문제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답이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참조). 따라서 위법한 건축물에 사람이 살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행정대집행법 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는 개별법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사용할 수는 없고, 건물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등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위법한 건축물은 모두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된 답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그 의무불이행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이에 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결국 구체적인 사안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히 공익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로는 관계기관의 권유가 무단증축의 원인이 되었고, 그 무단증축부분이 증축 이전부분과 결합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안전성을 더하게 되었으며, 증축부분의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고 건물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개축이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붕괴의 위험이 발생하여 증축하였고,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여 도시미관과 위생상 해롭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본 사례로는 수차례에 걸친 불법증축 및 대수선을 한 경우, 건축 도중 수회에 걸쳐 건축의 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한 경우, 대형소방차의 출입을 위한 소방도로의 개통 등을 위하여 계고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8평을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을 증축한 후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

친환경재료적용 · 목조건축

Wood is Good!

김진희 | 목조건축디자인센터 소장

한국전통적 공간의 재발견

한국의 건축역사에서는 목구조라는 우리 고유 전통양식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적 역할을 해 왔었다. 한국동란으로 인한 폐허를 대량 공급형으로 복구하면서 서구건축기술인 콘크리트조, 벽돌조로 건축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목구조건물은 거의 사라졌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된 것이 잔존되어 있을 뿐이다. 나무에 의하여 세워진 공간은 한국의 전통적 공간이다.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나무로 엮어진 공간에서 나무의 촉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생활습성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무의 느낌을 사랑하는 국민성이 있다. 그리고 나무로 엮어진 구조를 아름답게 느끼며 나무기둥과 보와 지붕이 서로 결합된 이음구조를 마치 생물체의 골격을 연상케 하도록 아름답고 정교하게 축조하는 기술은 한국전통 건축미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국토의 70%가 산과 나무로 조성된 수려한 자연환경과 아름답게 생활공간 속으로 순화되도록 발전되어온 공간은 자연경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구조이다.

오늘날 새로운 복고문화의 일원인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면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국의 고유음식과 한국의 고유한 음율가락을 긍정적 우리의 맥으로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 즉 목구조건축을 한국전통공간의 모체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건축의 진화적 변화에서 인류역사를 통해서 나무라는 보편적인 재료의 특성은 그 특유한 따듯함의 물성으로 시각적, 감각적, 후각적 특성을 가져, 건물의 사회적, 물리적,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이용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목재의 유연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어원에서 볼 때, 구축(tectonic)은 목수(木手), 건축가(建築家, builder)를 의미하는 그리스語의 'tekton'에서 목조 기원설을 반영하고 있으며, 목구조가 건축의 발생에 전제된 개념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

목구조에서 각 부재들의 결구방법과 재료의 노출은 공간구성과 함께 미적 가치로 드러나는 건축 표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건축을 결합의 예술(Art of Joining)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기둥 · 보구조(Post and Beam Structure)에서의 공간의 구성기술은 오늘날 IT 첨단산업의 기술상품과 같은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건축에서 섯가래의 배열과 지붕의 흐름은 한국고유의 산수배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나무기둥 사이로 개방된 벽으로 자연채광과 외부자연경관의 조망은 목구조 구성된 동양건축만의 특성이다.

목재의 종류(Type of Lumber) 및 구분

목구조에 사용되는 나무는 크게 두 종류로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한다.

침엽수(Softwood)의 주요종류

일반적으로 바늘형 잎을 가진 침엽수는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사계절 푸른 상록수를 의미한다. 침엽수 제재목은 주로 건축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기타 토목, 가구, 실내장식, 토목파렛트 깔판 등 산업용으로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소나무, 향나무, 편백나무 등과 캐나다 서부 및 미국의 북서부를 중심으로 자라는 더글러스 전나무, 솔송나무(Hem Fir), 폰데로사 파인, 아이다호 백 소나무, 슈가 파인, 엥겔만 스프르스, 인센스 시더, 웨스턴 레더 시더 등이 있으며 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남부산 소나무(Southern Yellow Pine)가 있다.

활엽수(Hardwood)의 주요종류

활엽수는 넓은 잎을 가진 나무 그룹으로 대개 열매나 과일을 생산하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를 말한다. 활엽수는 나무결이 미려하여 내장재 및 가구, 악기 제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종류는 '레드 오크(Red Oak)', '화이트 오크(White Oak)', '단풍나무(Maple)', '호도나무(Walnut)', '튜율립 우드(Tulipwood)', '벚나무(Cherry)', '오리나무(Alder)', '물푸레나무(Ash)' 등의 40여종으로 구분된다.

목조건축에서 건조목(Kiln Dry / S-Dry)을 사용할 필요성

1) 목재 수축에 의한 구조적, 마감재와의 긴밀성, 시각적 손상방지
2) 목재의 구조적 강도 증가
3) 못과 철물의 유지력 증가
4) 접착성 및 도장성(칠)이 강해짐
5) 전기절연성의 증가
6) 각종 충해방지
7) 부후 및 변색 방지

경골목구조(Lightweight Wood-Frame Construction)의 특성

1830년경 시카고에서 엔지니어이면서 목재상 주인이 그 당시까지 기둥 · 보 방식의 목구조를, 원목을 균일한 소단면 각재로 제재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골목구조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골목구조는 플랫폼(Platform) 구조와 버룬구조(Balloon)로 나누어진다.

경골목구조(일반적으로 2×4구조라 하며 규격재에 의한 구조)의 주요 특성은 첫째, 가변성과 응용성으로 구조체의 경량성에 의한 디자인의 유연성과 증축, 구조변경 등이 용이하며 벽체 등의 공장 제작이 용이하여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에너지 효율 및 내화성으로 목재의 단열성과 유리섬유 등 단열재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며 내화석고보드를 설치하여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다. 또한 단위 건축자재 생산과정의 소요 에너지가 가장 낮아 친환경 재료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이다.

셋째, 경제성으로 시공과정의 단순화와 공사 기간의 단축으로 인건비가 절감되며 자재의 시스템화, 모듈화 등으로 건축 시스템의 합리화로 경제적 건축이 가능하다.

공학목재(Engineered Wood)의 유용성 및 특성

목조건축이 산업기술의 결합과 보편화로 공학목재가 탄생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되었다. 공학목재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집성목(Glulam)은 다양한 이유에서 일반목재를 대체한다.

1) 구조재를 마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일반목재(Timber)나 규격재(Dimension Lumber)로 불가능한 긴 경간(span)을 가능케 한다.

2) 목재의 작은 규격으로 더 큰 부재 생산이 가능하며 제품의 균일성이 좋으면서 강도, 강성이 증가하며 구조적인 성능과 검증을 예측하기 용이하다.

3) 대부분의 공학 목재는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형함수율 약 8%~12%의 함수율로 제작함으로 수축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이 적어 일반목재를 대체하는 강도, 강성이 높은 자재로서 치수안정성, 뒤틀림, 비틀어짐, 갈라짐, 굽음, 수축이 매우 적은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학목재들은 수입재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국산 간벌재를 공학목재의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시설들을 설치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학목재의 국산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학목재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 건축사들과 전문 시공자들의 양성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공학목재(Engineered Wood)의 종류

- **합판**(Plywood) : 합판은 공학목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공학 패널로서 목재 단판을 목리방향이 서로 수직방향으로 교차되도록 적층을 이루어 접착하여 제조한다. 이 때 항상 홀수 층으로 겹치며 합판의 표면층은 길이방향을 이룬다. 목재단판의 방향을 교차하여 적층함으로써 탁월한 강도 및 전면적에 걸쳐 고른 강성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규격 및 내외장 용도로 사용되고 주로 지붕, 바닥, 벽의 덮개재로 적용되며 따라서 구조용 합판에는 노출등급으로 구분 되어 있어 반드시 그 용도에 인증된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내장용(Interior)등급은 건축의 외부 구조체(벽, 지붕)를 덮는 재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실내 작업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오에스비**(OSB : Oriented Strand Board) : 무단판의 성능등급이 매겨진 구조용 패널로서 스트랜드 모양의 작은 나무조각을 한 방향으로 배열하여 단판으로 제작 한 것으로 합판보다 훨씬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목편을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판재의 형태로 적층한 것이다. 합판의 단판과 같이 목편을 이용해 최대의 강도, 강성 및 치수 안정성을 갖는 층을 이룬다.
  목조주택의 대부분의 덮개재는 OSB를 사용하며 지붕용과 바닥용, 벽체용으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은 공학 목재들은 특정목적에 맞춰 생산이 되므로 제조업체는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의한다. 이것은 등급된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은 그 성능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간혹 OSB를 외장노출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OSB는 이러한 용도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며 외장재로서 제대로의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 **집성목재**(Glulam – 글루램) : 집성재는 1백년이상에 걸쳐 연구되어온 제품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특수 접착제와 첨단소재의 개발 등으로 다양성과 기능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같은 단면 크기의 일반 제재목에 비해 강한 강도를 가져 대형 보나 장 선을 만들기 위해 제재목의 폭 면들을 서로 접착시켜 제작한 것 이다.
  내진설계와 기둥-보 구조 방식의 디자인에 적절할 뿐 아니라, 향후 증가하게 될 대형원목의 부족분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도에 따라 직선, 곡선, 아치 등 다양한 형태 제작이 가능하며 구조 용재로 구조의 노출로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난 장점도 있다.
  구조용 집성재는 기계등급 규격재(통상 두께 19mm 또는 38mm)를 서로 수평으로 구성한 층재를 가압 접착하여 제조한다. 층재는 내수 접착제로 길이 방향으로 접착한다. 구조용 집성재는 일반 구조재에 비하여 허용응력이 높으며, 치수 안정성이 크고 치수 및 형태의 유연성이 크다.
  용도가 다양하여 공동주택, 교회건축, 체육시설, 클럽하우스, 도서관, 학교 등에서도 사용되고 심지어 고압선 전주에서 교량까지 그 쓰임새의 폭이 넓다.

- **단판적층재** (LVL : Laminated Veneer Lumber) : 구조용 공학목재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사용되는 부재로서 얇은 목재단판을 장 방향으로 목리방향에 평행하도록 적층하여 접착시킨 것이다. 합판과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용도에 따라 필요한 규격으로 재단하여 사용한다. 주로 I-형 장선의 플랜지나, 스터드재, 문틀의 헤더, 장선 외부 돌림재 등으로 사용된다.

- **패럴램**(PSL) **및 스트랜드적층**(LSL) : 단판을 대략 2,400mm길이와 12mm너비의 길고 폭이 좁은 스트랜드로 클립 한 것이다. 작은 결점은 제거하고 스트랜드를 방수 접착제로 완벽하게 코팅 하며 스트랜드는 부재의 길이방향으로 배열하고 직사각형의 빌렛(굵은조각)으로 만들어, 회전벨트의 압력기에 넣어 극초단파 과정을 통해 경화시켜 제조된다.

• LSL(Laminated Strand Lumber) : 최신의 복합 구조재로 오에스비와 유사하게 아스펜의 넓고 짧은 스트랜드로 제조 된다. LVL이나 PSL 처럼, LSL은 강도를 예측할 수 있고 치수 안정성이 높지만,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목조주택의 테두리장선과 창호의 헤더로 사용되기도 한다.

• PSL(Parallel Strand Lumber) : 단판을 잘라 만든 스트랜드의 밀도를 높이고 서로 접착하여, 제품의 길이 방향으로 스트랜드를 배열하여 제조한 복합 구조재.

• **I-형 장선**(I-Joist) : 소규모 건축물 및 주거용 바닥장선이나 지붕의 서까래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I형태의 모양으로 규격재(Dimension Lumber)로 된 장선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공학목재(Engineered Wood)의 한 종류이다. I-형 장선은 철골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I자 모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크기나 무게에 비해 훨씬 큰 강도 를 얻을 수 있어 품질인증 등급이 표시된 제품이라면 모두 동일한 구조적 성능을 갖고 있는데 I-형 장선은 긴부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체중량이 가벼워 현장에서 취급도 용이하다.

특히 I형태 구조로 이루어져 휨응력이나, 강성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규격재 장선의 대체부재로서 적절하며, 차음 바닥구조재 및 지붕 구조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 **경골목조트러스**(Wood Truss) : 고품질 공학부재로서 외형의 제한이 없으며 긴 경간, 경량, 경제적이므로 목조주택의 지붕구조에서 서까래나 장선 대신에 흔히 사용된다. 목조트러스는 배열된 사재와 현재가 삼각형으로 배열되어 효과적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구조요소이다. 경골 목조 트러스는 여러 치수의 규격재로 사재와 현재를 구성하고, 아연도 강철판에 톱이를 낸 트러스 접합 판으로 접합하여 제조한다.

• **연결철물**(Fasteners) : 경량골조에서 골조부재를 서로 부착하고 덮개를 골조에 부착하기 위해 못, 대못, 스테이플 형태의 여러 작은 연결철물을 사용한다.
건축구조설계기준의 경량목구조 못박기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양한 금속철물의 사용으로 내진, 태풍 등에 구조적 보강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량골조는 고정용으로 못(Nails), 연결철물(Connectors & Ties), 앵커볼트(Anchor Bolts), 기타(Bolt, Screws, Staple) 등을 사용되고 있지만 공학목재에서는 엔지니어 설계에 의하여 제작한 철물로 고정하여야 한다.

한국 목조건축의 재현과 미래

목구조의 건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많은 건축사들을 위하여 계획하기 전에 몇 가지의 기본적인 목재의 특성과 구조적 구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목구조의 기초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므로(단목재 또는 철골 기초로도 가능함) RC와 목조의 결합은 재료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접합의 기술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특히 목재가 콘크리트와 접할 경우 콘크리트가 내포하고 있는 습기를 목재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격재(Dimension Lumber)는 못이나 간단한 철물 등으로 고정하고 있으나 구조용 각재(Timber)나 공학목재(Engineered Wood)의 연결은 필히 긴결철물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목조는 그 자재가 규격화되어 있어 RC조와 수평, 수직 결합 부분의 접합 디테일과 방습, 단열처리 등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친환경 그린빌딩의 세계적 이슈와 함께 목조건축 재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일본은 지진에 적응하는 전통적 목조건축을 서양목조건축의 첨단기술과 접목시키는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북미는 기본목재 2″×4″에 의한 목조 주거형태로 자유로운 조형과 공간을 창출하고 있으며, 독일은 목구조술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조립식, 패널식 공업화를 위한 디테일의 목조건축이 뛰어나다.
세계 건축계의 발전과 병행하여 목구조 건축은 2002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목재로 엮어진 대형공간이 설계, 건설되었으며, 이미 한국에서도 그동안 건축사들이 시도해 오면서 닥아 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목조 건축물의 적용가능성은 건축개념이 하이브리드건축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목조건축의 설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사에게는 우선적으로 나무의 재료적 특성, 열학적 특성과 구조적 디자인 디테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속적인 정보 및 전문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김진희 소장은 인하공대 건축과 졸업 후, Canada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건축환경학과 수료, Canada Housing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설계기획실장, Vancouver Whistler Town Master Plan 참여, 〈Falscreek Senior Complex〉 1979 PA AWARD 수상, VP of Roger Romses Architects Asso, President of JD Design Corporatio, UBC대학 한국학센터설립 총무이사, 1997년 한국귀국 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SAKIA 학사위원, (사)목재문화포럼 상임이사,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 이사/건축위원장, 국토해양부 신한옥연구 자문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건축아카데미 강의,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회장역임, 현재 한국조형예술원(www.kiad.or.kr)에서 목조건축 동영상강좌를 하고 있으며, 2010건축인의날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2년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참가 보고서

AIA 2012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I. 2012년 참가 개요

2012년 미국건축사협회 전국대회 및 관련 전시회(AIA 2012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는 "Design Connects"라는 주제 하에 5월 17일~19일 수도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대회 전날인 5월 16일에는 회원 실무교육(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는 건축사 계속교육인데 우리 건축사법 관련 이하 '실무교육'으로 표기한다)관련 사전 워크숍 및 건축물 탐방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체별 참가자는 다음과 같으며 각 단체에 맞는 스케줄로 참석 활동했다.

대한건축사협회(KIRA)는 강성익 회장, 조인숙 국제위원장, 김항년 건축사등록원 위원회 위원(KIRA이사), 김 윤 건축사교육원 설립위원회 위원장(KIRA이사), 이상 4인 공식대표 및 류춘수 건축사(Hon.FAIA 개인참가); 한국건축가협회(KIA)는 강철희 국제담당 부회장과 한영근 국제위원장; 대한건축학회(AIK)는 이언구 FIKA대표회장(전 AIK 회장)이 참가했다.

우리협회 참여 등의 주요 보고 내용은

1. 개회 및 폐회, 건축사 실무교육(CPD) 관련: 사전 워크숍 참가 및 현장답사, 학술 발표 등 참가

2. 네트워킹 및 국제교류 행사 참석: 국제단체장 포럼 참석 및 오찬, VIP 환영만찬, 명예회원 메달식 수여 참석,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 수여식 만찬 등 사교행사 참석

3. 전시회(AIA EXPO 2012), AIA총회, 기타 등이며 별도 행사로 인근 버지니아 주 메도우락 식물공원에서의 한국 평화의 종 및 정자 준공식에도 참여하여 교민들의 애국심을 볼 수 있었다.

1. 개회 및 폐회, 건축사 실무교육 관련: 사전 워크숍 및 현장답사, 학술발표 등 참가

미국건축사협회는 2012년에 200여 종류의 교육강좌를 개설했

미키 제이콥 AIA 2013회장과 강성익 회장

개회 세션

개회 세션

고(2011년 150여 개), 29지역으로 나누어서 약 100종류의 건축물 탐방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이수시간인 18단위시간(LUs: Learning Units, 이하 '시간'으로 한다)은 전년도 대비 변함이 없는데, 그 중 4시간의 지속가능설계(SD: sustainable design)교육이 포함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계속교육 인정 기준에 의해 작년까지 년간 8시간이었던 공중보건, 안전 및 복지(HSW: health, safety, and welfare)에 관한 이수시간이 12시간으로 의무화되었다. 미국건축사협회와 연방건축사등록원은 서로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이러한 요구에 맞도록 함께 점검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대회 참가중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전문가들이 전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했던 점, 쉽게 출력 가능한 문건으로 만들어 매일매일의 일정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점 등이 눈에 띄었다.

1) 사전 워크숍 참가 :

전국대회 공식 개회 전날인 5월 16일은 56종류의 반일 또는 종일 워크숍 및 건축물 탐방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건축물 탐방은 중요한 줄 알아도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협회 구조상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종류별로 워크숍 몇 분야에 참여했다.

1) 공공건축사 워크숍(Public Architects Workshop)에서는 공공발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 도모 및 민관협력(P3: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논의가 실례와 함께 있었다.

2) 계측사회에서 우수건축물에 대한 정의(Defining Architectural Design Excellence in a Measuring Society) 워크숍에서는 선정된 다섯 개의 건축물을 다섯 구룹으로 나누어서 건물 하나를 택해서 형용사 다섯 개를 설정해서 토론한 후 각 구룹에서 발표를 했다.

논의의 대상은 미국 평화재단 본부(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Q), 국립현대미술관 동관(East Wing of National Gallery), 미국건축사협회 본부(AIA HQ), 미 국회의사당(US Capitol), 워싱턴 DC지하철역(DC Metro Station) 이렇게 다섯 종류였고 강성익 회장과 필자는 모쉐 사프디 설계의 평화재단 본부 팀에 합류 했다. 논점은 분명한 기능이나 구성, 동선체계, 역사에 대한 이해, 디테일 이나 풍부한 재질감, 투명성 등이었다.

3) 21세기 교육시설 평가 워크숍(How People Learn: Connecting Research on Learning to Planning, Designing, and Assessing 21st-Century Learning Spaces)은 도면을 전시하면서 다이아그램을 그리거나 과제를 수행하고 의제를 다루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각 구룹으로 나누어서 논의 후 발표했고, 끝으로 건축주 상대하기(Ideas for working with clients), 사무소 내에서 동료들과 협력하기(Ideas for working with my office colleagues) 및 업무수행을 위해 건축사 스스로가 풀어야 할 과제 다루기(An Idea for my personal agenda for action) 등에 대해 되돌아보았다(Reflection and Renewal).

상기 워크숍 중 공공건축사 워크숍 및 교육시설 평가워크숍은 HSW가 충족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계속교육(CES) 인정을 받으려면 반일 워크숍은 155USD, 종일 워크숍은 310USD를 지불해야 한다. 반일 또는 종일 일정의 오전이나 오후 세션 참여 및 90분짜리 세미나는 시작해서 15분 이내에, 60분짜리 세미나는 10분 이내에, 건축탐방은 출발 30분 전에 뱃지를 스캔해야만 출석으로 간주되어 교육인정이 된다.

뱃지를 스캔하는 모습

공공건축사 워크숍 – 강성익 회장

우수건축물 워크숍 – 강성익 회장 참석

21세기 교육시설 평가워크숍

5월 17일부터 19일에 걸친 대회기간 중에는 기조강연 및 각종 세미나 및 60종류 이상의 건축탐방(educational tours)과 개별 답사가 준비되었다. 건축탐방은 각 55~160USD까지 다양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1.5시간~6시간 인정되나 사전 예약제로 대부분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개별 답사(self-guided tour)도 교육인정을 받으려면 코스당 45USD를 지불해야 하며 각 2시간 인정이 된다.

2) 기조강연 및 특별 행사(keynote Presentation and Special ceremony)

기조강연1. 개회(Opening Keynote Presentation)

- 연 사: David McCullough (역사학자)
- 일 시: 5. 17(목) 08:15~10:00
- 약 력: 2회 퓰리처(Pulitzer Prize) 상 수상, 대통령자유상 수상, National Book Award 2회 수상,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Greater Journey: Americans in Paris 위대한 여행: 파리의 미국인」 집필
- 내용: 150년 이전 AIA 창립 이후 미국의 건축 및 건축사들에게 영향을 준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함께 나눔

기조강연2

- 연 사: Hon. Shaun Donovan (건축사)
- 일 시: 5. 18(금) 08:30~10:00
- 약 력: 미국연방정부 주택 및 도시개발국 사무총장, 뉴욕시 주택보존 및 개발국 국장 역임, 하바드대학교 행정학과 및 건축학과 졸업(학사 및 석사)
- 내용: 건축사들이 가야 할 길인 "new normal"을 찾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건축사는 도시건축 정책의 과거를 미래의 건축 설계와 함께 얘기해야 한다고 함.

특별행사. 폐회(Closing Keynote Presentation-Architects of healing)

- 주 제: 치유의 건축사들(Architects of Healing)
- 일 시 : 5. 19(토) 14:00~15:30
- 수 상 자 : Daniel Liebeskind, FAIA; David Childs, FAIA; Michael Arad, AIA ; Craig Dykers, AIA; Steven Davis, FAIA; Santiago Calatrava, FAIA; and Robert I. Davidson, FAIA 및 각 설계팀들
- 내용: 미국 911 테러 이후 도시의 재건을 위해 헌신한 다니엘 리베스킨트 외 6명의 건축사에게 특별 제작한 메달 수여. 특히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샹크스 빌 프로젝트 등 재건축 및 기념물 설계로 국가를 치유하는데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2. 네트워킹 및 국제교류 행사 참석

대회기간 중 연례 골프대회, 야구대회 등 운동경기와 전임회장단 부부동반 점심, 주최도시인 DC지회 초청 만찬, VIP 환영만찬, 명예회원 메달 수여식(Investiture Ceremony), 국제 단체장 포럼(International President's forum),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AIA International Committee Reception), 수여식 만찬(The College of Fellows Convocation Dinner), 주최도시인 DC지회가 마련한 파티(Host Chapter Party)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되었다.

1) 국제 단체장 포럼(International Presidents' Forum) 참석 및 오찬

1. 일 시 : 5. 18(금) 10:30~12:30
2. 장 소 : AIA 본부 Board Room
3. 참 석 자 : 강성익 회장, 김항년 이사, 김윤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이상 KIRA), 이언구 FIKA회장(AIK), 강철희 국제부회장, 한영근 국제위원장(이상 KIA)
4. 진 행 : AIA 회장 Jeff Potter의 환영사 및 참석자 소개에 이어서 AIA측의 개괄 후 유럽건축사협회 연합에서부터 미국건축사협회 관련조직까지 참석순서로 각 패널16인 발표

국제단체장포럼 전경

국제단체장포럼 AIA

12개의 국가, 지역 및 국제건축사단체와 미국연방관련조직(등록원, 인증원, 건축대학단체연합회, 건축대학생회)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다자간 포럼 방식으로 건축계의 현안에 대해 2시간 정도 포럼을 한 후 점심을 함께 했다.

이 행사는 2002년 AIA 전국대회에서 처음 시도한 후 11년째 진행되어왔다. 단체장들은 단체 또는 자국의 건축사단체의 활동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한다.

5. 토론주제 (Discussion Agenda, 각 5분 씩 전체시간 90분)
   인간과 장소 및 아이디어들을 연계시키는 정신(Sprit)이란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를 통해서다. 설계의 본질은 연계(Connection)에 대한 모든 것이다. 설계 범위를 이해하는 최초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현 가능한 실체로의 마지막 단계까지 설계작업이란 보다 낳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연계작업이라는 전제하에

다음의 질문 중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에 답하기를 사전 요청했었다.

1) 건축사/건축과 대중(Public)과의 연계(Connection)는 우리 전문분야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2) 귀 단체에서는 "건축설계 연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① 이 포럼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들과 이미 협력관계에 있는지?

② 미국건축사협회(AIA), 그리고 이 포럼에 참석하는 다른 단체와 협력할 기회가 있는지?

3) 향후 어떤 주제에 관해, 또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건축사협회(AIA)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또한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는지?

에 대해 1) 유럽건축사협의회(ACE) 회장 Selma Harrington의 현재 유럽의 상황에 대한 발표로 시작하여 2) Shelley Penn(호주건축사협회 회장-FRAIA-회장), 3) Albert Dubler(국제건축사연맹-UIA-회장), 4) Carlos Alvarez Guzman(코스타리카 건축사협회 회장), 5) 이언구(한국건축단체연합-FIKA-회장), 6) David Craddock(캐나다왕립건축사협회 회장), 7) Angela Brady(영국왕립건축사협회-RIBA- 회장), 8) Taro Ashihara(일본건축가협회-JIA 회장), 9) George Kunihiro(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회장), 10) Alfonso Palafox Garcia(멕시코건축사협회-FCARM-회장), 11) Scott C. Veazey(미국연방건축사등록원-NCARB 회장), 12) Keelan P. Kaiser(미국연방건축사인증원-NAAB 회장), 13) Judith A. Kinnard(미국건축대학협의회 회장), 14) Robert Ivy(AIA 수석부회장/CEO), 15) Thomas Vonier(AIA국제담당 이사) 등의 순으로 총 16명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한국측은 이언구 FIKA대표회장께서 1) FIKA 개괄, 2) 현황 및 활동, 3) 논점, 4) 2012/13 주요 행사 등에 대해 요약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참고하라고 발표했다. 현황에 2017년 UIA서울 세계대회 유치 및 건축학교육인증원(KAAB)에 관해,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설계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참고자료: http://www.aia.org/aiaucmp/groups/aia/documents/pdf/aiab094682.pdf)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단체에서 각 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문건을 송부하고 게시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했다.(이는 FIKA 국제위원회 시 스케줄 등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연합 대표회장 사무국(AIK)에서 내용 및 스케줄을 모른다고 했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설계관련 단체장 포럼에 FIKA대표회장이 사전 의논 없이 단체활동을 보고한 점이라던가 그 내용은 대표회장이 속한 단체(AIK)의 활동을 주 활동으로 보고하여 마치 한국에는 학술활동만 있고 건축사단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대표회장을 초청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국제관례상 어떤 경우라도 단체초청은 대표자이름으로 초청한다. 앞으로 한국건축단체연합은 어느 단체가 대표가 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하고 각 단체 활동상황을 목적에 맞게 서술한 것을 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AIA나 UIA 등의 건축사활동 본질에 맞는 단체로서 참가를 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

2) VIP환영만찬 (AIA/DC Chapter/ Hanley wood/ Reed Construction Data(RCD)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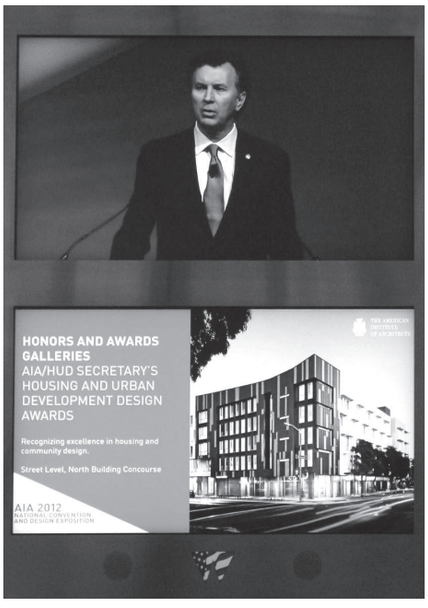
1. 일 시 : 5.16(수) 19:00~22:00
2. 장 소 : 국회도서관 토마스 제퍼슨 빌딩(Library of Congress, Thomas Jefferson Building/ Great Hall), 10 First Street, SE Washington DC
3. 참석자 : 강성익 회장, 김항년 이사, 김 윤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류춘수 전 부회장(이상 KIRA)

주최도시인 AIA DC지부와 AIA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있는 RCD 및 Henley Wood의 공동주최의 환영만찬에 참여하여 국제단체 참여자들과 교류했다. RCD는 건축설계 시공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앞선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며 Henley Wood사는 비지니스 미디어(Media)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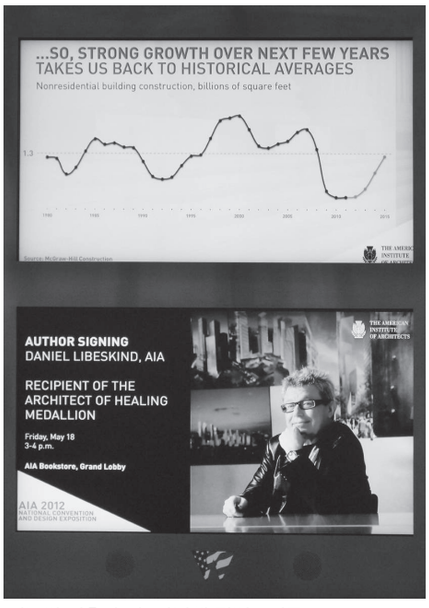
3) 명예회원 메달 수여식 참석(Investiture Ceremony)

1. 일 시 : 5. 17(목) 16:00~18:00
2. 장 소 :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3101 Wisconsin Avenue NW

명예회원 메달 수여식



수상 중계



치유의 건축사 상–다니엘 리베스킨트

3. 참 석 자: 강성익 회장, 김항년 이사, 김 윤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류춘수 전 부회장(이상 KIRA)

1952년 창립된 명예회원회(the College of Fellows)는 회원 중 명예회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회원들로 구성되며 명예회원이 된다는 것은 건축계의 영광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영광이다. 명예회원(FAIA: Fellow of AIA)은 AIA회원 중 우수건축설계나 건축교육분야 및 건축사로서의 직업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회원을 5개 범주에서 추천하고 선정해서, 전 등록회원의 2% 내외로 선정된 건축사에게 명예를 수여(1년에 약 100명 수여)하며 FAIA수여식은 대회기간 중 성당 등 성스러운 장소에서 거행하고 기존 FAIA가 신임 FAIA를 초청하는 만찬을 성대하게 거행(Black Tie) 한다. 2012년 수여식은 워싱턴 성당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렀고 만찬은 이틀 후 국립건축박물관에서 했다. 전체 80,000명 회원 중 약 3,000명이 FAIA이고 2012년은 105명이 선정되었다.

한편 Hon. FAIA는 건축분야 또는 미국건축사협회에 공로가 큰 건축사 중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건축사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2012년 6인의 수여자로 파라과이, 호주, 독일, 남아프리카 및 중국(칭화대학, 리 샤오동–李晓东–)이 설계분야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피에르 앙트완느 고티에 (ICOMOS 프랑스 위원장)가 보존분야에서 Hon.FAIA가 되었다.

참고로 다섯 범주는 다음과 같다.

- (건축이라는) 직업의 예술성, 과학성 및 실용적 효율성 증진
- 건축교육, 수련, 실무 수준을 높임으로써 계획과 시공의 과학 기술 및 예술성 향상
- 건설산업과 건축사라는 직업의 조율
- 개선된 환경을 통한 국민생활기준 향상의 도모
- 사회에 대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업으로 자리매김

4) AIA 국제위원회 리셉션(AIA International Committee Reception)

1. 일 시 : 5. 18(금) 18:30~20:00
2. 장 소: 르네상스 다운타운 호텔, 르네상스 이스트 살롱 (NW, Washington, DC)
3. 참 석 자: 강성익 회장, 김항년 이사, 김 윤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류춘수 전 부회장(이상 KIRA); 강철희 국제부회장 및 한영근 국제위원장(이상 KIA)

2012년 AIA 국제위원장 Steven W. Miller(FAIA, RIBA)의 주제로 열린 행사로 초청된 모든 국제단체 건축사들, AIA 사무국, 국제위원회 위원들 등이 참여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교류행사였다.

5) 수여식 만찬 (The College of Fellows Convocation Dinner)

1. 일 시: 5. 19(토) 18:00~23:00
2. 장 소: 국립건축박물관 (National Building Museum, 401 F Street, NW, Washington, DC)
3. 참 석 자: 강성익 회장, 김항년 이사, 김 윤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류춘수 전 부회장(이상 KIRA); 강철희 국제부회장 및 한영근 국제위원장(이상 KIA); 이언구 회장 내외(AIK)

수상작 전

건축사사무소 수상

새로이 명예회원으로 승격된 FAIA 및 Hon.FAIA를 축하하기 위한 만찬으로 그들 전통대로 성장(Black Tie)을 하고 참석하는 행사다.

이런 자리는 우리 회원끼리 보다는 흩어져서 앉아야 상호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알려야 할 것이고 우리대표단 구성에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교류에서 전문요원이 통역자 역할을 하면 시간과 인력의 낭비도 낭비이지만 정작 얻어와야 할 주요한 정보를 놓치기 때문이다.

3. 전시회 (AIA EXPO 2012), AIA 총회, 기타

1) 전시회 등 참관

자재 및 기술관련 전시회는 5월 17일~19일 컨벤션센터 지하에서 열렸다. 전시장 한 쪽으로 AIA Town Hall이라 해서 대규모 부스를 조성하여 대회기간 중 AIA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했다. 프레젠테이션 무대를 설치해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고 이에 구글 스케치업 마스터 클래스나 마케팅 전략 토론회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언론 홍보 부스 및 투표소 등이 마련되었다. 소규모 사무소 운영자들 모임이 있어서 잠시 참여했더니 필자에게도 계속 연락이 되어 AIA5라는 모임으로 현재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미국연방정부가 년간 소모하는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비가 연간 약 30억USD정도 되므로 10여 개의 정부관련 부스(Federal Agency Connection)도 다양하게 설치되었다. 파빌리온들은 금속, 석재 및 타일,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AV 파빌리온 및 조명 등 파빌리온으로 구분되었다.

AIA DC 라운지 및 갤러리를 마련하여 워싱턴 DC의 도시건축에 대한 강의나 토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 AIA Business

2013년 수석부회장(2014년 회장)에 헬렌 콤 드라일링(Helene Combs Dreiling, FAIA), 2013-14 부회장에 돈 브라운(Don Brown, FAIA), 2013-14 부회장에 수잔 친(Susan Chin, FAIA), 2013-14 사무총장에 리차드 드영(Richard DeYoung, AIA)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그러므로써 2013년 덴버 전국대회준비는 2013년 회장인 미키 제콥(Mickey Jacob, FAIA)의 주도하에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협력하게 된다.

3) 시상분야 및 수상자 등(2012 AIA Honor Award Recipients)

- 2012 Gold Medal Recipient
- 2012 Architecture Firm Award Recipient
- 2012 Whitney M. Young Jr. Award Recipient
- 2012 Topaz Medallion for Excellence in Architectural Education Recipient
- 2012 Thomas Jefferson Awards for Public Architecture
- 2012 Institute Honors for Collaborative and Professional Achievement Award

젊은 건축사포럼소개

전시장-대담

골드메달-스티븐 홀

뱃지를 스캔하는 모습

- 2012 Institute Honor Awards for Architecture
- 2012 Institute Honor Awards for Interior Architecture
- 2012 Institute Honor Awards for Regional and Urban Design
- 2012 Twenty–five Year Award Recipient
- 2012 Associates Award
- 2012 Young Architects Award
- 2012 Fellowship
- 2012 Honorary Fellowship
- 2012 Honorary Membership
- 2012 Housing Awards
- 2012 AIA/HUD Secretary's Awards

이 중 주요한 상들에 대해 알아본다. 2012년 AIA 골드메달은 스티븐 홀(Steven Holl)에게, 건축사사무소 상은 VJAA (Vincent James Associates Architects)에게, 휘트니 엠. 영Jr. 상은 Mortimer Marshall Jr., FAIA에게 수여 되었고, 건축교육에 탁월한 공로자로 조지 베어드(George Baird, Intl. Assoc. AIA,)를 선정했는데 이는 지적인 깊이로 사회에 다가가는 건축을 한 공로로 교육상을 준 것이다. 토마스 제퍼슨 상은 민간영역에서 알렉산더 쿠퍼(Alexander Cooper, FAIA), 공공건축분야에 다니엘 페일(Daniel Feil, FAIA), 행정분야에 로버트 펙(Robert Peck, Hon. AIA)에게 수여되었다. 이상은 영역별로 수준높은 건축물 창작에 기여도가 큰 사람에게 수여된다. 건축물25주년 상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게리 주택(Gehry Residence)에 돌아갔다. 또한 13명의 젊은 회원들에게 젊은건축사상(Young Architect Award)을 수여했다.

II. 2013년 행사개요

미국건축사협회 2013년도 전국대회 및 관련전시회는 2013년 6월 20~22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의 콜로라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예정이며 대회 주제(Convention Theme)는 "Leadership For Architecture… Leadership Beyond Architecture"다.

대회 개최를 위해 1) 작품 및 자재전시공간 제안 신청을 2012년 7월 30일 정오까지 미국건축사협회 콜로라도 지회에서 접수 받는다; 2) 작품 및 관련 발표에 대한 신청은 2012년 7월 1일 11:59까지 접수를 받는다; 3) 한편 10개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회원을 모집한다.

2012년 주제가 "Design Connects"로 건축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2013년에는 진일보한 "Leadership For Architecture… Leadership Beyond Architecture"로 건축사의 리더쉽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건축사야말로 기회와 희망의 교차점에 서있어 왔다면서 미국이 건축사의 리더쉽, 건축사의 영감(inspiration) 및 건축사의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때이니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10개의 준비위원회는: 1) 대회참가비용 등을 현실화하여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행사참여위원회(Access and **Affordability** for Emerging Professional Committee); 2) 행사주관 및 VIP 환영만찬 위원회(Host Chapter and VIP Parties Committee); 3) 행사 기획상품의 디자인 및 각종 휴게를 총괄할 상점 및 휴게코너 위원회(Host Chapter Gift and Lounge Committee); 4) 대회를 치르는 도시에 대회 후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인가의 고민을 하는 레거시 프로젝트 위원회(Legacy Project Committee); 5) 대회를 통해 건축사 및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 폭넓게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홍보위원회(Public Relations and Media Outreach Committee); 6) 대회 개최지 인근의 건축물 탐방을 기획하는 답사위원회 (Tour Committee); 7) 대회기간 중 비전문가 및 일반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 기회를 고민하는 공공복지위원회(Public Outreach Committee); 8) 대회장 및 주최도시 곳곳의 전시장 및 전시내용 등을 기획하고 점검할 전시위원회(Gallery and Exhibits Committee); 현지 회원사무소에서 조촐하게 접대할 와인-치즈 리셉션을 기획하는 디자인+다이닝 위원회(Design+Dining Committee); 마지막으로 협찬위원회(Sponsorship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AIA Town Hall 일반

AIA Townhall – 컨퍼런스

III. AIA 전국대회 참관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방향

1. 레거시 프로젝트(Legacy Project)

우리 대표단이 일정상 모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첫째, 레거시 프로젝트(Legacy Project)이다. 2012년에는 차세대 건축사를 위한 시각언어실습실을 펠프스 고교(Phelps High School)에 설치했다. 앞서도 언급한 레거시 프로젝트는 미국건축사협회가 전국대회개최 도시에 베푸는 사회공헌 및 환원 프로젝트이다. 2012년 AIA/DC는 워싱턴 건축재단과 공동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건축관련 고교생들에게 건축관련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각언어실습실(The Visual Lanuage Lab)을 구축해 준 것이다.

둘째, 1965년 이래 꾸준히 수정 보완해왔던 워싱턴 DC 건축가이드북의 다섯 번째 판의 발간이다.

셋째, 주최도시인 DC지회가 마련한 파티(AIA/DC host Chapter Party) 인데 250,000 square feet(23,225.76m²)에 달하는 뉴지엄의 저녁행사(A Night at the Newseum)였다. 실무중심의 미디어 정보기술에 초점을 맞춰 양방향전시를 마련하여 대회주제인 Design Connects와 연계하여 미디어 정보기술이 개개인 및 세계를 연결한다는 개념이었다. 1인당 130USD를 내야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는 미리 예산 승인을 받지 않아서 참여는 하지 않았다.

비용을 지불하고 참석하는 교육 및 답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배우는 점이 있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 우리협회의 규칙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미국건축사협회의 시스템과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

(이 내용은 2011년도 국제위원장 김성민 건축사가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공유한다)

1) 미국건축사협회(AIA)

- 1857년 설립 (150여 년간 시스템을 개선, 정착 시킴)
- 이사회: 회장, 회장 당선자, 부회장 4인, 간사, 재무관, 18개 지역을 대표 하는 선출된 이사, 준AIA 회원 2인, 분과위원회의 대표 2인, 선출된 국제 이사, 학생대표(미국건축대학생협회 회장),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
- AIA 지부: 미국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및 미국령인 괌, 푸에르토리코, US버진아일랜드에 있으며 국제지부는 유럽과 영국, 홍콩, 일본에 있음
- 미국의 면허를 가진 건축사는 약 16만 명이고 절반인 약 8만 명이 AIA회원
  [AIA의 조직은 매우 작고 업무가 선택과 집중 됨]

2) 우리에게 없는 AIA의 제도들

(1) 실무교육

미국건축사협회는 건축사자격 유지를 위해 각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년간 18단위시간의 계속교육의 최대 공급자로서 대회기간에 200여 개의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8,000명~12,000명의 건축사가 학점을 이수한다. 전국대회에서 계속교육 등록비로 발생하는 수입은 대단한 규모다. 참가등록비가 $475(조기등록), $550(일반), $750(비회원)이므로 10,000명 등록시 약 $5,000,000(약 62.5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운영의 큰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협회가 실무교육의 중심 공급자가 되는 것에 협회의 미래가 있다고 보여짐]

(2) 수석부회장 직접선거

- AIA전국대회 기간에 수석부회장을 뽑는 직접선거를 실시하여 관심을 고조시 키고 수석부회장이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회장으로 취임

[직접 선거가 모든 회원의 공감을 얻는 협회를 만드는 방법 임]

(3) AIA연례 전국대회

AIA Townhall–구글 스케치업 강좌

AIA Townhall–POD Cast Studio

AIA Town Hall-소규모 사무소 미팅

AIA TownHall

AIA Town Hall 투표소

LEED 코너

- 매년 대규모 AIA전국대회를 개최 (총회, 강연, 실무교육, 자재전시회, 시상)
- AIA대회가 열리는 도시의 건축사가 선거에 많이 참여하므로 차기 회장직을 염두에 두고 총회 유치를 제안
- 약 10,000명의 건축사와 각종 전시회 관련 인원 등 약 5만 명의 인원이 3일 이상 체류하므로 각 도시에서 유치를 희망함
- AIA전국대회는 건축사 위주의 행사로 회장이 진행하고 정치인, 공무원의 축사 등이 전혀 없음

[모든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4) 명예회원(FAIA: Fellow of AIA)

- AIA회원 중 5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회원을 선정해서(전회원의 2% 내외) FAIA의 명예를 수여(1년에 약 100명 수여)
- FAIA수여식은 총회기간 중에 성스러운 성당 등에서 거행하고 기존 FAIA가 신임 FAIA를 초청하는 만찬이 성대하게 거행(Black Tie)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중이 존경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함]

(5) 정치활동위원회(ArchiPAC: AIA Political Action Committee)

- 정치활동이 금지된 AIA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AIA의 모금액을 연방 정부의 선출직 후보 중에 건축사에 우호적인 정치인에 후원

[1,000명의 궐기대회 보다 1명의 국회의원이 효과적임]

(6) 도서출판 및 서점운영(AIA Bookstore)

- AIA와 출판사가 계약을 맺고 AIA의 도서 출간 및 회원에게 할인
- AIA로고가 들어간 멋진 다양한 소품을 판매

[건축사협회 로고가 멋지고 자부심이 느껴져야 함]

(7) 학생지회(Student Chapter)

- AIA에서 건축대학생의 지회를 만들어서 유대관계를 지속

[건축대학생은 미래의 회원이고 건축대학은 협회의 공급자]

3) AIA 제도를 통해 함께 생각해야 할 점

- AIA를 유지 시키는 수입원은 건축사실무교육(계속교육)에 있음
- AIA는 회원의 명예와 존경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 (높은 목표를 지향)
- AIA총회와 선거를 통해서 회원과 협회가 소통함
- AIA는 미국 건축계를 대표함 (세계적 건축사, 소도시 건축사, 교수 등)

우리 협회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미국 연방건축사등록원(NCARB) 방문 및 협의

1. 일 시: 2012년 5월 17일(목) 오전 10:00~12:00
2. 장 소: NCARB 본부 (1081 K STREET, NW, SHUIT 700K. WASHINTON D.C.)
3. 참석자:
   - KIRA: 강성익 회장, 김윤 이사, 김항년 이사, 조인숙 국제위원장
   - NCARB: Scott C. Veazey(AIA, NCARB, President, Chair of the Board) Blakely C. Dunn(AIA, NCARB, Second Vice President) Mary S. de Sousa(CAE, Vice President, Operations), Stephen Nutt(AIA, NCARB, CAE, Vice President, Programs)
4. 회의진행: Stephen Nutt의 ppt자료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프로그램 담당 부회장, 스테픈 넛트(Stephen Nutt)의 미국 연방건축사등록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미국 연방건축사등록원(NCARB: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 이하 "등록원") 은 1919년 설립되어 50개 주, 워싱턴DC 및 미국령 세 곳 즉, 괌, 푸에르토리코, US버진아일랜드의 총 54개 Member Board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약 105,000명의 건축사 관리를 한다. 그 중 70,000명이 회원이고 그 중 40,000명 정도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재정규모는 년간 22,000,000USD(26,255,240,000원)이며 이는 건축사 시험수수료, 실무수련 수수료, 증명발급 수수료, 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이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임.

등록원의 임무(Mission)와 비젼(Vision) 및 가치 (Value)

등록원은 건축사 자격 및 자격증명 등의 기준 등을 마련하고 건축실무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공중보건, 안전 및 복지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HSW).

등록원은 이사회, 자원 활동가 및 직원으로 구성된 다양하고 고효율의 우수한 조직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모범적 기준이나 자격증명의 요구사항 및 상호 자격면허 부여과정과 완성된 고객서비스 등을 통해서 건축규제의 글로벌 리더로서 인식된다.

등록원은 핵심적인 가치기준인 1) 정직하고 공정하며,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완전성**; 2) 일관되고 공평하고 책임 있는 행동의 **책임감**; 3) 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한 규칙, 정책, 과정, 거너번스 및 소통으로 대변되는 **투명성**; 4)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협동성**; 5)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고와 확고한 행동의 **리더십**; 6) 전문적이고 전문가적이며, 정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도 반응이 있는 **우수성**을 확신한다.

등록원의 운영조직 (Management Team)은 90명 이상의 직원이 워싱톤DC 본부의 8개의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행정조직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다. 운영조직은 건축사 및 비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조직(Executive Staff)**은 CEO 1인, 운영담당 부회장 1인, 프로그램 담당 부회장 1인, 이사가 7인으로 자격등록 시험담당, 실무수련 프로그램담당, 행정담당, 홍보담당, 기록담당, 정보체계담당 및 관리담당으로 구성된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자원건축사들로 구성된 12명의 이사들과 공공이사(public member) 1인, 행정이사(executive from a state board) 1인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12인의 이사들은 6인의 회장단과 각 지역(region) 담당이사 6인으로 구성된다. 회장단 6인은 이사회 의장이자 회장, 제1부회장(차기 회장), 제2부회장, 재정담당(treasurer), 사무담당(secretary) 및 직전 회장으로 구성된다. 해마다 6월 연례회의 시 임원선출을 하고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가 임기이다.

등록원의 주요업무(Work) 중 큰 부분의 하나 는 건축사자격등록시험(ARE®: the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 및 실무수련 프로그램(IDP: the Intern Development Program)이다.

자세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실무수련 프로그램(Intern Development Program); 건축사자격등록시험(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 인증(Certification); 상호인증(Reciprocity); 교육(Education); 경력건축사 프로그램(BEA: Broadly Experienced Architect Program: 인증이 안된 학교 출신의 건축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정된다); 외국건축사 프로그램(BEFA: Broadly Experienced Foreign Architect Program); 등록원 시상 프로그램(NCARB Prize Program); 등록원 수여 프로그램(NCARB Grant Program); 등록원 출판물(NCARB Monographs); 국제실무(International Practice: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 등록제, APEC 등록건축사 프로그램 운영); 실무 평가분석(Practice Analysis: 매 5~7년마다 조사하여 HSW등을 충족하는가 확인하며 IDP, ARE 및 실무교육 및 인증 등에 활용한다)

주요 업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무수련프로그램(IDP: Intern Development Program)은 1970년 처음에는 등록원과 미국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프로그램인데 현재는 등록원에서 발전시킨 내용으로 등록원 자체로 운영한다. IDP2.0이라는 최신 자료가 마련되어 최초 면허등록 할 때까지의 실무수련을 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실무 수련자는 3년 동안 5,60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IDP2.0은 4부분(Categories and areas)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전 검토(Pre-Design, 최소 260시간); 2. 설계(Design, 최소 2,600시간); 3.프로젝트 운용(Project Management, 최소 720시간); 4. 실무 경영(Practice Management, 최소 160시간)이다. 최소시간 만으로는 5,600시간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1,860시간을 선택 체험(elective experience)으로 보충해야 한다.

NCARB

NCARB

각각의 실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토 (Pre-Design, 최소 260시간)
   1A. Programming (80 hours)
   1B. Site and Building Analysis (80 hours)
   1C. Project Cost and Feasibility(40 hours)
   1D. Planning and Zoning Regulations(60 hours)

2. 설계 (Design, 최소 2,600시간)
   2A. Schematic Design (320 hours)
   2B. Engineering Systems (360 hours)
   2C. Construction Cost(120 hours)
   2D. Codes and Regulations (120 hours)
   2E. Design Development (320 hours)
   2F. Construction Documents (1,200 hours)
   2G. Material Selection and Specification(160 hours)

3. 프로젝트 운용 (Project Management, 최소 720시간)
   3A. Bidding and Contract Negotiation (120 hours)
   3B. Construction Administration (240 hours)
   3C. Construction Phase: Observation (120 hours)
   3D. General Project Management(240 hours)

4. 실무 경영 (Practice Management, 최소 160시간)
   4A. Business Operations(80 hours)
   4B. Leadership and Service(80 hours)

이 부분은 중요하므로 자료에서 채택 보충 설명했으나 상세내용은 IDP Guideline(http://www.ncarb.org/Experience-Through-Internships/~/media/Files/PDF/Guidelines/IDP_Guidelines.pdf)을 참조하기 바란다.

건축사 시험(ARE: Architect Registration Examination)이란 응시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고 건축실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등록원의 서두에 명시된 건축사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사가 되기(Becoming an architect)"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자.

"건축사란 주로 피난처를 제공하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분야에서 훈련된 자격면허가 있는 전문가다. 또한 건축사는 건물 및 특정 공간에서 사용되는 가구의 설계 등 실내설계를 포함하여 건축이 어떻게 그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가부터 건축 및 시공 상세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건축설계에 관여한다. (**Architects are licensed professionals** trained in the art and science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that primarily provide shelter. Additionally, architects may be involved with designing the total built environment?from how a building integrates with its surrounding landscape to architectural or construction details that involve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to designing and creating furniture to be used in a specific space.)

건축사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미학적인 부분이나 외관을 창조하지만 건축설계란 그 보이는 모습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다. 건물은 반드시 기능적이어야 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란 공중보건, 안전 및 복지를 염두에 두고 건립되어야 한다.(An architect will create the overall aesthetic and look of buildings and structures, but the design of a building involves far more than its appearance. Buildings also must be functional, safe, and economical and must suit the specific needs of the people who use them. Most importantly, they must be built with the **public's health, safety and welfare** in mind.)"

건축사가 되기 위한 주요 다섯 단계란: 1. 교육요건 충족(Meet Educational Requirement-**Education**); 2. 실무수련 충족(Meet Experience Requirement-**Internship**); 3. 건축사자격시험 (Meet Examination Requirement-**Examination**); 4. 면허취득(Meet Licensure Requirement **Initial Licensure**); 5. 자격면허 인증 및 등록(Get Certified-**Certification**)

1965년부터 통합된 시험을 실시하고 1997년부터는 computer를 이용한 시험을 치른다.

실무교육(Continuing Education /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등록원은 건축사들이 직업에 필요한 최신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하도록 자기계발 교육을 협조한다. 1993년 보완된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하여 그 동안 25 종의 단행본 및 6종류의 미니단행본이 발간되었다. 이 단행본들은 편리하고(Convenient), 융통성 있으며(Flexible), 저렴하며(Affordable), 전문가가 저술한 귀중한 자원이다(A valuable Resources)이라는데 등록원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미니 단행본(Mini Monographs)은 간단한 퀴즈를 통해 HSW 및 SD(Sustanable Develpoment)에 필요한 실무교육이나 계속교육의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한 간단한 문건으로 무상으로 등록건축사에게 제공된다.

한편, 각각의 주마다 요구되는 실무교육 기준은 다르며 등록원에서 교육의 인증을 하고 관리함. 교육 기준은 달력의 년간 기준

이다. 등록일 기준, 이름 알파펫 기준, 생일기준 등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나 등록원에서 년간단위로 표준화 시행 중이다.

갱신등록기간은 매년, 2년, 3년, 5년 등 각 주 별로 다르다.

갱신등록을 위해 12시간의 HSW의무교육이 필요하다.(참고로 AIA의 18시간 교육은 AIA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자체 요구 교육이다)

인증 및 상호 인증관계(Certification and Reciprocity)

미국 연방건축사등록원 인증서(NCARB Certificate)로 54곳의 등록원 Member Board및 11 곳의 Canada 관할구역 내에서는 용이하게 상호 등록이 되며 외국에서 등록하고자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온 라인 상에서 Record를 "송부요청(Request a transmittal)"하면 원하는 각 Member Board에서 처리된다.

등록원은 캐나다 건축위원회(CCAC: Committee on Canadian Architectural Councils)와 시행각서(Letter of Undertaking)로 상호인증 관계에 있다. 다만 관할구역에 따라서 지켜야 할 특별조항이 있거나 몇 구역은 사인은 안 했어도 상호인증제도에 의해 인정할 계획인 곳도 있다. 특별조항의 예는 지진에 관한 사항, 지역법규, 일정에 따른 실무요건들, 북극 등 극지 공학(Arctic Engineering, 알래스카), 영어 등이다.

건축학교육 인증원으로부터 인증되지 않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평가서비스 (EESA: Educational Evaluation Services for Architects)를 하고 있다

국제 관계

- CANADA, MEXICO, 미국의 3자 회담 진행: MRA에 관련하여 NATIONAL AGREEMENT 구축 진행중임.
- AUSTRALIA, NEW ZELAND, 중국, 일본과 교류 중
- CHINA를 제외하고 대부분 MOU BASE로 하고 있으나 MOU 의 실효성은 별로 없다.

기타사항

- FTA 및 MRA에 대한 협의는 누구와 하는가? NCARB
- CANADA와의 MRA는 현재 NJ, NY, MI등 3개주는 반대하고 있음.
- BEFA PROGRAM: 54BOARD 중 30개는 반대
- 건축사 자격증의 발행은 누가하는가? NCARB
- NCARB에서 직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REVIEW하고 승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음. 그러므로 NCARB와 교육에 대한 자료 공유 등은 할 수 없음. 참고로 관련 도서를 통한 교육인증은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이용할 수는 없음.

V. KIRA-AIA 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

1. 2008년 2월 본 협회 최초로 AIA 본부 공식방문

2. 2008년 5월 보스턴 AIA 컨벤션 참석: 이 당시 한-미 건축사단체 간 교류협력 추진에 합의하고, 실무진을 구성하여 실무를 추진키로 합의(KIRA-AIA-NCARB)

3. 2008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석한 AIA 대표단과 KIRA-AIA간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체결

주요 교류내용:

- 실무교육(CPD) 프로그램 개발과 건축사실무수련, 건축사시험제도에 관한 협의
- 정기간행물 정기 교환, 건축에 관한 최근 법령제도 정보 교환
- 건축 관련 컨벤션, 심포지엄 개최 시 양 단체에서 대표단 파견 등

4. 2007년 ~ 2011년 본 협회 대표단 AIA 컨벤션 참가

내용: 한명수(KIRA), 최영집(FIKA) 전임회장 명예회원 및 프레지덴셜 메달 수상.

이근창 ARCASIA 전임 회장 명예회원 및 프레지덴셜 메달 수상

AIA 전국대회 참가 주요사항은

- 2007 텍사스 주/산 안토니오: 이근창 ARCASIA 회장 Hon. AIA 수상
- 2008 보스턴
- 2009 샌프란시스코 : 한명수 전임회장 Hon. AIA 수상
- 2010 마이애미 : 최영집 FIKA 대표회장 Hon. AIA 수상
- 2011 뉴올리언스 : 강성익 회장 참가
- 2012 워싱턴 DC : 강성익 회장 참가, 이언구 FIKA대표회장(전 AIK회장) Hon. AIA수상

최근 AIA 측에서 FIKA-AIA 협정체결 및 대한민국 내 AIA 지부 개설 등을 협의 하기 위한 FIKA-AIA 회의 개최 제안을 해 왔으나 우리 협회는 기 체결되어 있는 "교류협력에 관한 약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KIRA-AIA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작성자 : 조인숙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국제단체장포럼 후 AIA HQ앞 KIRA대표단

협회소식

제6회 이사회

2012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에 우리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처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사무기구 조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의 건,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양성사업 예산 지원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처의 건
  - 합 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사무기구 조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의 건
  - 사무기구표는 수정 검토(안)으로 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협회의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미래친환경 저에너지 양성사업 예산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기타사항

- 8월 이사회는 8월 22일(수) 14:00에 개최하기로 함.
- 정관이 개정되어 '특별회원'이 '전문회원'으로 변경된 만큼 이를 알려주고, 전문회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토록 요청함.
-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성과물 등의 제출)에 따라 '11년도 위원회별 IF팀 성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함.

위원회 개최 현황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차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수여식 개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함.
- 제2호 : 2012년도 제1회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 개최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개최하고, 인정시간을 3시간으로 협의.
- 제3호 : 제2기 APEC 등록건축사 제1차 등록갱신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4호 : 제3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및 간사는 유임하기로 하며, 제3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협의.
- 제5호 : 운영매뉴얼 개정에 관한 건
  - 운영매뉴얼을 위원에게 회람하여 의견 취합 후 결정하기로 협의.

▲기타사항

- 10월에 개최되는 APEC 중앙이사회 참가 희망자는 APEC건축사 사무국에 참가신청을 해야 하므로 의사를 밝히도록 독려함.
- 캐나다 BC 주정부 친환경 세미나는 인정시간을 3시간으로 협의.
- 회비만으로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여야 함

■ 제1회 사업위원회 소위원회

제1회 사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안 : KAFF CATALOG 발간에 따른 회원 질의응대의 건
  - 2011년도 자재추천업체인 '로이단열재'의 질의사례로 토론하였음.

– 개별적으로 분야를 전담하여 대응하는 것은 위원임기동안 어려우므로, 질의가 들어오면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답변키로 함.

▲기타사항

• 성능이 미흡한 제품의 전시회 참가유무는 사업위원회 회의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키로 함.

■ 제4회 사업위원회

제4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안 : KAFF 2012 마케팅 현황보고 및 전시 기획의 건
  – 주요 마케팅 결과와 전시회 회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논의함.
• 제2안 : 전시회 참가신청 접수 거부의 건
  – '열반사단열재'를 부적절한 전시품목으로 분류할 것인지 차기회의 안건으로 재협의함.

▲기타사항

•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에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상(1개) 신설을 추진함.

■ 제5회 국제위원회

제5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중국건축학회(ASC) 협정(Accord) 체결 방문의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의 건
  – 업무분장을 토대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함
• 제3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NABAR 의견 요청 사항 및 협의 결과
    가. 협의회 개최일 : 개최일자를 11월 중으로 희망함 (11월, 12월 모두 가능)
    나. 협의회의제 : 회장단 회의 (Summit Conference), 정부관계자 회의 (Governments Official's Meeting), Community Architects Meeting 개최를 희망함 → NABAR로 의견 송부 (예정)
  – 연사 및 발표자 선정
  –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3국 핸드북 발간에 관한 사항은 최근까지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 직전위원장에게 관련 업무진행을 요청하기로 함

일자		발표주제	발표자 / 연사
12.11 (화)	협의회	APEC 건축사 제도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 (예정)
		건설시장 감리에 관한 소통 건축사 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 3국의 건축사 윤리	심형섭 (예정)
		차기회의 주최 단체 소개발표 (대한민국 인천)	국제위원 또는 인천건축사회 관계자가 발표하는 방안 제안
	건축세션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Island) 건설에 관한 의견	차후 논의
		주제 2. 자연재해 방지와 건축에서의 완화	차후 논의

  – APEC 건축사제도 추진현황 발표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자를 추천하기로 함
  – 차기회의 주최단체 소개발표는 국제위원 또는 인천건축사회 관계자가 발표하기로 함
  – 2013년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17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의 주제는 의견을 취합하여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함
    ※ 2011년도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는 자연재해 및 Community Architects에 관해 주로 발표하였음

■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FIKA-UIA 계약 체결의 건
  – 영문 계약서 검토결과를 승인하며 'architect'의 국문번역은 국내 건축사법에 규정된 공식 자격명칭인 '건축사'로 표기 요청하기로 함. 또한 FIKA-UIA 계약은 3단체장 사전 서면동의(필요시에는 서울시 포함)를 받은 후 체결하도록 FIKA 대표회장 사무국에 요청하기로 협의
• 제2호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해외단체장 초청의 건
  – 태국건축사협회(ASA),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유럽건축사협의회(ACE) 대표단을 초청하기로 하며, 미국건축사협회(AIA), 중국건축학회(ASC) 대표단 초청과 본협회 건축사등록원의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 회장 초청 및 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협의
• 제3호 :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의 건
  – 연사 및 발표자 선정

일자		발표주제	발표자 / 연사
12.11 (화)	협의회	APEC 건축사 제도	대한민국 APEC 등록 건축사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 (예정)
		건설시장 감리에 관한 소통 건축사 실무행정, 건축사의 책임과 신뢰, 3국의 건축사 윤리	국토해양부 관계자 (예정)
		차기회의 주최 단체 소개발표 (대한민국 인천)	국제위원 또는 인천 건축사회 관계자가 발표하는 방안 제안
	건축세션	주제 1. 국제적인 관광 섬(Island) 건설에 관한 의견	심형섭 위원
		주제 2. 자연재해 방지와 건축에서의 완화	차후 논의 (서울시에 발표제안 예정)

■ 제2회 법제위원회

제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실내건축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대처의 건
  - 실내디자인자격제도 국가공인화 및 실내건축사 자격확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공청회에 참석하여 패널 및 플로어 발언 등으로 의견개진하기로 함.

■ 제2회 친환경TF

제2회 친환경TF 회의가 지난 6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 운영기관 추진방향에 관한 건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에서 에너지 평가서에 관한 기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회가 에너지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수립(운영기관 지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이 때 교육관련 부서 및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방향에 관한 건
  - 국토부에서 검토중인 동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입수한 후 다음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친환경TF팀 추진과제에 관한 건
  - 친환경 자재 DB구축에 관해서는 KAFF가 주관을 하고 우리 위원회가 서포트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함
  - 친환경 건축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며, 건축대전과 건축사대회 진행사항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각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함

    ① 친환경 인증기관 추진에 관한 건 : 박종철 위원, 이기완 위원

    ②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관한 건 : 박종철 위원, 이기완 위원, 이창우 위원

    ③ 친환경 자재 DB 구축의 건 : 조병섭 위원

    ④ 친환경 건축포럼 개최의 건 : 임인옥 위원, 조일권 위원

■ 제3회 건축영화제TF

제3회 건축영화제TF 회의가 지난 6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제4회 서울 국제 건축영화제 개최 시기를 11/1(목)~11/7(목)로 정하고 영화제 컨셉은'도시(City)'로 잡음.
  - 영화제 예산은 1억 규모로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함.
  - 영화제 홈페이지 및 포스터 디자인은 우선 한국건축가협회의 '서울건축문화제' 디자이너에게 우선 의뢰 후 견적을 내어본 뒤, 작년 상영작 〈도시〉의 김혜영 감독에게도 요청하기로 함.
  - 올해 영화제는 건축전공자들 외 일반인들에게도 다가가기 쉽게끔 거장 건축사관련 다큐 4편, 극예술영화 6편을 선별하기로 결정.
  - 영화제 준비기간이 3달 정도 늦은 만큼, 앞으로 1주일에 한 번씩 TF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제4회 건축영화제 TF

제4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6월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4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 함.
  - 본 영화제 트레일러 및 포스터 디자인은 전년도 상영작이었던 단편 애니메이션 〈도시〉의 김예영 감독이 맡아 해주기로 함.
  - 영화제 예산을 단상제작+리셉션을 포함하여 1억1천만 원으로 수정.
  - 이번 영화제 상영료를 8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함.
  - 영화제 홈페이지 제작이 시급한 상황. 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에이전시를 찾아 한 달 내로 홈페이지 제작이 진행되도록 추진.
  - 다음 주부터 TF회의 시간을 6시로 앞당김.
  - 추려놓은 영화들을 구매하기 시작하며, 백두대간에서 우리 영화제와 어울리는 영화들을 추천해주기로 함.

■ 제2회 건축위원회

제2회 건축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검토에 관한 건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2개 기관)에서 건축사 1인을 채용하여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관련조항(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3호 및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의 부당성을 규명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을 삭제하는 건축사법 개정이 필요함.
• 제2호 : 기타의 건
  ①「건축 · 도시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관한 건
    –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직결되는 연구로써 우리협회는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
  ② 건축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제1회 전통건축 TF

제1회 전통건축 TF 회의가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사항

• 제1호 : 전통건축 TF팀 운영 및 추진 방향에 관한 건
  – 전통건축 TF팀은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등 건축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 한다.
    ① 한옥관련 책자를 발간한다.
    ②건축사대회 때 세미나 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 제2호 : 기타의 건
  – 다음회의는 7월 17일(화요일) 14시에 한다.

우리협회, 중국건축학회(ASC)와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 체결

우리협회는 중국건축학회(회장 Che Shujian)와 지난 6월 4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건축학회 사무실에서 건축사의 실무기준과 신뢰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실무 전문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 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우리협회 강성익 회장과 처 수지엔 중국건축학회 회장 및 양 단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 단체는 앞으로 건축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양 단체는 건축교육, 자격시험 및 등록의 상호인증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양자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건축시장이 상호 개방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건축교육, 실무수련, 자격시험, 자격등록과 징계 등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대표단과 참관인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다.

중국건축학회는 우리협회와 같은 UIA(국제건축사연맹),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 회원단체로서 건축 관련 국제교류에도 협력관계에 있고, 31개 성 · 시별 지방학회와 22개의 전문분야별 분회 및 전문가회원 10만 명, 단체회원이 300개에 이르는 연합체로 중국 민정부(民政府, Ministry of Civil Affairs)에 등록된 건축 관련 독립법인단체이자 법적단체다.

강성익 회장은 "중국건축학회와의 협정체결을 통해서 건축분야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갈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건축사회, 인천시교육청과 '소규모 공사 기술지도 및 검수업무 지원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과 6월 26일 교육청에서 '소규모 공사 기술지도 및 검수업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감리업무를 기피하는 추정가격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인천시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의뢰서를 통해 요청이 있는 경우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강원도건축사회, 성금 기탁 및 건축사대회 행사 개최

강원도건축사회가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 봉사활동 희생자'를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어려운 시기 지쳐가는 건축사들에게 훈훈한 미소를 짓게 했다.

허민구 회장과 임직원 일동은 지난 5월 24일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를 방문해 천전리 산사태 봉사활동 희생자를 위해 써 달라며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 강원도건축사회 지난 6월 9일 정선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2012강원도건축사대회'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50여명과 가족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화합과 유관기관 친선대회를 가졌으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태백시 건축직 공무원 4명에게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대회를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영평정태지역 건축사회 김재중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2012 협회발전워크숍' 열어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최종옥)는 지난 6월 19일 공주 마곡사에 있는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012 협회발전워크숍'을 가졌다.

최종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 협회발전에 힘써주시는 회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앞으로 충남건축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며 워크숍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남건축사회 정회원이 91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보고하였고, 분임토의 주제로 설계 및 감리비에 대한 현실적 방안, 직원수급에 대한 방안, 건축사의 권리회복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방안으로 분임별 토의진행이 되어 분임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마쳤다.

당진시지역건축사회, 건축과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

당진시지역건축사회는 당진시 건축과와 함께 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6월 27일 이원규 회장과 회원들은 송산면에 거주 중인 김세정 씨 댁을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봉사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당진시지역건축사회에서는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의 생활을 반영하여 내부 도배, 장판 교체 및 외부 도색, 싱크대교체, 등기구교체, 환경폐기물 처리 등의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

김해시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회원 50여명은 지난 6월 14일 오전10시부터 2시간가량 김해시 북부동 및 흥동 인근 해반천 주변 쓰레기정리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앞으로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연중 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계소식

2012 서울건축문화제

2012 제3회 서울건축문화제가 '제30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오는 7월 27일까지 부문별 접수를 받아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며,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 5일 ~ 10. 14까지 새로이 문을 여는 서울시 신청사와 서울도서관(구청사)에서 마련되는 2012서울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되며 아울러 시상식(10월 5일)도 함께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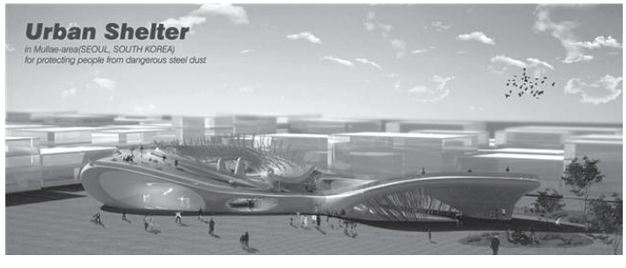
이번 건축상 공모분야는 일반건축, 공공건축, 신진건축, 건축전문, 건축계획, 25년 건축, 학술공로, 대학생부문으로 총8개 부문이며, 대상 1, 최우수상 5, 우수상 25명으로 총 31명에게 시상된다.

특히 금번 제30회 건축상은 사용된지 2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서 현재까지 건축적,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의 건축주에게 주는 '25년건축부문'의 상이 추가됐다.

대학생 부분은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읽기'라는 주제로 도심 내 쪽방촌의 가치발견과 의미 있는 재해석을 1박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우리의 도시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한 소소하고 담담한 이야기를 제시한다.

건축상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www.saf2012.or.kr), WOW서울,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제2회 녹색도시공모대전 수상작 발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회 녹색도시공모대전의 최종 수상작이 발표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했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는 건국대 건축학과 소속팀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 〈Urban Shelter〉는 커뮤니티 기능과 공원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로서 도시 미기후 개선,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수상작에 대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손세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재난재해, 품격있는 경관, 녹색기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들이 많았고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작품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80팀이 참가, 국토해양부장관상 2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상 2팀,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특별상 1팀, 도시설계학회 등 학회장상 7팀 등 총 12팀이 본상을, 수상했으며, 후원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은 〈WINDS OF LIFE BLOW〉으로 한경대학교 이재만 외 3인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2012국토해양기술대전'이 진행되는 6월 7일, 수상작품 전시는 6월 7일~9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시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젊은 세대들과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창의적이면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실용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MVRDV (垂直村落–The Vertical village)전시회 개최

토탈미술관에서는 6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The Vertical Village'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도시의 제한적인 조건 안에서 이렇게 단조롭게 수직적으로 팽창해나가는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그 수직적 형태는 유지하되 거주자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을 순 없을까?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MVRDV와 글로벌 싱크탱크 The Why Factory가 3년간의 리서치 끝에 창안한 버티컬빌리지(The Vertical Village)개념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MVRDV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각자가 꿈꾸는 집과 마을을 지어 볼 수 있다.

경기도 우수건축물 및 건축명소 후보 공개모집

경기도에서는 우수 건축물 및 건축명소를 홍보하고자 「경기도 건축지도」에 소개될 우수 건축물 및 건축명소 후보를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추천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완공된 근 · 현대 건축물(단일 건축물) 및 공간환경(건축물의 집합, 또는 장소 등) 중에서 건축적 또는 그 장소적 가치의 품격과 품질이 우수하여 지역건축자산으로서 홍보, 기록, 보존, 교육, 활용 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건축물 및 건축명소들로 개인, 학생, 건축사,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추후 "(가칭)경기도 우수 건축물 및 건축명소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향후 소개 책자 및 지도,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웹사이트(www.g-archimap.kr)를 통해 가능하다.

2012년도 제7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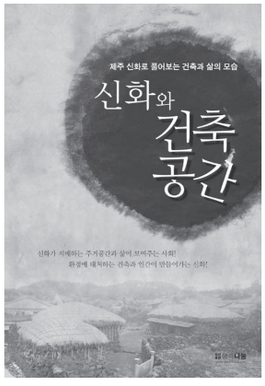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와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 '2012년도 제7회 공중화장실 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일반부문 응모자격은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이며, 대학(원)생 부문은 건축설계 및 관련디자인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원)생이다. 설계조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저탄소 · 녹색성장에 부합할 수 있으며, 독창적일 것. 여성 · 장애인 · 노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한 화장실이어야 한다.

- 등록기간 : 8월 17일까지
- 작품 제출기간 : 8월 24일
- 자료 제출접수처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 1116호)
- 자료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bkmorkr@naver.com 02-703-1665~6)

신간안내

신화와 건축공간–제주 신화로 풀어보는 건축과 삶의 모습

양성필 저 | 332쪽 | 생각나눔



저자는 이 책에서 건축의 본래 의미와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었다. 인간의 삶을 중심에 놓고 기후나 바람, 바다와 산 등 지리적 측면과 풍습이나 가족관계, 외부 세력과의 문제 등 문화적 측면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건축물에 접근하고 있다. 나아가 인간과 건축물이 상호작용하며 변천해 온 역사를 제주지역(민간신앙) 신화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 저자는 신화를 읽어가는 방식에서 인간이 늘 사용하는 상징과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고, 이러한 심층의 구조를 밝혀 건축공간을 이해하는 방법적 토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화와 건축공간이라는 것은 관념과 물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적 산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곳곳에 수록되어 있는 제주 전통건축의 도면들은 세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 또한 새로운 재미를 더해 준다.

이탈리아 도시기행

정태남 저 | 404쪽 | 21세기북스

이 책은 북부의 베네치아부터 중부를 거쳐 남부의 시칠리아 섬까지 동선을 따라 마치 함께 기차 여행을 하듯, 도보 여행을 하듯 이탈리아 18개 도시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그려낸다. 그 과정에서 때론 고대 중세 근대 역사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으로 '지적 쾌감'을, 때론 시각을 압도하는 건축물과 아름다운 광장과 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각적 쾌감'을, 때론 감성과 위트로 가득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낭만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책의 내용은 건축, 역사, 예술, 음악, 신화 등의 요소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저자는 건축가이자, 화가이자, 음악인이자, 작가로 활동하면서 갖춘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북부지방의 수상도시 베네치아,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베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는 밀라노, 그리고 콜럼버스의 고향 제노바 등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곳곳의 건축명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남부지역건축사회/(043)543-9911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400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2-2084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_Kim, Eunmee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건축 바깥에서 일하는 건축인들

The Coolhaus ice–cream sandwich truck in Los Angeles was started by architecture graduate Natasha Case.
Caro Scuro / Flickr

Woodbury University는 "Architects Beyond Architecture" 행사를 주최했다. "관습적인 사무실의 대안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6명의 건축전공 출신 작가들"이 참여한 토론회이다.

비주얼 아티스트 Won Ju Lim, 건축사/개발자 Brett Farrosm, Cognoscenti Coffee의 오너 Yeekai Lim, Coolhaus 아이스크림의 오너 Natasha Case, 조각가 Carmen Salazar, 그리고 디자인 제조 회사 Arktura의 디자이너 Sebastian Munoz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여기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 중 아무도 건축사로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공급이 모자라는 건축업계에서 그것은 완벽히 이치에 맞는다. 어째서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게 잘 갖춰져 있을 때 방관만 하고 오직 한 가지 직업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1학년도 승인된 프로그램으로부터 6,191명이 졸업했다.(그리고 그들 중 반은 면허를 취득한 건축사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순수한 노동통계를 본다면 학교의 반은 폐교해야 할 것이다." the School of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gne의 어시스턴트 디렉터 Lee Waldrep이 말했다.

게다가 그는 건축사로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또한 의사소통, 협업, 자료 조사,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이 점은 계획, 프로젝트 매니져, 컴퓨터 디자인, 개발, 패션 디자인, 사진, 인도적 발달, 가구 디자인, 영화, 그리고 더욱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디자인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건축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직 건축사가 되는 것만을 생각한다. 학생들은 계획자 혹은 지도제작자나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이용가능한지 모른다." Becoming an Architecture: A Guide To Careers In Design (Wiley Press.)의 저자 Waldrep는 말했다.

그는 젊은 건축사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더욱 잘 팔 것과 그리고 당신이 건축 프로젝트를 디자인 하는 것처럼 당신의 직업과 "스스로를 설계하라"고 권한다.

"당신은 디자인 과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는 그의 주문(mantra)이다.

Woodbury 토론자들 중의 한명인 Natasha Case는 Berkeley 건축학사와 UCLA 건축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녀는 지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판매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4개의 도시로 확장되었고 2009년에 창업한 이후로 연간 300% 넘게 성장해왔다.

건축학교에서 그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만약 분명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느냐와 어떻게 그녀 자신을 각인 시키느냐이다.

"심사위원의 앞에 서있고 당신의 작품에 대해 얘기하는 당신은 무엇이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들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에서 특징과 스타일 그리고 기량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Case는 말했다.

그녀는 건축학교가 그녀를 건축 사업에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저는 우리가 결코 프로젝트의 예산을 토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창의적인 사람은 확고한 한 가지 방법 대신에 창의적인 많은 방법들에 매혹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지금 그녀는 늘 전통적인 관례에서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녀의 디자인 기술들을 상표, 샌드위치, 트럭, 그리고 가게들을 개발하는데 사용한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건축의 언어와 창의적인 공간 구성을 배우는 것과 덜 전통적인 방향으로 그 능력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건축학과 학생들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 수축시기에, 다른 종류의 일로 눈을 돌리던 전통 건축 -한 유명한 경우로 Delirious New York를 통해 연구를 한 Rem Koolhaas- 은 복업을 통해서 창의력을 부추기는 중요한 방법으로써 잘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심지어 재능들을 사용하면서 디자인 토론 내 필수적인 일원으로 활동하며 영원히 주름을 남긴 이들조차도 여전히 종종 그들 스스로를 전문직의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건축사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어째서 그들이 모두 상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 위 의 글의 일부는 Architecture Newspaper의 글의 일부를 발췌 인용 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2년 5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702	5,702	94	188	9	27	5,805	5,917	1,662	1,662	228	456	58	174	28	112	18	121	1,994	2,525	7,799	8,442
서울	883	883	23	46	2	6	908	935	841	841	123	246	40	120	12	48	12	72	1,028	1,327	1,936	2,262
부산	485	485	11	22	2	6	498	513	112	112	22	44	2	6	2	8	2	15	140	185	638	698
대구	481	481	21	42	4	12	506	535	67	67	18	36	3	9	3	12	0	0	91	124	597	659
인천	281	281	4	8	0	0	285	289	67	67	6	12	1	3	0	0	0	0	74	82	359	371
광주	203	203	0	0	0	0	203	203	41	41	8	16	1	3	3	12	0	0	53	72	256	275
대전	266	266	6	12	0	0	272	278	32	32	7	14	5	15	0	0	1	13	45	74	317	352
울산	184	184	5	10	0	0	189	194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11	220
경기	804	804	1	2	0	0	805	806	242	242	20	40	2	6	2	8	1	5	267	301	1,072	1,107
강원	187	187	2	4	0	0	189	191	24	24	2	4	0	0	1	4	0	0	27	32	216	223
충북	220	220	3	6	0	0	223	226	36	37	2	4	1	3	2	8	1	9	43	61	268	289
충남	264	264	1	2	0	0	265	266	49	49	4	8	1	3	2	8	0	0	56	68	321	334
전북	259	259	5	10	0	0	264	269	24	24	4	8	0	0	1	4	0	0	29	36	293	305
전남	213	213	1	2	0	0	214	215	19	19	2	4	0	0	0	0	1	7	22	30	236	245
경북	390	390	4	8	1	3	395	401	39	39	3	6	1	3	0	0	0	0	43	48	438	449
경남	447	447	7	14	0	0	454	461	34	34	3	6	0	0	0	0	0	0	37	40	491	501
제주	135	135	0	0	0	0	135	135	15	15	1	2	0	0	0	0	0	0	16	17	151	152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비 율	
합 계	8,442	100%	13
서 울	2,262	33.9%	2
부 산	698	7.9%	8
대 구	659	7.7%	0
인 천	371	3.8%	0
광 주	275	3.7%	0
대 전	352	3.7%	0
울 산	220	2.6%	0
경 기	1,107	12.2%	3
강 원	223	2.6%	0
충 북	289	3.0%	0
충 남	334	3.1%	0
전 북	305	3.0%	0
전 남	245	1.9%	0
경 북	449	4.6%	0
경 남	501	5.0%	0
제 주	152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5,917	2,525	8,442	
비율	70.09%	29.91%	100%	
사무소수	5,805	1,994	7,799	
비율	74.43%	25.57%	100%	